

느린 여행자의 안식처 양산



WORN WHEN IT COUNTS

최고의 순간, 완벽한 선택

Christine Felaki & Joey Vosburgh
Ktunaxa | Sinixt Territory
Selkirk Mountains, British Columbia
Photo: Ange Percival



ARC'TERYX



이달의 여행 038 느린 여행자의 안식처 양산

천성산의 일출부터 통도사의 금강계단, 원도심의 주민들까지, 자연과 도시를 넘나들며 경남 양산의 다채로운 겨울 풍경을 마주했다.



표지 이야기

경남 양산 통도사

영축산 자락에 자리한 통도사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의 삼보사찰 중 하나다. 선덕여왕 15년(646년)에 지었으며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으로 유명하다. 경내로 들어서면 유구한 세월이 느껴지는 건축물과 함께 빛바랜 벽화들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극락보전 외벽을 장식한 불화는 불자의 극락 길을 지키는 수호자 인왕상이다. 붉은색의 날렵한 몸놀림과 강렬한 인상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진다.



“Make the world healthy with milk.”

A2
전용목장
100%
A2우유



플러스1.
체세포수1등급
세균수1A

플러스2.
EFL공법



서울우유답게 A2우유에 플러스까지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

018 듣는 여행

치유의 주파수

경북 경주의 황성공원에서 펼쳐지는 핸드팬과 오션 드림 연주가 마음을 어루만진다.

020 촬영지 여행

붉은 인연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에서 밤하늘을 붉게 수놓은 낙화놀이 장면은 경남 함안 괴항마을에서 촬영했다.

022 여행자의 방

전주 여행의 시작점 신라스테이 전주

시설, 음식, 서비스, 입지까지 완벽한 전북 전주의 숙소를 발견했다.

026 한국의멋

색동옷 입은 북어

나무에 섬세하고 아름다운 민화를 입힌 김생아 작가의 북북어를 소개한다.

027 한국의맛

돌에 피는 꽃

투박한 껍질 속 부드러운 속내를 드러내는 굴을 마주했다.

028 시절, 풍경

은빛 한대

산과 들, 하늘이 온통 눈으로 뒤덮인 1월의 장면을 포착했다.

034 전국 행사달력

1월의 축제·공연·전시 소식

겨울밤의 정취를 품은 빛으로 가득한 행사 소식을 전한다.

062 여행의발견

강릉, 향기에 물들다

예술과 역사, 미식이 겹겹이 이어지는 강원도 강릉 여행이 온몸의 감각을 깨운다.

078 기차안 세계 여행

낭트와 렌에서 만난 삶의 예술

창의의 힘으로 변화와 혁신을 좇는 프랑스 북서부의 두 도시를 방문했다.

088 이계절엔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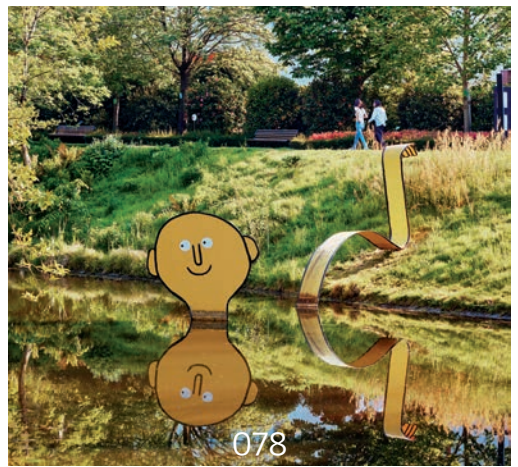
사심 가득 태안 1박 2일 여행

에디터가 100퍼센트 즐기고 온, 충남 태안 여행기를 공개한다.

114 인터뷰

지구의 은하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작품으로 헛 옷의 장례식을 치르는 작가 김은하를 대면했다.



made in TAEBAEK

강원도 태백

한국철도공사와 함께하는 인구 감소 지역 여행 프로젝트의 첫 목적지는 강원도 태백이다. 이곳에서 도시의 유산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공간과 사람들을 만났다.

monami®



Plus Pen 3000
PRIME
유성 볼펜으로 거듭나다

프러스펜 3000 프라임은 모나미의 프러스펜 3000 수성
디자인을 재해석한 프리미엄 유성볼펜입니다

(주)모나미 고객센터 080-022-0153 | 홈페이지 www.monami.com

120 전시 보러 갑니다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예민한 감각으로 시대의 쟁점을 포착하는 조안 조나스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봤다.

128 함께 여행

소리 명상의 세계로

우주선을 닮은 악기, 핸드팬을 배우기 위해 하택후 연주가를 찾았다.

134 에디터의 노트

빙글빙글, 별난 도서관

기존 공공 도서관의 틀을 깨는 경기도서관의 이색적인 독서 풍경을 담았다.

140 한국 탐구 생활

이방인의 단골집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국적의 이방인 네 명이 향수를 달래는 단골집을 알려 줬다.

150 KTX타고도보여행

혼자 여행의 첫걸음, 공주

충남 공주의 제민천 거리를 여유롭게 거닐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158 책 속의 무대

태풍이 몰아쳤지만 참으로 화평하여라

국립극단의 연극 <태풍>이 화해와 용서로 태풍을 같이 이겨 내자고 제안한다.

162 트렌드 읽기

새로운 소비 스타일, 경험 사치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특별한 경험이 더 중요해진 시대를 진단했다.

164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1월의 소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고 긴 여운을 남기는 콘텐츠를 선별했다.

176 플레이리스트

카디와 떠나는 음악 여행

거문고를 품은 밴드 카디가 새해에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 응원을 보냈다.

168 코레일 소식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72 열차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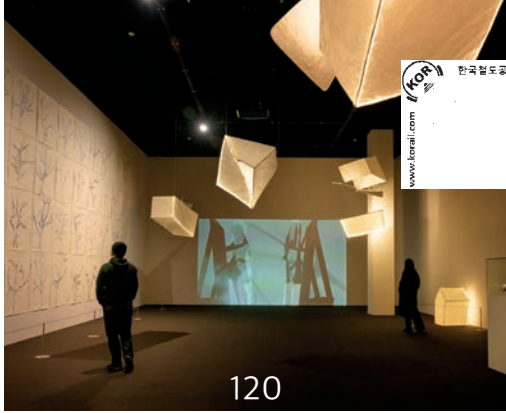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보이스아이바코드



120



128



140



150



도심에서 즐기는 가족 여행, 아스티 호텔 부산

아스티 호텔 부산은 도심 유일의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여러가지 타입의 스위트 객실을 보유한 4성 호텔로,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위트 객실을 제공하고 있다. 한옥의 마루와 침실을 경험할 수 있는 마루스위트, 더블 침대와 이층 침대 객실이 분리되어 있는 고품격 패밀리스위트,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품은 거실을 중심으로 더블룸과 트윈룸으로 구분되어 가족, 친구와 함께 작은 파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그제큐티브 프리미어 스위트, 탁 트인 바다와 부산항대교의 멋진 야경을 품은 아스티 스위트까지 여행 스타일에 맞게 구성된 스위트 객실을 갖추고 있다.



마루스위트



패밀리스위트_병커베드



이그제큐티브 프리미어 스위트



아스티 스위트

2026년 01월호



제23권 제1호 통권 제259호
2026년 1월 1일 발행

발행인 정정래(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홍영선

편집장 최현주 ktxeds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고아라 kar@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오유리 이미선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연대와 상생, 지적 낭만을 좇는 매거진

〈KTX매거진〉1월호를 준비하며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6개를 열어 보았습니다. 무려 1만 명 이상의 독자가 보내신 일종의 〈KTX매거진〉 성적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 ‘한국 철도 131주년 기념 독자 이벤트’의 결과 데이터였습니다. 〈KTX매거진〉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 달라는 요청에 답을 주셨는데, 표지부터 화보, 긴 페이지의 특집 기사부터 1페이지짜리 짧은 기사까지 매거진을 살살이 읽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셨습니다. 컷불이 별개질 정도로 감사한 마음. 기획 의도를 정확히 꿰뚫은 문장과 상냥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고 있으면 얼음물에 세수를 한 듯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무거워지는 책임감. 2026년에는 더 나은 〈KTX매거진〉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감도 커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2025년 상·하반기 편집자문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촘촘히 살폈고, 취재로 만난 각 분야 전문가와 매달 현장에서 부대끼는 스태프들, 그리고 〈KTX매거진〉 제작사인 (주)반디컴 홍영선 대표의 조언도 귀담아들었습니다.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기사들과도 머리를 맞댔고, 숙고 끝에 ‘더욱더 〈KTX매거진〉다워지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국내 최대 부수 매거진, 올해로 창간 22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철도 차내지’라는 위상에 걸맞은 〈KTX매거진〉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연대와 상생, 그리고 지적 낭만을 좇는 매거진이 아닐까. 경청과 배움의 자세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 찾기에 나서는 〈KTX매거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새집을 짓듯 차분히 1월호를 만들었고, 4개의 새로운 칼럼도 선보였습니다. 그중 ‘이 계절엔 여기와’ 에디터의 노트는 보다 상세한 여행 정보에 에디터의 사적 감상을 더한 칼럼으로, 각각 충남 태안과 경기도서관을 다뤘습니다. 현장을 미리 섭렵한 에디터가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 서해의 어느 바닷가로, 초록색 이끼가 자라는 서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한국 탐구 생활’은 한국살이에 익숙한 외국인이 한국의 여행지와 맛집, 문화 예술 공간 등을 찾아가는 칼럼으로, 1월호에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국적의 이방인 네 명이 저마다 사랑하는 서울의 단골집을 소개합니다. ‘책 속의 무대’는 배선에 연극평론가가 화제의 연극을 조곤조곤 해설하는 칼럼으로, 예수정 배우가 출연한 〈태풍〉이 〈KTX매거진〉이라는 무대에 처음 오릅니다.

‘이달의 여행’ ‘여행의 발견’ ‘함께 여행’ 등 기존 칼럼은 더욱 흥미롭고 시의성 있는 소재로 채웠습니다. 고아라 수석 기자는 경남 양산을 찾아 천성산의 타오르는 일출과 천년 고찰 통도사의 장엄한 풍광을 카메라에 담았고, 신송희 기자는 강원도 강릉의 역사와 예술, 미식을 대표하는 공간을 소개했습니다. 김수아 기자는 핸드팬 연주가 하택후와 함께 경북 경주로 달려가 잠들어 있는 악기를 깨워 에너지를 주고받는 치유와 명상의 세계를 만났습니다. 책 속의 책 ‘Made in’ 시리즈는 2026년에도 계속되며,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강원도 태백입니다.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이용하면 열차 운임의 50퍼센트를 할인해 주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6년의 첫 〈KTX매거진〉이 마무리될 즈음,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그는 인간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의 자유를 ‘감당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그 뜨끈한 자유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올해도 독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편집장 최현주

제54회 강진 청자축제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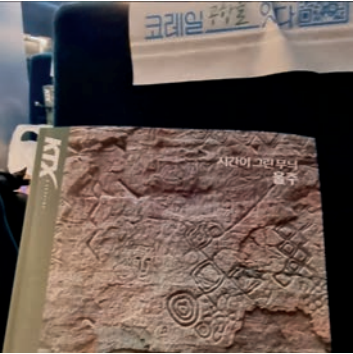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stoptree79



<KTX매거진> 12월호 표지를 보고잡지를 펼쳤다. 울주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반가워 조만간 울주로 여행을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KTX매거진 #출장 #종이책 #기차와독서

@wolhwa_en



KTX에 비치된잡지에서 강릉 안반데기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기차안에서 익숙한 명소를 만나니 더욱 정겨웠다. 눈 내린 안반데기의 모습이 떠올라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겨울 #강릉역 #안반데기 #KTX매거진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세희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마주한 잡지 표지에 추억의 장소가 실렸다.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연수원이 위치한 울주.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체통이 신기하고, 그 시절엔 없던 오션뷰 카페에 둘러 동기들과 수다를 떨고 싶어졌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1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1월 11일까지

박정은 서울시 은평구 진관로
부산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KTX매거진>을 읽었다.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여행지들이 소개됐는데 유독 전주가 끌렸다. 독립 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에 가고, 연꽃피는 계절에는 연화정에서 독서하는 여유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러의 '물레 로고 우드 손거울'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이러 물레 로고를 새겨 감성을 더한 손거울로,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합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6년 신규회원모집

무기명 5,100만원 회원권 선착순 한정 모집!

I. 한정구좌

소노리움은 한정상품으로 소진시 판매가 종료되는 선착순 공유제상품입니다. 회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II. 객실할인 10년

객실 50% 할인을 1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노리움 가입 시 사용 가능하며, 소노리스 회원 대우를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노리스 객실 | 가압혜택 미적용]

III. 평생 회원권

골프, 스키, 워터파크, 직영식음업장 등 200여곳 부대입장을 최대 5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동안 누리는 회원혜택을 경험하십시오.



▲ 쓸비치 남해 2025년 7월 5일 그랜드오픈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쓸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남해 | 소노캄 고양 | 경주 | 거제 | 여수 | 제주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밸 양평 | 천안 | 단양 | 청송 | 변산 | 제주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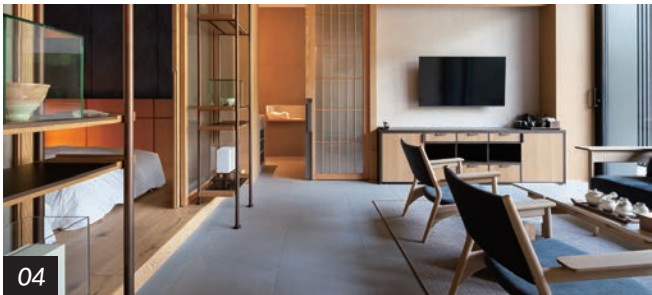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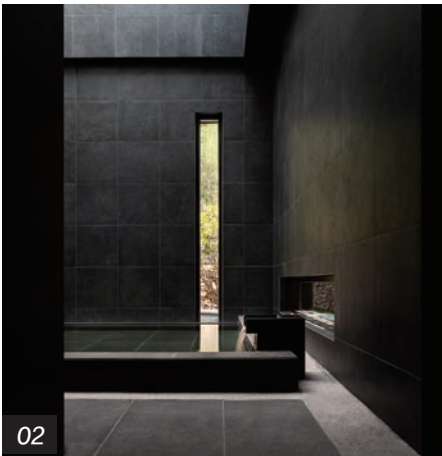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조식: 13점 반상 한상 차림 & 석식: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은,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KTX매거진> 독자 설문조사 이벤트

<KTX매거진>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통해 설문 조사에 참여하시면 20분을 선정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 주신 의견은 <KTX매거진>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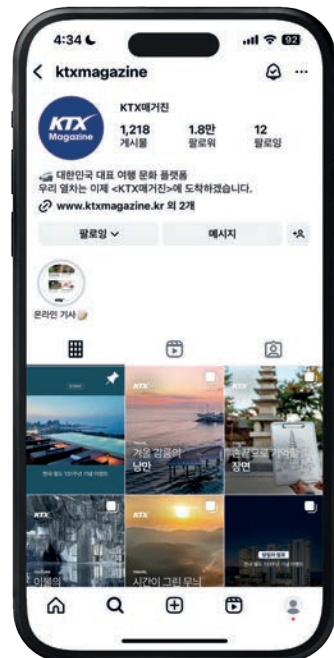
3명
신라스테이 전주
1박 숙박 + 2인 조식



7명
파나소닉
나노 케어 헤어드라이어



10명
파나소닉
초경량 무선 청소기



참여방법

- ① <KTX매거진> 인스타그램(@ktxmagine) 접속
- ② 프로필 링크 중 독자 설문 조사 이벤트 클릭
- ③ 설문 조사 참여하기



지금 바로 행운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선물

- ① 신라스테이 전주 1박 숙박 + 2인 조식 3명
- ② 파나소닉 나노 케어 헤어드라이어 7명
- ③ 파나소닉 초경량 무선 청소기(물걸레키트 불포함) 10명

참여기간

2025년 12월 29일~2026년 1월 23일(26일간)

당첨자 발표

2026년 2월 26일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KTX매거진> 2026년 3월호

아산맑은쌀



대통령 표창
(09)
팔도농협쌀
대표브랜드 우수상(23)



단백질 함량이 낮아 밥맛이 탁월한 특등급 고품질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아산맑은물)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의 주파수

하택후 연주가가 명상에 사용하는 악기를 하나씩 꺼낸다. 핸드팬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소리가 지친 심신을 어루만지고, 오션 드럼을 흔드는 몸짓은 잠시 파도를 몰고 온다.

QR코드를 찍으면 경북 경주의 황성공원에서 펼쳐진
핸드팬 아티스트 하택후의 명상 악기 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붉은 인연

월하노인의 붉은 실, 홍연으로 맺어진 세자 이강과 부보상 박달이는 온갖 고난을 겪은 끝에 사랑에 빠진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함께 낙화놀이를 보러 가기로 약속한다.



MBC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는 영혼이 뒤바뀐 세자와 부보상의 로맨스 판타지 사극이다. 배우 강태오와 김세정이 각각 이강과 박달이 역을 맡아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펼친다.

사랑하는 빈궁 연월을 잃은 세자 이강은 깊은 회한에 잠긴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중전을 시해했다고 누명을 쓴 연월이 결백을 호소하며 차가운 강 속에 뛰어든 것. 권력에 눈이 먼 좌상 김한철이 자신의 딸을 세자빈으로 만들려고 꾸민 일이었다. 내막을 알게 된 이강은 정치에 뜻이 없는 척, 미색을 즐기는 척 연기하며 남몰래 복수의 칼날을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잣거리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월과 똑 닮은 여인을 마주한다. 실낱 같은 희망도 잠시, 구수한 보령 사투리를 구사하는 도망친 노비 신세의 부보상 박달이임을 깨닫고 애써 외면한다. 사실 박달이와 연월은 동일 인물이다. 월하노인이 연월을 살리기 위해 이강과 연결된 붉은 실을 봉인했고, 이로 인해 연월이 기억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한번 맺어진 홍연은 더 강한 인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며 다시, 또다시 서로를 마주하게 한다. 아내를 잃은 세자와 기억을 잃은 부보상, 두 사람은 상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서서히 사랑에 빠져든다. 그렇게 '이강'의 마음에 '달이'가 흐르기 시작한다. 다시 보령으로 돌아가야 하는 박달이와 마지막 식사를 하던 이강은 아쉬운 마음에 함께 낙화놀이를 보러 가자고 제안한다. 서로의 감정이 극에 달한 순간, 두 사람이 올라선 다리 뒤로 낙화놀이의 불꽃이 터지며 밤하늘을 수놓는다. 이 장면은 실제 경남 함안 괴항마을에 전승되어오는 함안 낙화놀이의 모습이다. 숯가루가 불을 머금고 타면서 바람에 흩날리는 장면이 극적인 효과를 더한다. 매년 석가탄신일을 기해 함안 낙화놀이 축제가 열려 무진정 일원이 붉게 물든다.



© MBC

그날의 용기와 희생, 오늘의 빛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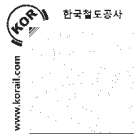
남도의병역사박물관

2026년 2월 개관

“남도에서 피어난 의병의 혼
이제 우리 모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전남 나주시 공산면 의병박물관길 1
☎ 061)286-7081~4, 7091~3





전주 여행의 시작점 신라스테이 전주

아늑하고 쾌적한 객실과 전주의 미각을 살린 음식,
주요 관광지를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입지까지.
이제부터 전북 전주 여행의 시작점은 신라스테이 전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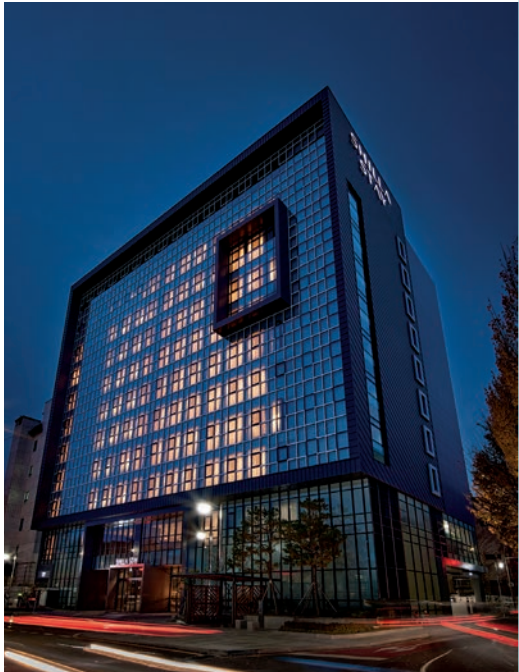


고즈넉한 한옥 마을과 맛깔난 남도 음식, MZ세대 감성을 사로잡은 카페와 숭까지, 전북 전주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귀한 여행지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넘쳐나는 만큼 최소 하루는 머물러야 하는데, 신라스테이 전주가 여행의 만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숙소로 첫손에 꼽힌다. 먼저 시설과 서비스, 고객 호응도에서 이미 검증받은 '신라스테이'라는 브랜드부터 믿음이 간다. 전주 관광의 중심지인 풍남동에 위치한 것도 큰 장점. 동문예술거리와 경기전, 전주한옥마을을 걸어서 오갈 수 있어 이곳을 거점삼아편하게 여행하기 좋다.

신라스테이 전주는 신라스테이의 16번째 호텔. 2024년 12월에 문을 열어 한 달 전 첫돌을 맞았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1층까지 총 14층에 210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자기 좋은 패밀리룸, 커플 고객을 위한 시네마룸,뜨끈한방바닥에서 뒹굴기 좋은 온돌룸, 2층 침대가 있는 벙커룸 등 취향과 목적에 따른 다양한 타입의 객실로 구성됐다.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é)', 루프탑 라운지, 피트니스 센터, 세탁실 등의 부대시설도 갖췄다.

이중 꼭 가 봐야 할 곳은 11층의 루프탑 라운지. 전주라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모던 한식 바(bar)로, 문살과 마루, 디딤돌에 간접조명이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한국적인 멋과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창가에는 킷마루를 모티브로 한 좌식 공간을 마련해 전통 한옥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루프탑 라운지의 시그너처 메뉴는 '주안상'. 떡대, 누룽지 강정 등 한입거리 주전부와 한우 감태 육회, 문어 달구지 튀김, 등갈비떡볶이 등의 안주를 한상 차림으로 제공한다.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꽤 많아 성인 남자 둘이 먹기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다. 여기에 배막사 막걸리 칵테일이나 분홍 노을 막걸리 등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칵테일을 곁들이면 금상첨화. 색 조화와 플레이팅 등 보임새에도 심혈을 기울여 먹는 내내 귀하게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 라운지 야외 공간에는 전주 야경이 바라다보이는 테라스도 있어 주홍빛으로 물든 전주한옥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주소전북전주시완산구현무길10



제작 지원 청담셀의원



대표원장 조찬호

명예원장 이시형

“젊음은 세포에서, 행복은 뇌에서 온다” 줄기세포와 세로토닌으로 풀어낸 몸과 마음의 회복학

청담셀의원 조찬호 원장, 이시형 박사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무엇일까. 청담셀의원의 조찬호 원장과 이시형 박사를 만나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물었다.

몸이 젊고 건강하려면 신체적 요소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관리해야 한다. 마음이 편안해야 얼굴에 생기가 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이유다. 이를 실현하는 곳이 바로 청담셀의원이다.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항노화 치료에 집중하는 조찬호 원장과 '국민 건강 주치의' 이시형 박사가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찾아 준다. 조 원장은 특히 '헬스케어 디자인'을 표방하며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맞춤 처방으로 젊음을 관리해 주는 스페셜리스트로 꼽힌다. 이시형 박사는 현재 청담셀의원 명예원장을 맡고 있다.

두 분이 함께 '헬스케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조찬호 원장 저는 줄기세포를 통해 세포 본연의 회복력을 끌어내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로 젊음을 회복한 뒤 이를 잘 유지하려면 마음 관리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재생 속도를 결정짓는 의외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인데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세포도 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항노화 치료는 정신의학, 뇌과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시형 박사** 조 원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평생 뇌 속의 세로토닌을 연구했습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해야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이 유지됩니다. 흥미로운 건, 세로토닌이 안정된 사람은 면역력과 회복력이 함께 높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뇌 건강이 세포 건강과 연결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포 재생과 마음의 평온은 그 뿌리가 같다는 말씀이군요. 이시형 박사 맞습니다. 세로토닌은 일종의 '젊음의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세로토닌이 고갈되고, 이는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결국 노화는 뇌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요. **조찬호 원장**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개념이 '프리juvenation(prejuvenation)'입니다. 이미 노화된 세

포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노화 징후를 늦추는 게 더 효율적이지요. 세로토닌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세포 재생력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젊음을 설계하는 길입니다.

청담셀의원이 지향하는 '헬스케어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조찬호 원장 건강검진 결과와 기능 의학 검진, 유전자 검사까지 종합해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의 건강 패턴'을 디자인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전신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피부 개선 '미셀(美Cell)', 탈모 치료 '모셀(毛Cell)', 성기능 개선 '성셀(性Cell)', 통증을 관리하는 '활셀(活Cell)'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시형 박사 요즘은 외적인 젊음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피부가 팽팽하고 체력이 좋아도 마음이 병들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신체 회복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서로의 거울이에요. 줄기세포가 몸을 되살리고, 세로토닌이 마음을 되살리는 거죠.

두 분이 함께 그리는 '젊음의 철학'이 있다면요? 조찬호 원장 젊음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포의 회복력과 마음의 평온함이 동시에 유지될 때 진정한 프리juvenation이 완성됩니다. **이시형 박사** 결국 건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 몸을 돌보는 일, 내 마음을 살피는 일, 둘 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죠. 저는 이제 의학이 기술을 넘어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웰에이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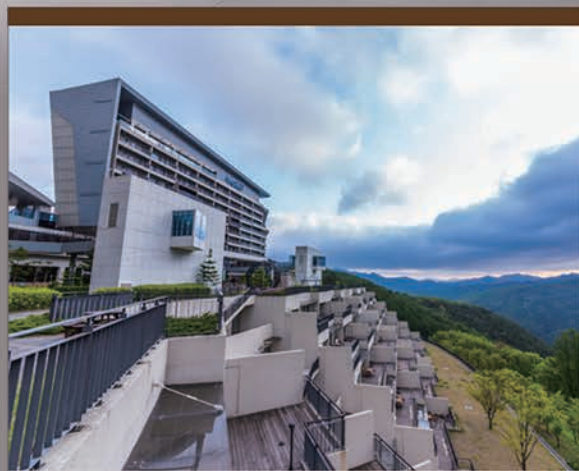
Panasonic

공간의 품격을 완성하는 안마의자

REAL PRO MAL1



MAL1 구매 고객 특별 혜택



하이원 1박 숙박권 증정 (조식 2인 포함)

- 객실타입 : 마운틴콘도 / 힐콘도 30, 35평형
 - 조식 이용권 : 2매
 - 유효기간 : ~ 2026년 2월 28일까지(토)
- 체크인 시 이용권을 프론트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 소진 시 종료

Panasonic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절찬 판매중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panasonic.co.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 본점 (02)542-8452 | 파나소닉 HM프라자 (02)755-8452 | 파나소닉 경안프라자 (051)755-8452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 파나소닉 대전프라자 (042)223-8452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21-8452 | 파나소닉 중원프라자 (051)255-0222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051)633-8452 | 파나소닉 HD프라자 (062)522-2000 | 금호월드 (062)350-8397 | 롯데 백화점 본점 | 롯데 백화점 잠실 | 롯데 백화점 강남 | 롯데 백화점 입산 | 롯데 백화점 센텀 | 롯데 백화점 대전 | 롯데 백화점 광주 | 롯데 백화점 인천 | 현대 백화점 무역센터 | 현대 백화점 목동 | 현대 백화점 판교 | 현대 백화점 여의도 | 현대 백화점 대구 | 현대 백화점 중동 |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 신세계 백화점 본점 | 신세계 백화점 강남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 신세계 백화점 대구 | 신세계 백화점 센텀 | 신세계 백화점 대전



모던한 디자인과 초정밀 마사지 구현 파나소닉 안마의자로 공간의 품격을 높이다 REAL PRO MAL1



1. 부드럽고 모던한 큐브 스타일

부드러운 색감과 고급스러운 가죽 질감의 소재, 큐브 스타일의 모던한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인테리어 완성

2. REAL PRO AI

AI로 어깨 위치를 정밀하게 감지하고 6136개의 포인트에서 마사지 부위를 선택, 전문 마사지사 손길과 같은 경험 제공

3. REAL PRO 3D 독립 메커니즘

확장된 SJ 프레임과 약 22퍼센트 향상된 마사지 볼 이동 거리로 온몸의 곡선을 따라 세심한 마사지 구현

4. 직관적이고 안전한 작동

간편한 터치스크린과 오작동 방지 프로그램, 자동 코스 설정, 마사지 위치 센서 조정 등으로 편리함 제공

5. 편안한 휴식과 편리한 기능

160도 전동 리클라이닝과 다리 받침대, 블루투스 스피커, USB 충전 포트, 캐스퍼 장착으로 최상의 편안함 제공

문의 1588-8452, www.panasonic.co.kr



색동옷 입은 북어

예부터 북어를 명주실에 걸어 두면 잡귀와 액운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또 북어의 벌어진 입이 복을 불러들이고, 명주실은 자자손손 부와 명성을 이어 준다고 했다. 김생아민화 작가는 나무에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입혀 현대적인 액막이 북어 '복북어'를 만들었다. 색동 북어는 긍정의 에너지와 풍요로운 기운을, 부영이 북어는 재물을 불러온다.



돌에 피는 꽃

아연과 칼슘, 비타민이 많아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굴은 오랫동안 자양강장 음식으로 사랑받아 왔다. 겨울철 굴을 캐고 나면 거무스름한 바위에 뽀얀 속 내를 드러낸 굴 껍데기가 남는데 그 모양이 꼭 하얀 꽃이 핀 것 같아 석화(石花)라고도 부른다. 지리적 표시 수산물 제12호에 등록된 전남 여수의 굴은 다도해 청정 해역에서 풍부한 햇볕을 받고 자라 씨알이 굵고 맛이 달다.



어떤 존재는 색이 모두 사라진 후에 비로소 제 빛깔을 드러낸다.

2025년 1월 전북 익산

은빛 환대

온 세상이 눈 속에 잠긴 그 겨울의 환대.

겨울나무에 산호가 피었다. 숲이 바다가 되는 순간.

2024년 1월 경남 양산

끝내 있을 지킨 참나무가 산길을 밝힌다. 모진 계절의 붉은 훈장들.

2024년 1월 전북 고창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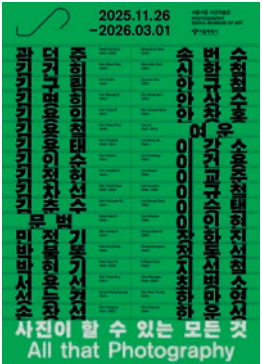
© 정영호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서울 2025.11.26~2026.03.01

한국 현대미술 거장 36명의 사진과 사진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 등 300여 점의 자료를 전시한다. 앵포르멜의 열기가 가라앉고 새로운 조형 언어를 모색하던 1960년대 초에 선보인 작가의 실험적 시도를 조명하거나 1980년대 사진 이미지의 인용과 재배열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한 작업물을 소개하는 등 한국 현대미술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다. 김명희가 신체를 감각지에 접촉해 햇빛으로 노출한 포토그램을 재촬영해 구성한 신작 'Liminal 1, 3', 이강소의 이중 포토세리그래피 '무제' 등을 최초로 공개한다.

장소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문의 02-2124-7600



선우용, 'Waveform Color 2', 2024, 86×19×27cm, 유리, 스테인리스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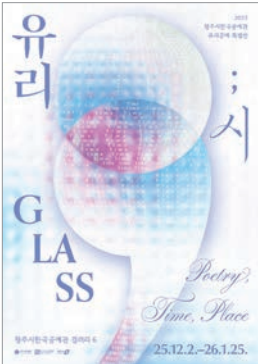
Dito 140, '모시플레이트'

〈유리;시 Glass: Poetry, Time, Place〉

청주 2025.12.02~2026.01.25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정회원 도시로 선정된 청주는 그동안 뛰어난 유리공예가를 다수 배출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공예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유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주목한다. 한국 유리공예의 기틀을 세운 김기라 작가부터 청주공예비엔날레에 참여했던 해외 작가들까지 총 28팀의 작업물이 한자리에 모인다. 컵, 접시, 화병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유리 제품을 넘어 조형미가 담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바라볼 기회다.

장소 충북 청주 한국공예관
문의 043-219-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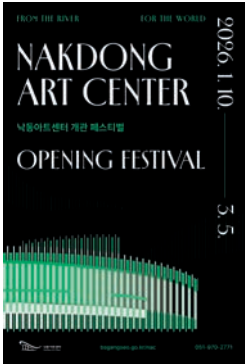


〈낙동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부산 2026.01.10~03.05

서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낙동아트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연다. 개관을 기념해 교향곡, 오페라, 발레,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0개로 총 27회 공연한다. 지역 작곡가가 낙동강의 역사와 생명을 주제로 만든 창작 교향곡 '낙동강 팡파레'로 축제의 포문을 열고 이어서 말러 교향곡 8번 <천인 교향곡>을 연주한다. 또 어린이를 위한 마술 공연 <매직 프레젠틸>, 자체 제작 오페라 <아이다>가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3월에는 쾰른(WDR) 방송 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킹스 싱어즈가 내한해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장소 부산 낙동아트센터
문의 051-970-2771



© 에반스

〈라이프 오브 파이〉

서울 2025.12.02~2026.03.02

안 마텔의 소설 <파이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라이브 온 스테이지. 태평양 한가운데 구명보트에 남겨진 소년 파이와 뱀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의 227일간의 여정을 그린다. 2021년 웨스트엔드에서 초연 후 작품성을 인정받아 전 세계 관객과 만났는데, 다른 언어로 공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8년 만에 복귀하는 박정민,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스> <하데스타운> 등에서 섬세한 연기를 펼친 박강현이 파이 역을 맡는다. 동물 캐릭터의 호흡과 눈빛 등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퍼펫티어도 관람 포인트다.

장소 서울 GS아트센터
문의 1577-3363



FESTIVAL



2025 함평 겨울빛축제

함평 2025.11.28~2026.01.11

형형색색의 빛이 함평엑스포공원 일대를 환히 밝힌다. '함평의 밤, 빛의 향연'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회전목마, 천사 등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해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중앙광장에서는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 전시를 열어 예술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 이글루 쉼터는 겨울밤의 정취를 품은 휴식 장소로 인기가 높다. DJ와 함께하는 불명 감성 토크, 소망 카드 달기 등 추억을 쌓는 체험 프로그램도 흥미를 끈다. 축제 기간 동안 함평엑스포공원 전시관과 체험 시설을 오후 9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장소 전남 함평엑스포공원
문의 061-320-2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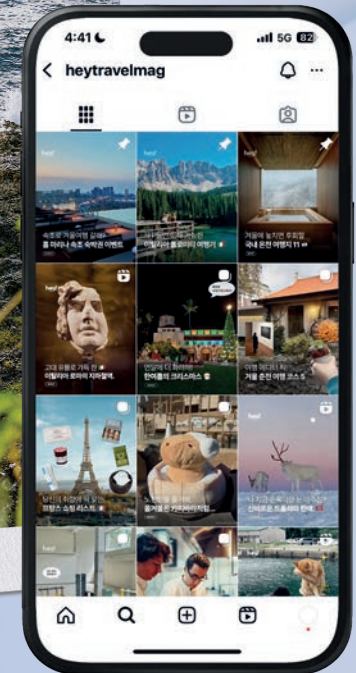


제2회 영월 겨울 쥐불놀이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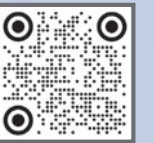
영월 2025.12.01~2026.02.28

쥐불놀이는 논두렁을 태워 해충을 없애고 풍년을 기원하던 한국의 민속놀이이다. 영월군 농촌관광협의회와 동강리버버강협동조합이 사라져 가는 전통을 잇기 위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쥐불놀이 축제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강통 속 불씨를 돌리고, 모닥불 주변에서 고구마나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낭만적인 밤을 보낸다. 올해는 단순 야간 행사에서 끝나지 않고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예밀와인 힐링센터에서의 족욕 체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릉 탐방 등을 연계한 1박 2일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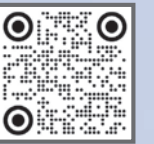
장소 강원도 영월 동강리버버강캠프
문의 033-372-4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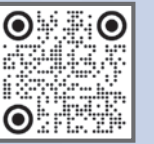
여행 전문가와
로컬이
큐레이션한
여행 &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heytravelmag
INSTAGRAM



hey! there
Newsletter



heytravel.kr
WEBSITE

최신 여행 트렌드를 담아낼 새로운 미디어 <hey! TRAVEL>

Inspiration is Everywhere

느린 여행자의 안식처 양산

영남알프스의 수려한 풍광과 아득한 세월을 간직한
통도사를 걸으며 마음의 평온을 얻고,
이 땅에 기대어 일상을 꾸려가는 원도심 사람들과 온기를 나눴다.
경남 양산의 겨울 풍경이 한없이 따스하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물금역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

제작 지원 양산시청

마음의 고요를 쫓아

천성산의타오르는 일출을 감상하고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양산의 정적인 아름다움을 마주한다.

경남 양산은 부산과 김해, 밀양, 울산과 맞닿은 지리적 요충지로 영남알프스에 속하는 영축산과 천성산, 대운산, 오봉산 등 해발 500미터가 넘는 웅장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도심 한가운데에는 온화한 물결의 낙동강이 가로질러 흐른다. 덕분에 양산은 예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꼽혔다. 물금읍 원도심에는 아담한 동네 책방과 빈티지한 가죽 공방, 낙동강 풍경을 품은 카페가 모여 있고, 맞은편 신도시에는 고층 건물과 화려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상가가 즐비하며, 숲과 들판이 어우러진 원동면에선 미나리와 딸기가 쭈쭈자란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의외의 매력이 발견되는 곳. 부산 옆 작은 도시로만 여겼던 양산의 재발견이다.

마음을어루만지는 천성산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신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자취를 감춘 새벽, 천성산 일출을 보기 위해 지극한 어둠을 헤쳐 원효암에 닿았다. 해발 922미터의 천성산은 울산 울주 간절곶과 함께 내륙에서 가장 먼



1

1 통도사 대웅전
뒤편에 자리한
금강계단. 부처의
진신사리가 봉안돼
있다. 2 천성산
정상에는 원효봉
표지석과 평화의 탑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저 동해의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해돋이 명소다. 해마다 1월 1일이면 전국의 해맞이꾼들이 칼바람을 뚫고 모여든다. 원효암에서 천성산 정상인 원효봉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긴 코스는 아니지만 깊은 산에 내려앉은 어둠은 한 줌의 빛도, 온기도 허락하지 않기에 단단히 채비해야 한다. 야간 산행을 나서기 전 장갑과 목도리, 귀마개를 챙겼다. 다행히 등산로는 완만한 편. 랜턴 불빛이 간신히 어둠을 걷어 낸 자리를 따라 차근차근 걸음을 내딛는다. 막막한 시야로 엄습하는 두려움도 잠시, 하늘에 흩뿌려진 선명한 별빛과 포근한 흙내음, 밀도 높은 고요함이 의외의 평온함을 전한다. 20분쯤 오르자 숲을 벗어나며 일순간 시야가 탁 트인다. 영남알프스의 하이라이트인 역새 평원이 시작된 것이다. 잘 닦인 등산로가 드넓은 역새밭을 가로질러 정상까지 쭉 이어진다. 지난가을 풍성한 은빛 머릿결을 흘날리며 장관을 이루던 역새는 메마른 몸으로 매서운 계절을 견디면서도 잔잔한 손짓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역새의 환대를 받으며 정상으로 오르는 길,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니 하루를 시작한 이들의 불빛이 하나둘씩 도시를 밝힌다. 데칼코마니처럼 하늘과

땅에 찬란한 별 무리가 펼쳐진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자 '천성산(원효봉)'이라 새겨진 거대한 바위가 모습을 드러낸다. 천성산 정상에 도착했다는 뜻이다. 영남알프스에는 천성산을 비롯해 군지산, 봉화산, 정족산, 백운산, 망월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다. 천성산은 그중에서도 해발고도가 가장 높아 유독 풍광이 빼어나다. 정상에서 서 발아래로 굽어치는 산세와 산허리를 감싼 구름을 보고 있노라니 마치 웅장한 파도가 덮쳐 오는 듯하다. 낮을 놓고 바라보는 사이 서서히 어둠이 개는가 싶더니 곧이어 지평선 너머로 손톱 같은 해의 머리가 빼꼼 솟아오른다. 그 순간 세상은 단숨에 얼굴을 바꾼다. 검푸르던 하늘이 온통 붉은빛으로 일렁이고, 얼음에 갇혀 있던 흙과 풀잎이 촉촉해지면서 향긋한 냄새를 뿜어낸다. 귀가 아릴 만큼 차가웠던 공기도 한결 누그러진다. 어느덧 온전히 원형을 드러낸 태양이 아늑한 품을 열어 보인다. 추위와 어둠을 견디느라 고생했다며 토닥이듯이.

천성산은 일출 감상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오를 만하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만산홍엽을 이루고, 여름에는 폭포가 시원하게 쏟아지며, 가을에는



2



1 아침 햇살이 들자
'반야옹선도'가 자세히
들어다보인다.
2 통도사 근처에
자리한 고택 차실,
몽유재의 고풍스러운
외관. 3 몽유재에서는
계절과 날씨, 상황에
따라 차와 다과를 맞춰
내준다.



은빛으로 일렁이는 역새 군락이 펼쳐져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관광 명소다. 천성산은 해골 물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신라 승려 원효대사와도 인연이 깊다. 천성산의 본래 이름은 원적산. 원효대사가 상봉에서 1000명의 승려에게 〈화엄경〉을 강론해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었는데, 이후 '1000명의 승려가 모두 성인이 됐다'는 뜻의 천성산으로 불렸다.

천년의숨결이 깃든 통도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인 대웅전을 포함해 수많은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 1400년 동안 법당이 한 번도 꺼지지 않은 곳,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한 불보 종찰. 통도사가 지닌 목직환 의미를 가슴에 품은 채 하북면으로 향했다. 영축산 자락에 위치한 통도사는 경남 합천의 해인사, 전남 순천의 송광사와 함께 한국의 삼보사찰로 불린다. 삼보사찰이란 말 그대로 세 가지 보물을 품은 사찰을 이른다. 부처를 가리키는 '불(佛)', 부처의 가르침인 '법(法)',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를 뜻하는 '승(僧)'이

바로 그것. 이러한 이유로 삼보사찰은 한국 불교의 정체성과 뿌리를 상징한다. 그중 통도사는 부처의 몸인 '불'에 해당한다. 선덕여왕 15년(646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할 당시 부처의 사리와 가사를 봉안한 것. 경내가 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금강계단에 석가모니의 사리가 모셔져 있다.

동이 틀 무렵, 얇은 개천을 건너 통도사 입구에 닿자 근엄한 자태의 천왕문이 모습을 드러낸다. 1337년 취암대사가 초창한 국가유산 보물이다. 천왕문을 통과 하면 한눈에도 유구한 세월이 느껴지는 건물들과 삼층석탑이 차례로 등장한다. 아침 햇빛이 스며든 외벽에는 극락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중생들의 모습을 그린 '반야옹선도'를 비롯해 빛바랜 그림들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펼쳐 낸다. 통도사 가장 안쪽에는 고즈넉한 목조 불전인 대웅전이 자리하는데 여느 사찰과 달리 불상이 없다. 건물 뒤편에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전 옆 삼성각의 계단을 오르면 금강계단이 모습을 드러낸다. 진신사리를 봉안한 종 모양 석조물을 중심으로 정사각형 구조의 단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다. 승려가 되기 위한 수계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로 신성한 분위기가 감돈다. 사찰을 나와 암자로 향하던 중 특별한 풍경이 시선을 끌었다. 넓찍한 마당 가득 장독대가 빼곡하게 늘어선 서운암이다. 성파스님이 20년 이상 도자를 구우며 만든 〈팔만대장경〉 도자 경관과 삼천불을 보관한 법당이다. 이곳에선 사라져 가는 한국 전통의 천연 염색 기법을 재현·계승하고 있으며, 생약재를 첨가한 전통 약 된장을 개발해 양산 특산품으로 만들었다. 통도사 근처에는 자연과 예술, 사람을 이어 주는 복합 문화 공간, 스페이스 나무가 자리한다. 안으로 들어서

면 아트막한 언덕 위로 야외 전시장이 펼쳐지고 너른 정원과 모던한 갤러리, 아늑한 찻집 등이 어우러져 있다.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 갤러리 앞 고택 차실, 몽유재에서 잠시 쉬어 가기로 한다. 몽유재가 자리한 고택은 경남 합천 출신인 남명 조식의 정신을 가르치던 서당 진의재와 안동 고택 세 채를 연결해 지었다. 오래된 목조 건물 특유의 향이 밴 다실에 앉아 몽유재의 시그니처 차를 주문했다. 꿀꺽질을 말린 진피와 생강, 영지버섯, 구기자, 쑥 등 건강한 재료를 블렌딩해 고소한 맛과 향이 나는 차가 몸을 따뜻하게 데워 준다. 맛만 좋은 게 아니다.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

에 도움을 주며 카페인을 함유하지 않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다기는 양산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차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디자인의 찻잔을 제공한다. 다과 역시 차와의 조화를 고려해 곁들여 낸다. 어떤 차를 주문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몽유재 오늘의 차’를 추천한다. 계절과 날씨, 상황에 따라 차와 다과를 맞춰 내준다.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숲에서

양산에는 천성산과 함께 꼭 한번 올라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다. 영남알프스 산군에 속하는 대운산이다. 울산 울주와 경남 양산에 걸쳐 있으며 낙동정맥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울산 12경 중 하나인 내원암계곡으로 유명하고, 원효대사의 마지막 수도지로도 알려져 있다. 2021년 7월,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은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 한국 최초의 공립 양방 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관, 숲에서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마디로 ‘숲속 치유 센터’다. 대운산자연휴양림 인근에 1만 5000제곱미터 규모로 자리

하며 힐링동, 숲치유길, 치유동으로 이뤄져 있다. 힐링동은 대운산 숲에 둘러싸인 숙소이고, 숲치유길은 자연 속에서 명상과 체조, 산책을 체험할 수 있는 숲이며, 치유동은 요가, 운동, 마사지, 테라피, 웰빙 식사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당일형과 1박 2일 또는 2박 3일 숙박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테마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 짜여진 프로그램 외에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힐링 시간도 주어진다. 대운산의 청정 자연 속에서 치유 요가와 해먹 명상, 맨발 걷기 등을 체험하다 보면 일상의 걱정과 고민이 눈 녹듯 사라진다. 소리의 파장이 몸을 이완하는 싱잉볼 사운드 테라피도 놓치지 말 것. 숲을 향해 큰 창이나 있는 심신치유실에 앉아 눈을 감고 싱잉볼의 오묘한 울림에 귀 기울이면 잡념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평온해진다. 자유 힐링 시간에는 다양한 테라피 체험도 할 수 있는데, 그중 건식 수압 마사지 기기를 활용해 피로를 풀어주는 아쿠아 테라피는 다른 곳에서 접하기 힘들어 더욱 인기가 많다.



1 숲에서의 싱잉볼 사운드 테라피. 큰 창으로 대운산의 속살이 들여다보이는 심신치유실에서 진행한다. 2 대운산 품에 안긴 숲에서.

In Pursuit of Quiet

Cheonseongsan Mountain, rising 922 meters above sea level, is one of the earliest places in the inland region to greet the sunrise over the East Sea, along with Ulsan’s Ganjeolgot Cape. Each year on January 1, sunrise chasers from across the country gather here, braving the sharp winter winds to release their hopes for the year ahead. A well-maintained trail cuts through a vast field of silver grass and leads straight to the summit. Standing at the top, looking down at the undulating ridgelines and the clouds wrapped around the mountainsides, one feels as if an immense wave is sweeping in.

Tongdosa Temple,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s revered as one of Korea’s Three Jewel Temples alongside Haeinsa in Hapcheon and Songgwangsa in Suncheon. When the monk Jajang founded the temple in the fifteenth year of Queen Seondeok’s reign (646), he enshrined the Buddha’s relics and robe here. Climbing the steps beside the Daeungjeon Hall toward Samseonggak reveals a full view of Tongdosa’s treasured Geumgang ordination platform. At its center stands a bell-shaped stone reliquary that holds the true relics of the Buddha, surrounded by a series of precise, square terraces. Near the temple is Mongyuje, a traditional tea room tucked inside a historic house. When unsure what to order, the “Tea of the Day” is a good choice. The host selects tea and seasonal sweets that suit the weather, time, and mood of the day.

In July 2021, a special retreat opened in the beautiful natural landscape of Daeunsan Mountain. Supaeseo, Korea’s first public East–West anti-aging and healing center, offers programs that help shake loose the worries of everyday life. Healing yoga, hammock meditation, and barefoot forest walking draw visitors into the serenity of the mountain. Singing bowl sound therapy, which gently relaxes the body through resonant vibrations, is another experience not to be missed.

Address Habuk-myeon, Yangsan-si, Gyeongsangnam-do (Cheonseongsan Mountain); 108, Tongdosa-ro, Habuk-myeon, Yangsan-si, Gyeongsangnam-do (Tongdosa Temple); 248, Tapgol-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Supaeseo)



도시의 리듬에 맞춰

원동 설향딸기를 직접 수확해 보고
원도심의 카페와 숲을 누비다가
해가 지면 황산공원의 불빛정원을 거닌다.
양산의 숨은 매력을 오감으로 즐겼다.

새빨간 열매의 유혹, 딸기당

1월의 양산은 어딜 가나 딸기 향이 물씬하다.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시장 구경을 하다가, 또 등산로 입구를 건다가도 탐스럽게 익은 딸기를 만난다. 대부분 양산 특산품인 원동 딸기다. 양산 원동면에는 낙동강을 따라 딸기 농장 여러 곳이 늘어서 있다. 강변에 위치해 배수가 잘되고 땅이 비옥한 데다 기후가 온화해 딸기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덕분에 원동 딸기는 유독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또 양산 지역의 청정 농산물 생산 정책에 따라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

원동 딸기를 직접 수확하고 맛보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원동면 화제리의 딸기당으로 달려갔다. 딸기당은 국산 품종인 설향을 재배하는 농장. 딸기를 겨울 과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설향 덕분이다. 설향(雪香)은 '눈 속의 향기'란 뜻으로, 봄에 수확했던 딸기를 품종 개량으로 한겨울부터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딸기에 치명적인 흰가루병에 강해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며 일반 딸기보다 과실이 크고





1 딸기 농장 딸기당의
설향이 탐스럽게
익었다. 2 국수와
김밥, 계절전 등 물금
가창길의 정겨운 메뉴.
3 패슬로우의 인기
메뉴인 레몬 소르베와
하우스 와인, 크림
핫초코, 라테, 뱅쇼
소르베, 피낭시에.
4 패슬로우 2층엔
가족 공예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공방이 자리한다.



당도가 높다. 과즙도 풍부해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새콤달콤한 맛과 향이 퍼진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달콤한 딸기 향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널찍한 공간에 딸기 화단이 줄 맞춰 있어서 있고 곳곳에 빨강게 익은 설향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보기만 해도 절로 침이 고인다. 원동면 화제리의 딸기 농장들은 직접 딸기를 수확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딸기당은 무제한 시식이 가능해 특히 인기가 많다. 하우스 한 동당 15명으로 입장을 제한해 여유롭게 수확과 시식을 즐길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양 볼 가득 딸기를 먹으며 맛있다고 외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열심히 딸기를 재배한 보람을 느끼죠.” 진영근 딸기당 대표가 그 순간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 얼굴에 미소를 띤다. 진 대표는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젊은 농부. 10년째 딸기 농사를 짓던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며 노하우를 쌓고 홀로 서기 위해 농장을 시작했다. 새내기 농부엔 힘든 순간도 많았다. 껍질이 없는 딸기는 병에 취약해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때가 많았고,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딸기를 그냥 버려야 할 때도 있었다. “딸기 수확 체험을 통해 원동 딸기가 얼마나 맛있

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농장을 운영하는 목표이자 원동력입니다.” 진 대표가 건넨 딸기를 한 입 베어 무니 과연 ‘원동 딸기’다. 과육의 밀도가 높고 단단하달까, 묵직한 식감부터 남다르다. 달콤새콤함이 적절히 어우러진 맛의 조화도 일품이다.

다정한 원도심의 초대, 물금 서리단길

양산 여행은 의외의 순간들로 가득하다. 고즈넉한 산길을 걷다 고층 빌딩이 병풍처럼 둘러싼 신도시를 마주하고, 고요한 사찰을 지나면 드넓은 딸기밭이 펼쳐진다. 물금역을 처음 마주했을 때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역 앞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도시인 동부마을과 원도심인 서부마을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서부마을은 한때 물금을 행정복지센터와 물금역, 물금시장이 들어선 상업 중심지였으나 신도시 조성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점차 쇠락했다. 낡은 주택과 텅 빈 상가가 많아 행하던 이곳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독립 서점과 가족 공방, 카페, 이탈리언 식당 등 감각적인 공간이 하나둘 들어서면서부터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다방이나 상회 간판과 허름한 주택을





개조한 상점은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MZ세대의 흥미를 끌었고, 중장년층에겐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서부마을은 '서리단길'이라는 새 이름도 얻었다. 물금역에서 서리단길로 들어서는 입구에 옛 물금역을 닮은 식당 하나가 눈길을 끈다. 이정표처럼 생긴 '물금 기차길'이라는 간판에는 왼쪽 화살표에 '국수', 오른쪽 화살표에 '김밥'이 적혀 있다. 간판 그대로 국수와 김밥을 주메뉴로 하며 떡국, 궁국수 등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 요리를 낸다. 특별한 것 없지만 그래서 더 정겹다. 눈에 띄는 메뉴는 계절전. 제철 채소를 이용한 전인데, 겨울에는 늪은 호박과 부추를 넣는다. 특이한 점은 부침가루 없이 제철 채소만으로 전을 부

친다는 것. 바삭하진 않지만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먹고 난 후 속이 편하다. 빨간 지붕과 나무 창문, 손 글씨 간판, 노란 우편함까지 마치 동화에 나올 법한 외관이 사랑스러운 기빙트리. 서리단길의 유일한 서점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방은영 대표가 선별한 다양한 장르의 도서와 아기자기한 소품이 빼곡하고, 안쪽에는 커피 한잔과 함께 조용히 독서하기 좋은 테이블이 있다. 판매하는 새 책과 손때 묻은 헌책을 같이 진열했는데, 새 책은 구매 후, 헌책은 음료를 주문하면 시간 제한 없이 머물며 읽을 수 있다. 바에서 보관해 둔 위스키를 찾아 마시듯 동네 주민들은 수시로 서점에 들러 자신이 보던 책을

1기빙트리에는 현대소설부터 인문학, 환경 관련 에세이까지 다양한 책이 구비돼 있다. 2기빙트리의 숨겨진 별채 공간. 이곳에선 한 달에 한번 환경 독서 모임이 열린다.



이어 읽기도 한다. 건물 뒤편의 별채는 비밀스러운 독서 공간으로 꾸몄다. 쿠션 위에 엮드려 책을 읽을 수 있는 방과 일광욕을 즐기기 좋은 테라스, 커다란 테이블에 둘러앉아 독서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각기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드로잉이나 가드닝, 바느질 등의 원데이 클래스는 물론, 한 달에 한 번 환경 독서 모임도 열린다. 기빙트리 방 대표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친 후 인생 2막을 위해 서점을 차렸다. "카페 이용 시간이 무제한인 데다 구매하지 않아도 책을 읽을 수 있으니 수익이 많지 않아요. 환경 독서 모임이나 원데이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워낙 책과 환경에 관심이 많아 하루하루 재밌게 꾸려 가고 있어요." 서점에선 환경을 다루는 매거진을

무료 배포하고, 공정 무역 제품이나 친환경 상품을 위탁 판매하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도 이어 가며 서리단길을 넘어 양산 지역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대표의 취향이 오롯한 아지트가 어느새 지역의 환경 생태 거점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서리단길의 상점과 식당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는 늦은 밤, 홀로 아늑한 불빛을 밝히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곳이 있다.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가족 공방 겸 카페 & 바, 패슬로우다. 유럽의 오래된 바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외관에서부터 주인의 남다른 감각이 엿보인다. 서울에서 가족 다루는 법을 배운 방 대표는 고향인 양산에 내려와 가족 공방을 열었다. 처음엔 공방만 예약제로 운영하다가 가족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은 카페, 2층은 공방으로 꾸렸다. 고풍스러운 나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카페는 가족 소파와 원목 가구, 빈티지한 카펫으로 꾸며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다. 여기에 가족 가방과 가족 지갑, 가족 제킷 등을 인테리어 소품처럼 배치해 패슬로우만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덕분에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가족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음료와 디저트 또한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올 만큼 훌륭하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라테부터 달콤한 크림 핫초코, 상큼한 레몬 소르베 등 각기 다른 매력의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최근에는 겨울 시즌을 맞아 뱅쇼 소르베를 새롭게 출시했는데, 따뜻하게 마시던 뱅쇼를 시원한 소르베로 즐길 수 있어 찾는 이가 많다. 기다란 피당시에에 솔트 초코나 아몬드를 입힌 디저트도 커피와 잘 어울려 인기가 많다. "물금역에는 밤 11시가 넘어서도 기차가 다녀요. 막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리단길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자정까지 운영합니다. 덕분에 마지막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고 있어요." 늦은 시간까지 커피를 내리는 방 대표의 손이 분주하다.

세상에 없던 극장, 영화공장

OTT의 확산으로 극장을 향한 발길이 뚝 끊긴 요즘, 영화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공간이 등장했다. 양산시 덕계동에 문을 연 영화공장이 그 주인공. 외관



1 음식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공장의 스카이박스 좌석.
2 황산공원의 자전거도로는 부산과 밀양을 잇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다.
3 영화공장은 여유롭게 앉을 수 있는 그라운드 좌석과 프라이빗한 룸인 스카이박스 좌석으로 구성돼 있다.



은 이름처럼 컨테이너와 쇠 파이프로 이뤄져 공사장을 연상시키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오페라하우스를 방불케 하는 화려함이 반전 매력을 선사한다. 좌석 구성도 독특하다. 의자가 가로로 길게 나열된 일반 극장과 달리 1층 그라운드 공간에는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을 수 있는 1인 소파가 놓여 있고, 그 뒤로 오페라극장처럼 스크린을 중심으로 둥글게 배치된 26개의 룸이 3층까지 이어진다. 편안하게 앉아 영화 감상을 하고 싶다면 그라운드 좌석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식사를 즐기며 영화를 보고 싶다면 룸으로 된 스카이박스 좌석을 선택하면 된다. 스카이박스 좌석은 1~2인실의 체어형과 2~4인실의 매트리스형으로 나뉘며 조도와 볼륨,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방음 부스로 제작해 연인이나 친구, 가족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감상하기에도 좋다. 배가 출출했던 터라 스카이박스 좌석을 예약하고 극장에 들어섰다. 2~4인실은 웬만한 성인 서너 명이 누워도 넉넉할 만큼 공간이 여유롭다. 방 전체에 폭신한 매트와 등받이가 깔려 있고 중앙엔 아담한 테이블과 조명이 놓여 있어 아늑한 분위기다. 음식은 티켓 발권 시 결제하거나 극장 내 테이블에 비치된 QR코드로도

주문할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치킨, 갈릭 소스와 고추 마요, 치즈 등 다양한 종류의 치킨과 튀기지 않고 구워 낸 로스트 치킨도 있다. 주문한 음식은 조리 후 직원이 가져다준다. 룸 내부는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스크린이 한눈에 들어오고, 볼륨과 조도 조절이 가능해 몰입감을 높여 준다. 극장에서 친구와 함께 폭신한 매트리스에 기대어 치킨을 먹으며 보는 영화라니, 이런 극장이라면 방구석 영화관의 편안함도 건지기 힘들다.

안온한빛을 품은 황산공원

여행지에서 공원만큼 현지인의 삶과 문화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가 또 있을까. 공원은 일상 속 쉼터이자 놀이터로, 꽃이 만개하는 계절에는 축제의 장으로, 공연이 열릴 때는 문화와 예술의 무대로 변모하며 사계절 내내 시민과 함께한다. 뉴욕에 센트럴파크, 도쿄에 요요기 공원이 있다면 양산에는 황산공원이 있다. 양산 12경 중 하나로 꼽히는 황산공원은 국화, 뱀싸리, 불빛정원 등 계절마다 다른 풍경으로 시민과 여행객의 발걸음을 이끈다. 물금역 바로 앞에 자리한 황산공원은 2012년 낙동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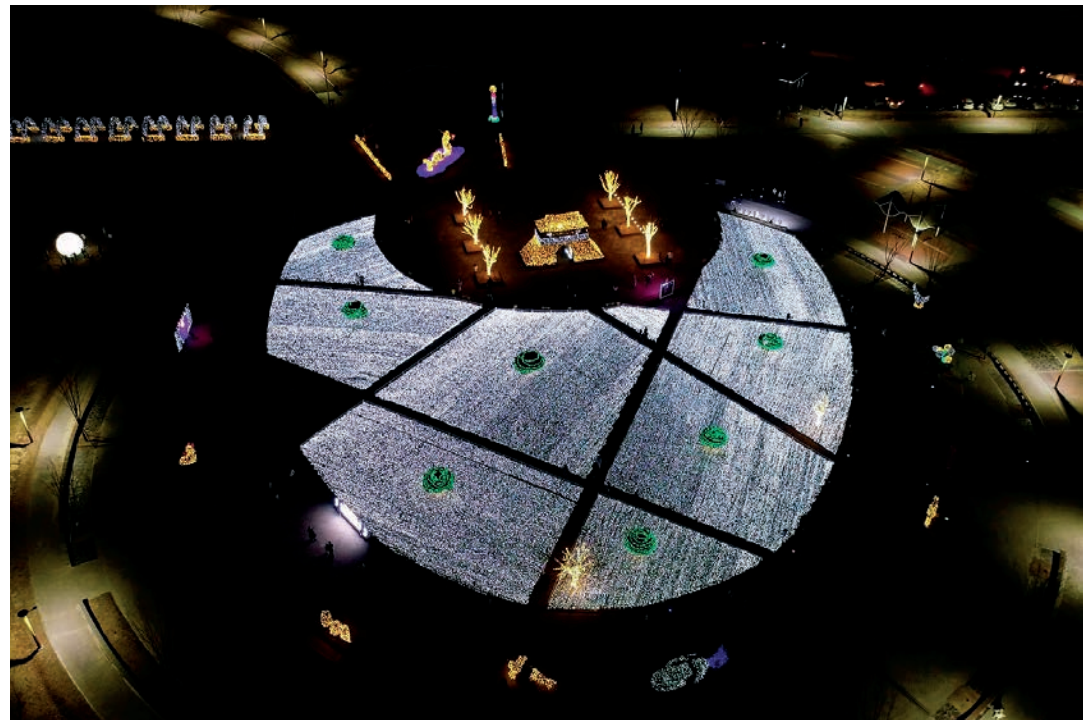


수변 공원으로 조성됐다. 규모는 187만 3000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절반에 달한다. 공원 내에는 마음정원, 문주광장, 황산정,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특히 양산 지역 최대 규모의 캠핑장은 사시사철 인기가 많은 황산공원의 명소다. 일반 캠핑장과 오토캠핑장 모두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샤워장, 취사장, 야외 테이블 등 편의 시설도 꼼꼼하게 갖췄다. 여름이면 캠핑장 근처 이색광장에 물놀이장이 들어서고, 가을에는 캠핑 페스티벌이 열려 캠핑을 하는 내내 심심할 틈이 없다.

찬바람에 코끝이 시려 오는 이 계절에도 황산공원 풍경은 한없이 아늑하고 평화롭다. 은빛 억새가 너른 공원을 포근한 이불처럼 뒤덮고, 겨울 철새들의 노랫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잔잔히 울려 퍼진다. 낙동강과 맞닿은 곳에는 양 옆으로 메타세쿼이아가 끈게 뻗은 자전거도로가 이어진다. 부산과 밀양을 잇는 국토종주자전거길이다. 바람을 가르며 라이더의 질주를 보고 있노라면 추위에 움츠러들었던 몸이 깨어나는 듯하다. 자전거도로 옆 산책로에는 연인이나 친구, 반려견과 나란히 걷는 시민들이 눈에 띈다. 그 일상적이고도

다정한 모습에 이끌려 산책에 나섰다. 평탄한 길을 따라 한쪽에는 황금빛 물결의 낙동강이, 다른 한쪽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가 마중을 나온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가. 그저 걸었음 뿐인데 황산공원이 품은 겨울의 황홀한 풍경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 이 겨울, 황산공원을 찾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공원 중심에 자리한 중부광장에 250여 점에 달하는 빛 조형물을 설치해 알록달록한 불빛정원으로 꾸민 것. 공원에 땅거미가 내려앉으면 겨울을 테마로 한 형형색색 조명이 어두운 밤을 화려하게 밝힌다. ‘2026년 양산 방문의 해’의 관광 캐릭터 ‘호잇’과 ‘뿌웅’을 비롯해 하늘의 별을 잔디밭에 풀어놓은 듯한 정원과 양산 통도사를 닮은 조형물, 앙상한 나뭇가지에 나뭇잎 대신 매달린 초록색 조명까지, 마치 동화 속 환상의 세계로 들어온 듯하다. 황산공원 불빛정원은 오는 3월 2일까지 이어진다.

겨울은 세상 만물이 안식처를 찾는 계절이다. 몸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땅을 파고들 듯, 사람에게도 쉬어갈 안식처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자연과 다정한 사람이 주는 온기. 양산은 한겨울에 숨어들고 싶은 여행자의 집이다.



황산공원 불빛정원의 야경. 오는 3월 2일까지 공원이 화려한 조명으로 물든다.

© 양산공공

© 양산공공



INTERVIEW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행의 특별함

양산 여행은 특별한 관광지를 찾는 것보다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삶과 문화를 경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2026년 양산 방문의 해, 신기영 양산시청 관광과 과장이 양산의 평온한 일상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양산을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양산은 어떤 도시인가요? 양산은 자연과 도시, 사람이 잘 어우러지는 도시입니다. 방문객은 인위적인 관광지 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여행의 매력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먼저 느끼죠. 가족 단위의 체험과 소규모 여행, 계절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이 양산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 온 시민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양산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양산의 명소를 소개해 주세요.** 황산공원을 추천합니다. 평범한 공원처럼 보이지만 직접 걸어 보면 도심과 자연이 이어지는 흐름이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운동하는 시민과 산책하는 가족, 피크닉을 즐기는 여행객이 한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계절마다 다른 풍경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봄 벚꽃 축제, 가을 국화 축제, 2025년에 새롭게 개최한 달갈 축제까지, 방문 시기에 따라 색다른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캠핑장과 파크골프장, 자전거길 등 체험 요소도 다양해 가족 여행객과 소규모 여행객 모두 만족하는 명소죠. 주변 상권과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고, 물금역과 연결돼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겨울철 양산에서 꼭 찾아야 할 장소와 먹거리를 추천해 주세요.** 겨울에는 낙엽이 진 산 능선과 계곡, 숲길에 담백하고 차분한 풍경을 펼쳐 보입니다. 천성산을 걸으면 맑은 겨울 햇살과 고요한 자연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등산 후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가 좋습니다. 양산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돼지국밥은 겨울철 필수 코스입니다. 추운 날씨에 식당 문을 열었을 때 퍼지는 국물 향과 김이 포근함과 반가움을 동시에 불러오죠. 지난해 유튜브 채널 <로컬콜링>에서 양산의 돼지국밥 맛집을 소개했는데, 영상만으로도 그 따뜻함과 깊은 맛에 매료되어 찾는 이가 많아졌습니다. 남부시장을 비롯해 물금 서리단길과 북정·평산동 먹자골목 등에 로컬 식당이 즐비해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 ‘오늘은 어디로 갈까’ 고민에 빠질 정도입니다. 전망이 좋은 곳에 트렌디한 대규모

카페도 많아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며 겨울 풍경을 감상하기도 좋습니다. **2026년 양산 방문의 해에 양산을 찾으면 무엇을 즐길 수 있나요?** 도시 곳곳에서 자연, 일상, 문화를 두루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먼저 물금역 일대는 3~4월 벚꽃 시즌을 맞아 ‘양산프렌즈 웰컴센터’로 꾸밀 예정입니다. 꽃길 산책을 비롯해 미니 게임, 캐릭터 굿즈 체험, 인증 사진 포인트 등을 마련하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황산공원에서는 3월부터 6월까지 야외 스토리형 방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원 곳곳의 숨은 공간을 탐험하며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놀이와 자연을 함께 즐기는 참여형 콘텐츠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10월에는 2025년에 처음 선보인 달갈 축제 ‘에그야페스타’를 더욱 확대된 규모로 개최합니다. 달갈을 활용한 요리 체험과 게임, 이벤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거리와 먹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할 것입니다. 양산 여행 주간에는 지정 숙소 예약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여행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처럼 테마별·계절별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양산의 자연과 일상, 체험과 축제가 어우러진 풍부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을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양산을 여행할 때는 ‘특별한 명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도시의 일상과 자연, 사람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기 바랍니다. 마을의 작은 골목과 영남알프스의 깊은 산, 물결이 잔잔한 강, 지역 주민의 소소한 생활 모습까지 모두 여행의 풍경이 됩니다. 통도사에서 천년고찰의 위엄을 느끼고, 로컬 식당에서 따뜻한 한 끼를 즐기며, 카페에서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낙동강 산책로와 황산공원 체험, 숲에서 치유 프로그램 등 여행 중 마주하는 순간순간이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양산은 ‘일상과 여행이 만나는 도시’입니다. 잠시 머물러 걷고, 보고, 맛보고, 숨 쉬며 각자의 방식으로 양산을 경험해 보세요.

Following the Pulse of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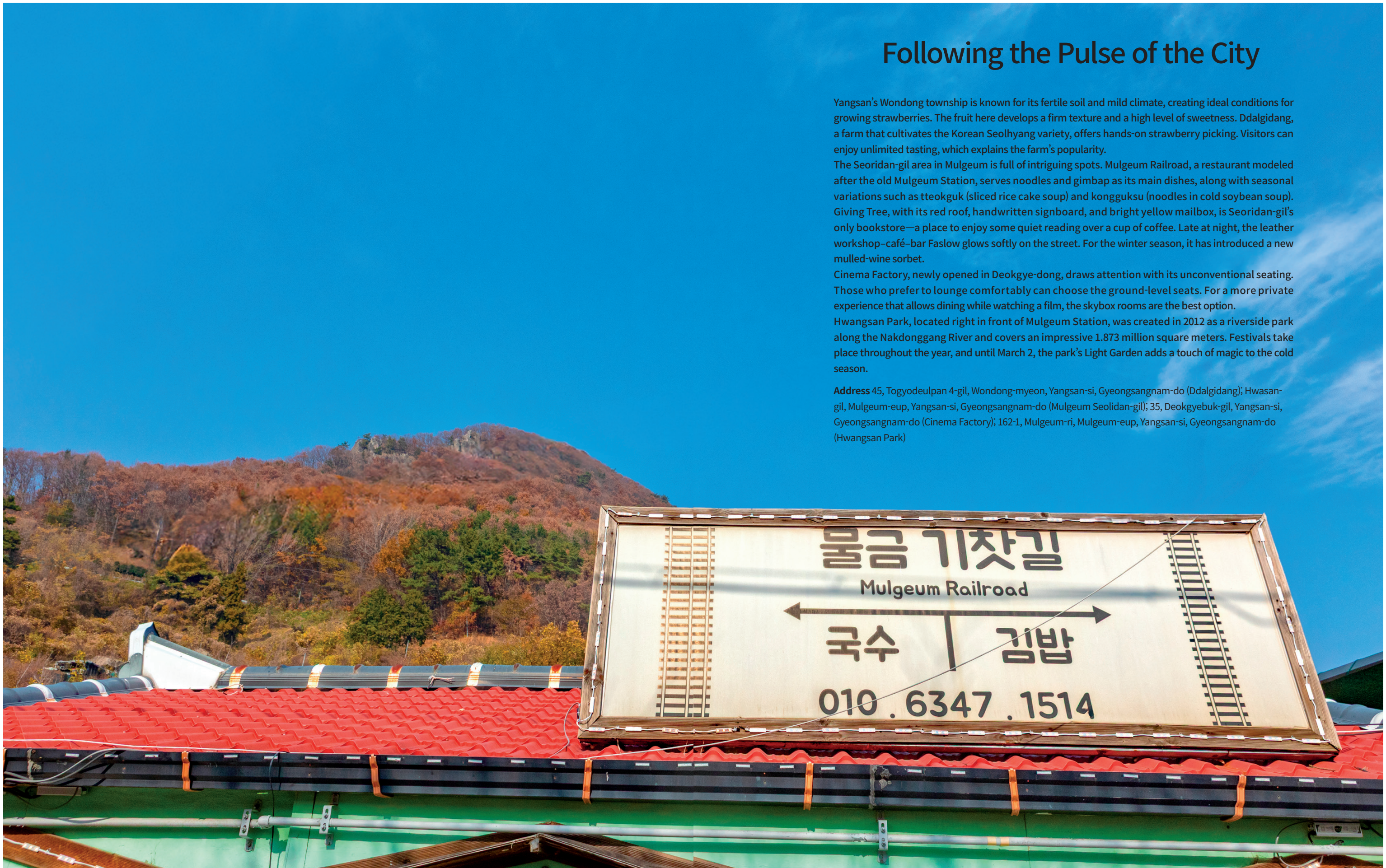
Yangsan's Wondong township is known for its fertile soil and mild climate, creating ideal conditions for growing strawberries. The fruit here develops a firm texture and a high level of sweetness. Ddalgidang, a farm that cultivates the Korean Seolhyang variety, offers hands-on strawberry picking. Visitors can enjoy unlimited tasting, which explains the farm's popularity.

The Seoridan-gil area in Mulgeum is full of intriguing spots. Mulgeum Railroad, a restaurant modeled after the old Mulgeum Station, serves noodles and gimhap as its main dishes, along with seasonal variations such as tteokguk (sliced rice cake soup) and kongguksu (noodles in cold soybean soup). Giving Tree, with its red roof, handwritten signboard, and bright yellow mailbox, is Seoridan-gil's only bookstore—a place to enjoy some quiet reading over a cup of coffee. Late at night, the leather workshop-café-bar Faslow glows softly on the street. For the winter season, it has introduced a new mulled-wine sorbet.

Cinema Factory, newly opened in Deokgye-dong, draws attention with its unconventional seating. Those who prefer to lounge comfortably can choose the ground-level seats. For a more private experience that allows dining while watching a film, the skybox rooms are the best option.

Hwangsang Park, located right in front of Mulgeum Station, was created in 2012 as a riverside park along the Nakdonggang River and covers an impressive 1.873 million square meters. Festivals take place throughout the year, and until March 2, the park's Light Garden adds a touch of magic to the cold season.

Address 45, Togyodeulpan 4-gil, Wondong-myeon, Yangsan-si, Gyeongsangnam-do (Ddalgidang); Hwasan-gil,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Mulgeum Seolidan-gil); 35, Deokgyebuk-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Cinema Factory); 162-1, Mulgeum-ri,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Hwangsang Park)



바다 내음 가득한 하슬라아트월드, 솔향과 대나무 향이 은은한 오죽헌,
고소한 초당순두부 냄새가 퍼지는 이색 맛집과 카페까지.
감각을 깨우는 향이 겹겹이 스민 도시, 강원도 강릉을 찾았다.

강릉, 향기에 물들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역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

제2지원 강릉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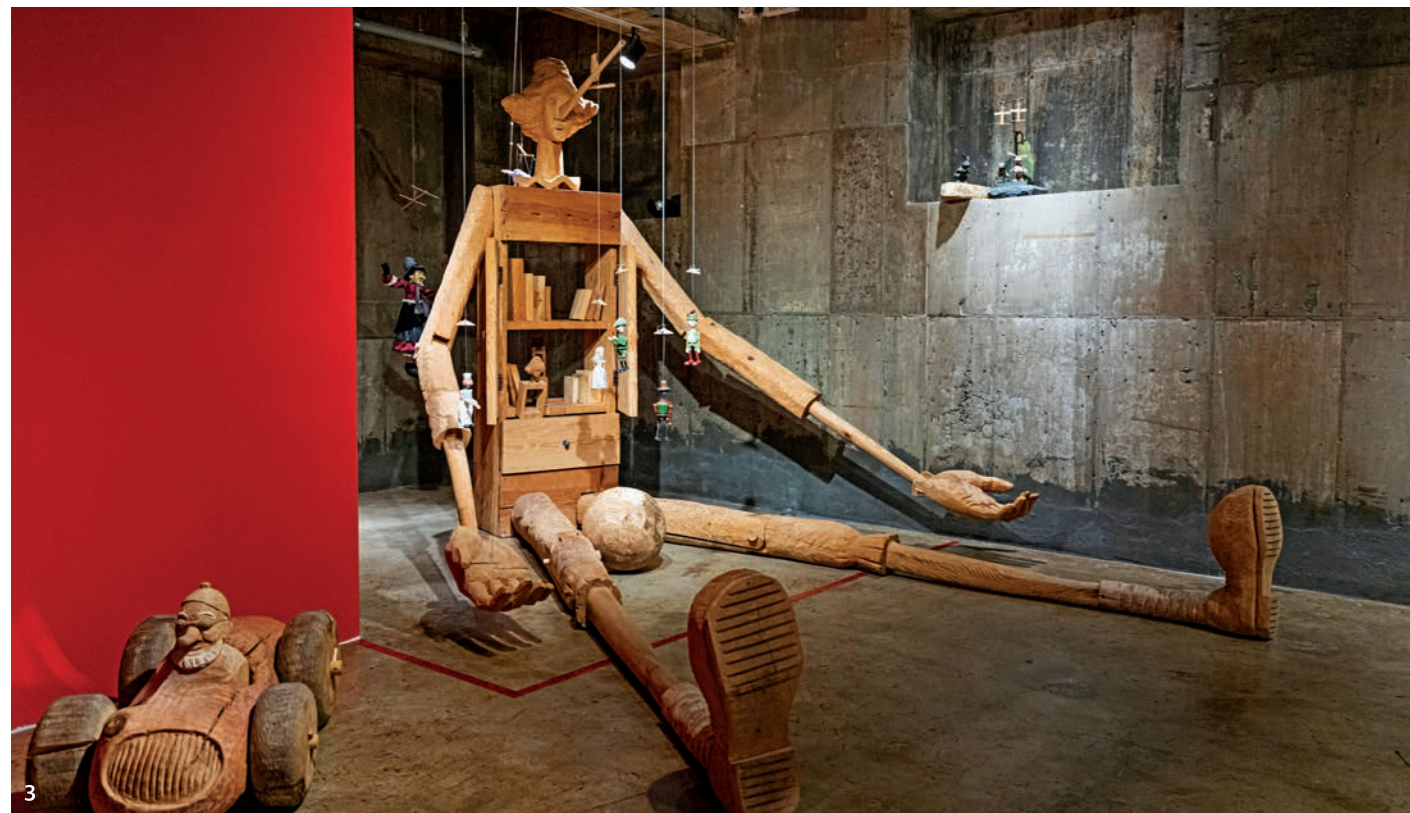
1

동해바다 품은 예술의 광장 하슬라아트월드

정동진역으로 향하는 해안 도로를 달리다 보면 푸른색 철골과 알록달록한 창이 인상적인 건물을 만난다. 미술관과 호텔, 레스토랑, 카페, 공원을 아우르는 약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 정동진 인근 등명해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하슬라아트월드다. 강릉 출신 조각가 최옥영·박신정 부부가 2003년에 설립한 곳으로, 실내 미술관과 야외 조각 공원을 중심으로 전시가 펼쳐진다. 실내에 들어서면 조각, 회화, 설치미술 등 독창적인 작품들이 연달아 시선을 사로잡는다. 스테이플러 심으로 만든 양태근 작가의 '하마', 폭신해 보이는 소파 같지만 단단한 철판으로 제작한 김경한 작가의 '흔적' 등 일상 소재를 재해석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묘한 인상을 남긴다. 각 공간을 이동할 때는 털실로 엮은 설치 작품 사이를 지나거나, 동화 <피노키오>의 고래 뱃속을 연상시키는 터널을 통과하는 등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도 든다. 터널을 빠져나오면 발밑에 은색 파이프가 짙게 깔린 대지 미술 '오션스퀘어'가 나타난다. 최옥영 작가가 1만 개 이상의 철판과 파이프로 만든 대작으로 한쪽에는 동일 작가의 '은색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 생동감 있게 뻗은 은색 파이프들이 탁 트인 동해 바다와 어우러지며 자연과 예술이 서로 맞물린 풍경이 완성된다. 오션스퀘어를 나서면 하슬라아트월드의 하이라이트인 야외 조각 공원에 닿는다. 앞으로는 정동진 바다가, 뒤로는 개방산이 감싸는 파노라마 뷰가 두 눈 가득 밀려든다. 떠오르는 해를 손에 쥔 조각상과 수평선을 기준으로 자전거가 두 대가 반영을 이루는 듯한 모습까지 이 겨울, 놓칠 수 없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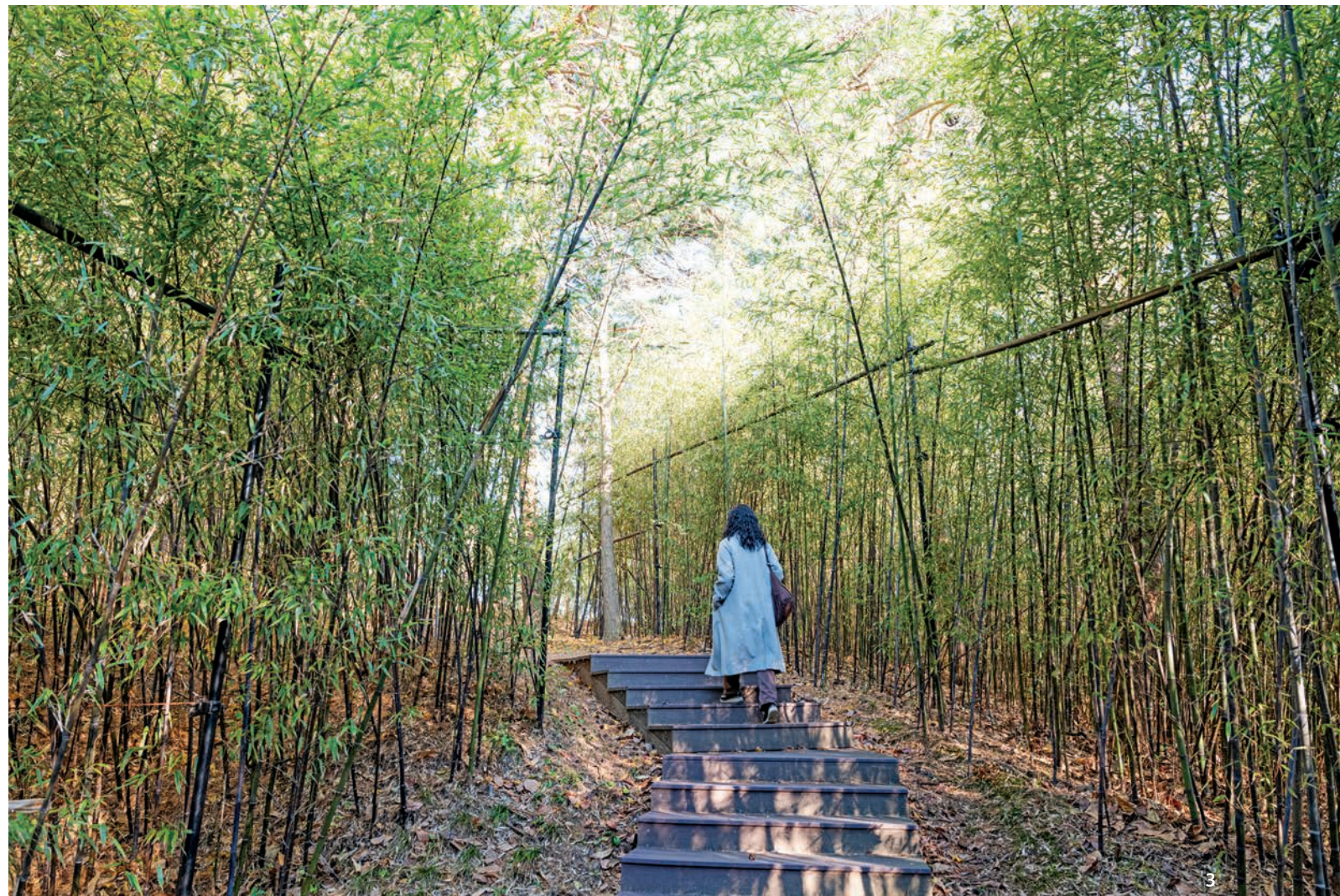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울곡로 1441 문의 033-644-9411



1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듯한 조각 작품을 만났다. 2 데칼코마니처럼 얇은 두 자전거가 저 멀리 수평선을 기준으로 반영을 이룬 듯한 풍경이 절묘하다. 3 피노키오·마리오네트 전시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예술가가 만든 다양한 피노키오 작품을 볼 수 있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3139번길 24 문의 033-660-3301



2

선현의 숨결 깃든 자리 오죽헌

경포 바다로 접어드는 초입, 까마귀처럼 검게 번진 대나무 숲이 바람에 잔잔히 흔들린다. 빼곡한 대나무 숲이 세찬 겨울바람을 막아 주어 고요함이 감도는 고택. 이곳이 바로 신사임당과 울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이다. 조선 초기에 지은 별당 오죽헌을 중심으로 사랑채와 안채, 어제각 등이 자리한다. 대문을 들어서면 왼편에 오죽헌이, 정면에는 문성사가 보인다. 두 건물 안엔 인자한 눈매와 열은 미소를 머금은 사임당과 울곡의 영정이 각각 걸려 있다. '도덕과 학문을 널리 들어 막힘이 없이 통했으며 백성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정사의 근본을 세웠다'는 뜻의 시호 '문성'은 1624년 인조가 울곡에게 내린 것으로 그의 울곡은 심성을 짐작케 한다. 건물을 지은 1400년경에 심었다는 울곡매와 배롱나무는 오죽헌의 오랜 역사를 묵묵히 증언한다. 자연을 사랑한 사임당은 매화를 각별히 여겨 여러 작품에 남겼는데, 그중 '고매도'와 '묵매도'는 오죽헌 뒤뜰에서 자라는 울곡매를 보고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 사랑채와 안채를 지나 가장 안쪽으로 향하면 정조의 명으로 지은 작은 누각, 어제각이 나타난다. 이곳에는 울곡이 지은 아동 학습서 <격몽요결>과 그가 어린 시절 사용한 벼루가 보관되어 있다. 벼루 뒷면에 새겨진 정조의 글귀에서 울곡의 학문과 덕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읽힌다. 울곡과 사임당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근처의 울곡기념관과 강릉화폐전시관을 둘러 보자. 울곡기념관에서는 울곡 일가의 그림과 서예, 시화를 통해 조선 가문의 학문적 깊이를 느껴 보고, 강릉화폐전시관에서는 세계 최초 모자(母子) 화폐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일화와 화폐 도안의 변천사 및 과학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3

초당순두부의 참신한 변신 코스탈로 & 강릉초당두부티라미수

마을 초입부터 고소한 초당순두부 냄새가 발걸음을 이끈다. 강문해변 안쪽 초당순두부 마을에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맛집이 여럿 있는데, 최근에는 초당순두부를 색다르게 풀어내는 식당도 생겼다. 대표적인 곳이 코스탈로와 강릉초당두부티라미수다. 코스탈로는 강원도의 제철 식재료와 동해의 해산물을 중심으로 지중해식 요리를 낸다. 시그너처는 '비프 피타 플레타'. 그리스 발효 빵 피타 반죽에 초당두부를 더해 촉촉하고 쫄쫄한 식감을 살렸다. 여기에 숯 향을 머금은 고기 완자와 신선한 토마토 살사, 싱그러운 차지키 소스를 곁들이면 풍미가 한층 더 깊어진다. 조개 모양 그릇, 산호 모양을 새긴 물컵 등 바다 이미지를 입힌 도자기 식기까지 더해져 식탁 위에 작은 해변이 펼쳐진 듯하다. 강릉초당두부티라미수는 초당순두부로 강릉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디저트를 선보인다. 문을 여는 순간 들리는 파도 소리는 마치 강릉 앞바다에 온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이곳의 대표 메뉴 '오션 두부티라미수'는 에스프레소에 적신 빵 위에 초당두부 크림을 층층이 쌓고, 잘게 부순 통밀 쿠키로 모래사장을, 화이트 초콜릿으로 불가사리와 조개를 표현했다. 한 입 맛보면 비릿함 없이 은근하게 퍼지는 고소함이 매력적이다. 새로운 맛의 조합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두부오션드링크'가 제격이다. 파도에서 영감을 받은 음료로, 바다를 닮은 푸른 색감이 먼저 시선을 끈다. 순두부의 부드러움과 코코넛 젤리의 오독한 식감이 독특한 대비를 이루고, 코끝에 스치는 은은한 후추 향이 알싸한 해풍을 떠올리게 해 한번 맛보면 잊기 어려운 여운을 남긴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초당원길54번길 20(코스탈로), 난설천로 178(강릉초당두부티라미수) 문의 05-07-1393-5664(코스탈로), 0507-1430-0673(강릉초당두부티라미수)



1 강릉초당두부티라미수는 두부와 바다를 모티브로 공간을 꾸몄다. 녹색 가구는 두부의 원료인 콩을 상징하고, 두부 위를 서핑하는 미니어처는 강릉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2 도자기 공방 코스탈리카의 이미지 대표가 만든 도자기 식기에 코스탈로 김태혁 셰프의 요리를 더하면 강릉 바다를 품은 지중해 한 상이 완성된다.

Immersed in the Scents of Gangneung

1

Haslla Art World

Driving along the coastal road toward Jeongdongjin Station, a striking building of blue steel and colorful windows appears in view. This is Haslla Art World, a multi-faceted cultural complex that brings together a museum, hotel, restaurant, café, and sculpture park across more than 330,000 square meters. Perched on a hill overlooking Deungmyeong Beach near Jeongdongjin, the site was founded in 2003 by Gangneung-born sculptors Choi Ok-yeung and Park Shin-jung. Exhibitions unfold across indoor galleries and an expansive outdoor sculpture park. The highlight is Ocean Square, a monumental work created by Choi using more than ten thousand steel beams and pipes along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At the far end of the structure, the artist's Silver Waves awaits. Its dynamic silver pipes rise like surging surf, merging with the open East Sea to create a scene where nature and art flow seamlessly together. Climb up to the outdoor sculpture park and a panoramic view opens wide. The Jeongdongjin sea stretches out in front, while Gwaebangsan Mountain rises behind. Sculptures such as the figure holding the rising sun or the pair of bicycles aligned with the horizon offer winter scenes too arresting to overlook.

Address 1441, Yulgok-ro, Gangdong-myeon, Gangneung-si, Gangwon-do **Contact** 033-644-9411



From the salt-laden breeze of Haslla Art World to the fragrance of pine and bamboo at Ojukheon, and the savory aroma of Chodang sundubu drifting from local eateries and cafés, Gangneung is a city layered with sensory impressions. It is a place where scent becomes a guide, inviting travelers to linger.



2

Ojukheon

At the entrance toward Gyeongpo Beach, a stand of bamboo as dark as a crow sways quietly in the wind. Sheltered by this dense grove, the historic residence of Ojukheon feels calm even in the sharp winter air. It was here that Shin Saimdang and her son Yulgok Yi I were born. Centered on the early-Joseon annex known as Ojukheon, the compound includes the sarangchae, anchae, and eojegak, with the black bamboo that inspired its name encircling the grounds. Travelers who wish to delve deeper into the lives of Yulgok and Saimdang can stop by the nearby Yulgok Memorial Hall and the Gangneung Money Museum. The memorial hall presents paintings, calligraphy, and poetic works by members of the Yulgok family, offering insight into the scholarly depth of a prominent Joseon lineage. The Gangneung Money Museum explores the stories behind these two historical figures, who appear together on the world's first mother-and-son banknote, and traces the evolution and scientific foundations of Korean currency design.

Address 24, Yulgok-ro 3139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Contact** 033-660-3301

3

Café Dooti

Café Dooti reimagines Chodang sundubu (soft bean curd) as a dessert infused with the spirit of Gangneung. Step inside and the sound of waves fills the room, creating the sensation of walking straight into the shoreline. The café’s signature dish, the “Ocean Tofu Tiramisu,” layers sponge soaked in espresso with Chodang tofu cream, then tops it with crushed whole-wheat cookies to evoke a sandy beach and smooth tofu cream shaped like rolling waves. The flavor is gentle yet richly nutty, without any hint of brininess. For those who enjoy unexpected pairings, the “Tofu Ocean Drink” is the perfect choice. Inspired by the waves of Gangneung, its sea-blue color immediately draws the eye. Soft sundubu and chewy coconut jelly create a striking textural contrast, while the faint peppery note that lingers at the end recalls the sharp sea breeze. It is a drink that leaves a memorable finish after the very first sip.

Address 178, Nanseolheon-ro, Gangneung-si, Gangwon-do **Contact** 0507-1430-0673



4

Coastallo

The moment you enter the neighborhood, the warm, nutty aroma of Chodang sundubu guides your steps. The Chodang Sundubu Village tucked behind Gangmun Beach is home to many long-standing eateries that uphold traditional methods, yet recently a new wave of restaurants has begun offering creative interpretations of this local specialty. Among them, Coastallo stands out. Coastallo serves Mediterranean-inspired dishes built around Gangwon’s seasonal ingredients and seafood from the East Sea. Its signature dish is the Beef Pita Platter. The dough for the Greek-style pita bread is enriched with Chodang tofu, giving it a moist, pleasantly chewy texture. Charcoal-grilled meatballs, fresh tomato salsa, and creamy tzatziki round out the flavors with even greater depth. The experience is completed by “Coastalica” ceramics, a line designed with the sea in mind: clam-shaped plates, starfish-embedded cups, and other coastal motifs that make the table feel like a small beachscape of its own.

Address 20, Chodangwon-gil 54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Contact** 0507-1393-5664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

강원도 강릉시는 올해 국내 관광객 5000만 명, 외국인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국제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 국내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해안 도로인
현화로는 드라이브 명소로 손꼽힌다. 2 전통과
현대 공존하는 월화거리. 3 해송 숲을 사이에 두고
경포호수와 경포해변이 마주한다.



제자 지원 강릉시청

지난해 11월 기준 강릉을 찾은 여행객은 국내 3200만 명, 해외 30만 명으로 2018년 이후 매년 3000만 명 이상 꾸준히 방문해 강릉은 이미 인기 여행지로 자리매김했다. 강릉시는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2024년부터 국제 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와 함께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을 이어왔다. 36개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맺으며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강릉역 일대에서 관광객 환영 캠페인과 서울·부산·동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올해는 관광 종사자와 시민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축제와 주요 행사장에서 캠페인을 펼쳐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라모노그램 강릉을 비롯한 숙박 인프라 확충, 대관령 북부 권 케이블카·파크골프장 등 관광 시설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와 강릉 ITS 세계총회를 연계한 관광 상품부터 월별 테마 여행 프로그램, 인바운드 상품까지 폭넓게 운영하는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를 본격 추진한다.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세계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탁구 대회인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가 올여름 강릉에서 열린다. 국제탁구연맹(ITTF)이 주관하는 비엘리트 공식 국제 대회로, 올해는 약 100개국에서 4000명 이상의 선수가 출전한다. 남녀 단식, 남녀 복식, 혼합 복식 등 총 5종목으로 구성되며 만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특히 한국 탁구의 전설인 현정화가 1호 선수로 등록하며 전현직 선수와 동호인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탁구인이 만나는 교류의 장이자 한국 전통문화와 강릉의 자연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기간 6월 5일~12일
장소 강원도 강릉올림픽파크 일원
문의 070-4130-2074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교통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S 행사인 ITS 세계총회가 10월 19일부터 닷새간 강릉에서 개최된다. 올해 주제는 ‘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이동성을 넘어 하나 되는 세계)’.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 차량, AI 기반 교통관리센터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통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모색한다. 세계 각국의 ITS 리더와 산업 전문가, 학계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C-ITS, 자율 주행, MaaS(Mobility as a Service), UAM, 스마트 시티 등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논의한다. 고위급 회담과 학술 세션, 첨단 기술 시연, 현장 체험은 물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와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기간 10월 19일~23일
장소 강원도 강릉올림픽파크 일원
문의 02-6918-2582



축제로 만나는 강릉의 사계

사계절 다른 결의 풍경을 선사하는 강원도 강릉. 계절의 정취와 지역의 매력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강릉의 축제를 소개한다.

봄, 벚꽃과 함께 열리는 축제의 서막

경포호수로 접어드는 길부터 경포대 정자까지 분홍빛이 가득 번지면 경포 벚꽃 축제가 방문객을 맞는다.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에서 한가롭게 피크닉을 즐기고 인증 사진을 남기는 것은 기본이다. 벚꽃 다도와 벚꽃 타투 스티커 체험 등 계절의 감성이 깃든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강릉에서 가장 이른 벚꽃을 만나고 싶다면 솔울지구 일대에서 열리는 솔울블라썸을 추천한다. 도심에서 진행해 이동이 편하고 주변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밤이 되면 축제 분위기가 한층 더 살아난다. 거리마다 늘어선 팝업 스토어를 구경하며 청명한 봄밤을 누려 보자. 강릉의 봄이 특별한 데에는 강릉단오제가 한몫을 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닻새 동안 시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여러 신을 차례로 모시는 단오굿이다. 여기에 조선 시대 관청 노비들의 놀이에서 비롯된 관노가면극이 더해져 풍자와 해학이 담긴 국내 유일의 무언 가면극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문의 033-640-5130(경포 벚꽃 축제), 033-641-1593(강릉단오제)



1 경포 벚꽃 축제가 열린 경포호수 일대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2 강릉단오제에서는 국내 유일의 무언 가면극인 관노가면극을 볼 수 있다.



1 강릉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강릉누들축제 현장.
2 안목해변 백사장장에서 열린 강릉커피축제에 많은 여행객이 몰렸다.



가을, 커피와 면발의 도시

강릉의 커피 문화는 선구적인 바리스타들이 이곳에 정착해 카페를 열면서 시작됐다. '커피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강릉커피축제도 개최했다. 안목해변을 따라 자리한 강릉커피거리는 축제의 중심 무대다. 강릉커피 축제는 단순히 시음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로스터와 함께 커피를 내리거나 나만의 드립백을 만들며 커피 한 잔이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본다. 커피와 찰떡궁합인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다. 강릉에는 커피만큼이나 맛깔난 면 요리도 많다. 월화거리 일대에서 진행되는 강릉누들축제에서는 장칼국수·막국수·감자옹심이칼국수 같은 지역 대표 메뉴는 물론 마라국수·완탕면·팟타이 등 세계 각국의 면 요리와 창작 메뉴까지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라면 브랜드 맞히거나 전통 방식의 면 뽑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문의 033-640-5049(강릉커피축제), 033-640-5130(강릉누들축제)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강릉 앞바다에 모인 사람들.

+ 여기도 가 보세요

평창송어축제 강원도 평창군의 해발 700미터 지점, 청정 오대천에서 자란 송어는 유난히 크고 살이 차져 맛이 좋다. 평창 송어의 맛과 매력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매년 1월에 열리는 평창송어축제를 기억하자. 축제의 핵심은 단연 송어잡기 체험이다. 맨손잡기, 얼음낚시, 텐트낚시 등 방식도 다양하다. 직접잡은 송어는 축제장 옆 먹거리촌에서 회, 구이, 매운탕 등 원하는 방식으로 맛볼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만큼 썰매, 스노 래프팅, 얼음 카트 같은 겨울 레포츠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겨울, 한 해의 끝과 시작

강릉커피거리와 월화거리가 형형색색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면 강릉 크리스마스 축제의 막이 올랐다는 뜻이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거리 점등식'을 통해 도심은 순식간에 빛의 거리로 변하고, 크리스마스 마켓과 화전목마, 캐럴 버스킹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에 좋은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된다. 한 해가 저물면 새로운 시작이 다가온다. 그 설렘을 안고 해맞이 축제를 즐기러 발걸음을 옮긴다. 탁 트인 수평선과 긴 백사장이 인상적인 정동진해변은 시시각각 바뀌는 일출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배 모양의 썬크루즈 리조트 위로 붉은 태양이 걸려지면 사람들은 일제히 탄식을 터뜨린다.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카메라를 들어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새로운 한 해의 소망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

문의 033-640-5130(강릉 해맞이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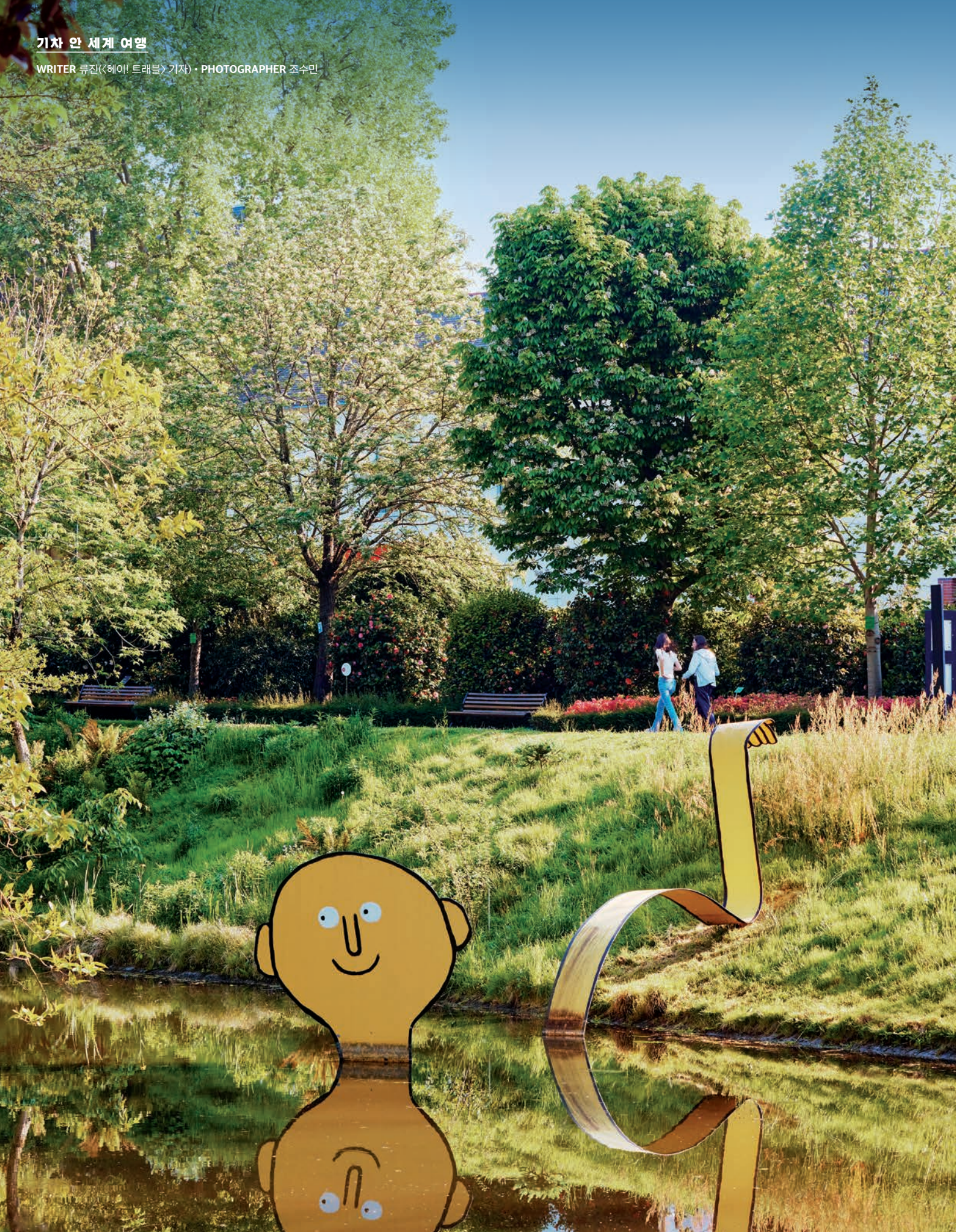


여름, 파도 위에 넘실대는 낭만

강릉에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 축제는 단연 강릉비치비어페스티벌이다. 전국 곳곳의 개성 넘치는 수제 맥주와 강릉 로컬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보며 여름밤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백사장을 병풍처럼 둘러싼 송림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해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라이브 밴드 무대와 디제잉 파티는 여름 감성을 극대화한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기고 싶다면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정답이다. 록부터 힙합, 발라드, EDM까지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이어지며 경포의 밤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수중 씨름, 비치발리볼, 물총 싸움 같은 프로그램도 무더위를 잊게 한다. 전국의 실력과 뮤지션들이 모여 재능을 겨루는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도 놓치지 말자. 팀마다 색다른 무대를 선보여 매주 대회를 찾는 마니아층이 생길 만큼 호응이 뜨겁다.

문의 033-640-5130

1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가 여름밤을 낭만으로 물들인다.
2 경포의 밤을 뜨겁게 달구는 경포 썸머 페스티벌.
3 강릉비치비어페스티벌에서 다양한 수제 맥주를 맛보며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



낭트와 렌에서 만난 삶의 예술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권역에 위치한 낭트와 렌은 창의를 힘으로 나아가는 젊은 도시다.

고유하고 독립적인 예술 신, 비주류와 공동체를 지지하는 문화,
변화와 혁신을 좇는 두 도시에서 발견한 삶을 예술로 만드는 순간들.





예술이 여행이 되는 순간, 낭트

버려진 조선소는 폐자재로 생명을 불어넣은 기계 동물의 낙원이 되고, 바나나를 적재했던 창고는 갤러리, 극장, 클럽으로 변모했다. 예술로 재도약하며 살기 좋은 도시가 된 낭트에서 삶을 예술로 만드는 장면을 찾았다.

증기로 움직이는 기계 코끼리

저 멀리 나무와 강철로 만든 코끼리가 육중한 자태를 드러낸다. ‘르 그랑 엘레팡’을 마침내 눈앞에서 마주한다. 높이 12미터, 길이 21미터, 무게 48톤을 자랑하는 이 조형물은 낭트의 새로운 마스코트. 기계를 생명체로 만드는 예술 집단 ‘라 마신(La Machine)’의 걸작으로 쇠퇴한 조선업의 도시에서 예술을 재생의 키워드로 삼고 진화하는 낭트의 지향을 보여 주는 매개체다. 르 그랑 엘레팡이 특별한 건 공터에 우두커니 서 있는 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채만 한 네 다리를 움직이며 시속 1~3킬로미터로 기계 섬을 배회한다. 그 놀랍고 웃기며 신기한 인공 코끼리의 자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등에 짙어진 구조물에서 인간들이 빼꼼 얼굴을 내민다. “사람도 태어나요?” 가이드 서번이 기다렸다는 듯 유창하게 설명을 잇는다. “물론이죠. 50명까지 탈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터로 움직이거든요. 이 어트랙션은 낭트 출신 소설가 쥘 베른의 〈스팀하우스〉에 등장하는 ‘증기로 움직이는 기계 코끼리’에서 착안해 만든 작품입니다.”

쥘 베른과 천재 엔지니어들이 만든 놀이터

쥘 베른을 빼놓고 낭트섬을 설명할 수 없다. 선박을 만들던 폐창고 안에 기계로 구현한 거미, 나무늘보,

14층 건물 높이를 뚫도는 거대한 코끼리, 르 그랑 엘레팡. 2 낭트 미술관에서 ‘아트 데 비브르(Art de Vivre, 삶의 예술)’를 즐기는 사람들. 3 낭트섬의 기계 갤러리, 라 갈레리 데 마신에는 탈 수 있는 기계 동물들이 있다. 4 루아르강 서쪽의 버려진 창고 지대, 앙가르 아 바난은 이제 낭트에서 가장 세련된 동네인 크레이시옹 지구가 됐다.



람들이 문화, 예술, 미식, 여가를 즐기기에 위해 찾는 지구가 됐다. 도시를 관통하며 대서양으로 뻗어나가는 루아르강을 바라보며 산책을 즐기는 이 길에선 낭트를 예술 도시로 만든 대형 프로젝트, 르 보야주아 낭트(Le Voyage à Nantes)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다. 도시의 슬로건이기도 한 르 보야주아 낭트는 2012년, ‘일상 속에서 예술이 말을 거는 경험을 취지로 시작된 축제. 도시 곳곳 130여 개의 명소와 공공 예술 작품을 녹색 선을 따라가며 만나는 여정을 의미한다. <레 자노(Le Anneaux)>는 ‘빛의 고리’라는 뜻으로 예술가 다니엘 뷔랑(Daniel Buren)과 건축가 파트리크 부상(Patrick Bouchain)이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강변의 난간을 따라 늘어선 18개의 고리는 도시와 자연의 풍경을 분절해서 바라보는 액자 역할을 해요. 밤에는 빨강, 초록, 파랑 조명이 들어와 낭트의 특별한 야경을 완성하고요.” 큐레이터 못지않은 유창함으로 도시를 도슨트하는 서번의 설명을 BGM 삼아 발걸음을 재촉한다. 회화, 건축, 디자인, 설치미술부터 실험적인 미디어 아트까지 다루는 현대미술관 HAB 갤러리(HAB Galerie)를 비롯해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극장, 테아트르 100 نوم(Théâtre 100 Noms), 록·일렉트로닉·힙합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수용하는 공연장이자 클럽 르 페라이외르(Le Ferrailleur)가 떠나가 있던 자리를 채우고 있다.

작품이 있는 예술적 공간, 정원

프랑스 사람들에게 자르댕, 즉 정원은 자연을 넘어 예술의 한 장르다. 철저한 구상과 설계, 디자인을 거쳐 완성한 조정 사이에 당대 예술가들이 현사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100여 개의 정원이 자리한 낭트에선 자르댕 드 플랑트 낭트(Jardin des Plantes de Nantes, 이하 낭트 식물원)가 그런 역할을 한다. 7만 제곱미터 부지에 19세기에 지은 온실과 영국풍으로 조성한 연못, 폭포, 조형 정원이 들어선 이 식물원에는 동화 작가이자 화가 클로드 폰티(Claude Ponti), 회화·설치미술·비디오 등의 장르를 아우르는 파브리스 이베르(Fabrice Hyber) 등 저명한 예술가들의 이름과 작품이 꽃과 나무 사

1 구시가지 ‘부페이 지구’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건축물, 파사주 폼므레. 2 다니엘 뷔랑의 ‘레 자노’ 도시 풍경을 분절하는 프레임 역할을 한다. 3 낭트의 상징적 건축물, 브르타뉴 공작성. 4 낭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예술은 도시 곳곳에 자리한 100여 개의 정원에 녹아들어 있다.

낭트라는 아트를 경험하고 싶다면

1. 녹색 선 따라 무작정 걷기

낭트에선 구글맵이 딱히 필요 없다. 바닥 위에 새겨진 녹색 선만 따라 걸으면 이 도시에서 꼭 봐야 할 유적부터 올해 갓 생겨난 명소, 공공 예술 작품 등을 거의 빠짐없이 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15세기에 지은 브르타뉴 공작성과 유럽에서 가장 유서 깊고 아름다운 아케이드로 꼽히며 수많은 예술가, 영화감독,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준 건축물 파사주 폼므레는 꼭 들러야 할 장소다. 약 22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130여 개 명소와 공공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 틈만 나면 정원 찾기

낭트는 모든 시민이 반경 300미터 안에서 녹지를 누릴 수 있는 정원의 도시다. 낭트 식물원 외에도 매력적인 정원이 많다는 얘기. 쿠르 캉브론(Cours Cambronne)은 19세기 건축과 정원 디자인의 정석을 살펴볼 수 있는 곳. 르 보야주아 낭트 프로젝트의 한 작품인 조각가 필리프 라메트(Philippe Ramette)의 작품 ‘엘로주드라 트랑스그레시옹(Éloge de la Transgression)’도 볼만하지만, 낭트 사람들의 소탈하고 여유로운 일상도 엿보기 좋은 곳이다. 과거 채석장 자리에 조성한 이국적인 열대 정원 ‘자르댕 엑스트라오디네르’는 문자 그대로 ‘비범한 정원’ ‘경이로운 정원’이라는 뜻으로 절벽, 폭포, 야자수와 양치식물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술로 낭트 맛보기

지역 특산 와인 뮈스카데(Muscadet)의 맛도 예술이다. 루아르강 하류, 낭트 근교에서 재배·생산하는 이 화이트 와인은 산미가 좋고 풍미가 깊다. 애호가들 사이에선 레몬, 사과, 바다 내음을 품어 여름 제철 식재료로 만든 요리와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는다. 시내에서 자동차나 기차로 30~40분만 가면 클리송(Clisson), 발레(Vallet) 등 뮈스카데 와인이너리가 자리한 도시에 닿는다.



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역시 장 쥘리앵(Jean Julien). 쥘 베른에 이어 낭트를 예술로 부흥시키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아티스트다. 낭트 식물원엔 그의 마스코트이자 분신인 동그랗고 커다란 눈에 큰 키와 짙마른 몸의 ‘종이 인간(Paper People)’이 산다. 나무에 매달린 ‘감시자(Le Guetteur)’, 녹색 선을 부여잡은 ‘미행자(Le Fileur)’ 같은 이름이 붙은 우스꽝스러운 얼굴의 캐릭터 앞에서, 몇 년 전 서울에서 열린 그의 전시 <종이 세상(Paper Society)>에서 본 메시지가 떠올랐다. “My work is about communicating the positive in things, making people smile, making them think, too, sometimes, I hope. (제 작업은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전하고,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고, 때로는 사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겐 낭트가 그런 곳이다. 진중하고 심오한 가운데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은 녹색 선 위의 공공 예술 작품들, ‘시크로 표현되는 냉랭함을 지닌 파리지앵과 달리 투박하지만 따뜻한 낭트 사람들 덕에 자주 웃었고, 종종 상념에 젖었다. 삶의 예술을 실현하는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닐까? 좋은 생각을 따르고, 잘 웃는 것. “그게 바로 낭트 사람들의 삶이에요.” 마침내 이 도시의 진짜 보물을 찾아낸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번이 차갑게 식힌 달콤한 뮈스카데를 권했다.



창의적인 예술 실험실, 렌

22만명 인구 중 7만 명이 학생인 대학 도시 렌은 도시 전역이 캠퍼스다. 젊은 도시 특유의 활기와 실험 정신, 호기심과 열의는 렌의 독립 예술과 비주류 예술 신을 활성화했다. 프렌치 스타일의 창의성을 보여 주는 렌의 개성 넘치는 로컬과 매력적인 공간들을 만났다.

프랑스 역사를 간직한 서점들

17세기에 지은 목골 건축물, 메종 아 콜롬바주(Maison à Colombages)에 들어선 르 파예(Le Failler) 서점은 1925년에 문을 연 독립 서점이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이곳은 렌에서 나고 자란 이들, 지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겐 자부심과 애郷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저는 이 서점이 대학 도시로 유명한 렌의 정체성을 함축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첫 일정으로 우리를 이곳에 데려온 렌 관광청의 라파엘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읽지도 못하는 프랑스어로 쓰인 책을 뒤적이는 대신 서가 앞에서 독서에 열중한 사람들을 관찰한다. 햇살 아래에서 만난, 어딘가 밝고 화사한 낭트 사람과 달리 렌 사람들은 검박하고 수수하며 조금은 무뚝뚝해 보인다. 몇 년 전, 이런 느낌과 꼭 닮은 장소에서 있던 기억이 난다. 미국 서부, 버클리(Berkely)의 상징과도 같은 모스 북스(Moe's Books)다. 모스 북스는 1959년에 문을 연 버클리에서 가장 유명한 독립 서점으로 진보적인 지식인과 비트 세대의 아지트, 권위주의와 소비주의 등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운동의 거점으로 유명하다. 렌도 그런 도시일까?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튼, 자신을 렌 1대학

122만명 인구 중 7만 명이 학생인 도시, 렌. 도시 전역이 캠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00년 된 서점으로 유명한 ‘르 파예’ 외관. 3 길거리에서 만난 독특한 조각상. 실험적인 예술을 사랑하는 렌에선 흔한 풍경이다. 4 로컬의 취향을 보여 주는 빈티지 상점 겸 카페, 바카를.



에 다니는 학생으로 소개한 로컬에게 물었다. “글쎄요, 버클리에 가 본 적은 없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 비슷한 것 같네요. 이곳 역시 프랑스 진보 운동의 주요 도시 중 한 곳이고, 온갖 시위와 각종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의 동의에 힘입어 ‘렌은 어떤 분위기냐’고 메시지를 보내온 친구에게 이런 답을 보냈다. “어, 여긴 진보주의자, 좌파 그리고 식자층의 도시야. 나랑 아주 잘 맞을 것 같아.”

연대와 투쟁의 공감대

렌을 떠돌다 떠오른 또 다른 도시가 있다. ‘히피’의 도시에서 ‘힙’한 도시로 변화하기 직전의 포틀랜드, 로컬 브랜드, 개성 강한 부티크 호텔, 지역 제철 식재료를 으뜸으로 치는 미식 신, 지속가능한 소비, 스페셜티 커피와 크래프트 브루어리의 세계를 내게 처음 알려 준 2000년대 중·후반의 포틀랜드는 이 데아이자 오랜 짝사랑의 대상이었다. 인터뷰를 위해 찾은 카페 겸 갤러리와 빈티지 상점인 바카를

(Vacarme)에서 추측은 확신이 됐다. 그곳을 운영하는 모린의 말 때문이다.

“우리는 패스트 패션보다는 유즈드 패션을, 대기업보다는 지역 브랜드를, 편리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어디나 그렇듯 독립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꿈과 비즈니스를 펼치기란 쉽지 않지만 적어도 렌에선 ‘함께 투쟁한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웃들의 지지도 큰 힘이 되고요. 바카를 역시 제로 웨이스트 브랜드와 함께 일하며 브르타뉴 지역의 창작자들에게 공간을 내주고 있습니다.”

렌에서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썩기를 막은 존재는 오텔 파스퇴르(Hôtel Pasteur)였다. 시청사, 오페라하우스, 성당 같은 고전적인 장소를 건너뛰고 렌의 ‘지금’을 만나고 싶다는 말에 가이드 매들린이 우리를 데려간 곳이다. 19세기에 건축한 네오클래식 양식의 육중한 석조 건물은 원래 과학·치의학 대학 및 병원으로 쓰였다. 2013년 프랑스 건축가 파트리크 부생(Patrick Bouchain)이 주도한 ‘움직이는 대학교’ 프로젝트, 유니버시티 포렌(Université Foraine)의 일환으로 지금 모습이 됐다. 오텔 파스퇴르가 특별한 건, 이곳이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마을 회관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프로젝트 호텔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렌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엇이든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험실이에요. 옛 건축 유산을 지키기 위해 공간에 고정된, 특정한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필요한 쓰임새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죠.” 온갖 종류의 공유 공간을 취재해 봤지만 이런 곳은 본 적이 없어서 그의 설명이 모호하게 느껴졌다. “그럼 여길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커뮤니티 스페이스?” 대답 대신 매들린이 벽에 붙은 문구를 가리킨다. “당신이 실험가든, 창작자든,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한 사람이든, 혹은 포스터를 만들고 싶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거나, 그냥 무언가가 궁금하다면 오픈 랩의 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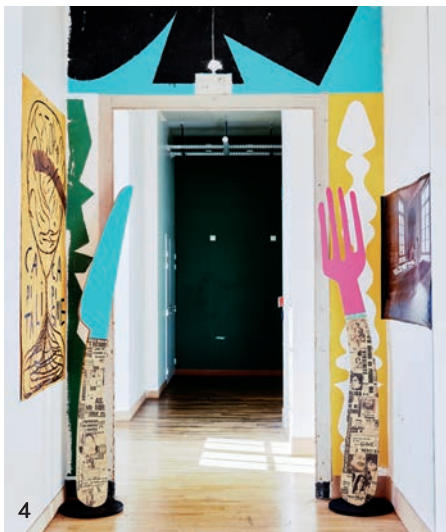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곳

통역을 마친 매들린이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이어 갔다. “누구나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어느 날 문득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춤을 추고 싶을 때, 혹은 여행에서 찍은 영상을 편집해 브이로그를 제작해 보고 싶을 때 렌 주민들은 여기에 와요. 글을 쓸 작업실이 필요하면 넓은 방 안의 빈 책상에 앉으면 되고, 뭔가를 함께 해 볼 구성원이 필요하면 칠판에 공고를 붙이면 되고요. 이곳에선 누구나 창작자, 기획자,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직업 같은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한마디로 쓰는 사람이 공간을 정의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플랫폼이죠. 게다가 365일 열려 있어요.” 누구나 식재료를 가져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유 주방과 노숙자든 부자든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돌봄과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에콜 파스퇴르까지 둘러본 후 부러움을 가득 안고 바깥으로 나왔다.

내가 렌에서 찾은 건각과 형태가 번듯한 예술적 장소와 순간들이었지만 이 도시가 내게 보여준 건 이런 장면들. 시청사와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메리(Mairie) 광장 한복판에서 와인 박스에 대충 책을 쌓아 두고 독서에 여념 없는 거리 서점 주인, 100년 된 아르데코 건축물 안, 오도리코 가문의 모자이크 작품 위에서 방과 후 수영을 즐기는 동네 아이들. 렌 사람들에게 예술은 이런 것이다. 삶 속에서 숨 쉬듯 접하며 거창한 의욕이나 심오한 결단 같은 것 없이 평범하게 즐기는 일상. 수 세기를 건너온 아르데코 양식의 건물에 입주한 100년 된 주민센터 수영장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일렉트로닉 밴드 쿠르투아지(Courtoisie)가 콘서트와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벽보를 보고 나서는 진짜 ‘쿨’이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



1대학 도시로 불리는 도시답게 거리 곳곳에 젊고 활기찬 로컬들이 넘친다. 21925년에 문을 연 렌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서점. 르 파예의 안쪽 풍경. 3오도리코 가문의 모자이크로 장식된 라 크리에. 지금은 갤러리와 시장이 들어서 있다. 4렌의 창의적인 실험실이자 커뮤니티 공간, 오텔 파스퇴르.



렌의 ‘쿨’을 만나고 싶다면

1. 스트리트 아트 탐험

렌은 프랑스에서 힙합 문화가 비교적 일찍 유입된 도시 중 하나다. 1990년대부터 ‘WAR!’ ‘인베이다’ 같은 세계적인 스트리트 아티스트가 이곳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폐공장 담벼락, 낡은 건축물 외벽에 게릴라처럼 흔적을 남기는 예술가가 많아지자 2002년부터 시차원에서 합법적인 캔버스를 제공하고 거리예술 축제를 열면서 스트리트 아트 신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거리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다면 900미터에 달하는 담벼락을 캔버스로 만든 콜롬비에(Colombier) 대로나 시내의 빅토르 위고(Victor Hugo) 거리를 찾을 것. 정확한 위치는 거리예술 축제 ‘틴 에이지 킱스 비엔날레(Teenage Kicks Biennale)’의 공식 홈페이지(www.teenagekicks.org)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참고하면 된다. 시청사 앞 관광 안내소 ‘데스티네이션 렌(Destination Rennes)’에선 90분~2시간 코스의 스트리트 아트 투어도 진행한다.

2. 음악 축제 찾기

실험, 독립성, 비주류를 추구하는 분위기는 이 도시의 다채로운 음악 신에도 영향을 미쳤다. 매년 12월 초에 열리는 ‘트랑스 뮌지칼 드 렌(Trans Musicales de Rennes)’은 록, 일렉트로닉, 힙합, 레게,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세계적인 뮤지션이 방문하는 페스티벌이다. 그밖에 음악이시, 연극과 함께 어우러지는 ‘페스티벌 미토스(Festival Mythos)’, 재즈, 스윙 등의 선율이 가을밤을 채우는 ‘자즈 아뤼스트(Jazz à l'Ouest)’, 도시 곳곳이 댄스 플로어가 되는 일렉트로닉 축제 ‘메이드 페스티벌(Made Festival)’ 등이 렌의 사계를 채운다.

3. 차원 다른 갈레트 맛보기

프랑스를 여행할 때 한 번 꼭 맛보는 갈레트는 브르타뉴 지역의 전통 음식이다. 렌은 브르타뉴의 주도로 정통 갈레트의 본고장이다. 메밀 가루 100퍼센트인 렌 스타일의 갈레트 중 씹살하면서 고소함이 특징인 갈레트 콩플레(Galette Complète)를 꼭 맛볼 것. 반죽을 넓게 펴서 익힌 후 신선한 달걀과 에멘탈 치즈를 얹어 만든다. 산미가 강하고 드라이한 로컬 시드르(사과주)를 곁들이면 완벽한 브르타뉴식 한 끼를 경험할 수 있다.

사심 가득 태안 1박 2일 여행

보고 먹고 걷기도 하며 느긋하게 보낸 1박 2일, 따라 하고 싶은,
순도 100퍼센트의 충남 태안 여행기를 소개한다.



서해바다가내주는제철먹거리

온전한 썬이 목적이었던 N번 차 태안 여행이 사진 실장 동행 출장으로 둔갑한 건, 찾으려면 찾을수록 혼자 알기 아까운 곳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먹거리·볼거리·숙소, 여행의 3대 조건이자 즐거움이 하나둘 자리 잡아 갔고, 1박 2일 스케줄이 완성됐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70년 전통의 중국 음식점 신태루. 태안읍 동문리 태안동부시장 옆에 있어 태안 여행의 시작과 끝에 허기를 달래기 좋다. 인기 메뉴는 육짬뽕과 짜장면. 길쭉하게 썬 돼지고기와 바지락을 듬뿍 넣고 각종 채소를 추가해 끓인 육짬뽕은 육개장처럼 목적하면서 칼칼한 국물이 속을 시원하게 풀어 준다. 짜장면은 손칼국수처럼 통통한 면발에 춘장이 잘 배어 있고, 달콤함이 입에 착 감겨 젓가락질이 멈추질 않는다. 테이블마다 빠지지 않는 또 다른 메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막' 스타일 탕수육. 고소한 고기튀김에 케첩 맛의 진한 소스가 어우러져 짬뽕이나 짜장면에 곁들이면 궁합이 딱 맞는다. 신태루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배를 든든히 채운 후 찾은 곳은 백사장어촌계수산물시장. 77번 국도를 타고 남쪽으로 30여 분 달려 안면대교를 지나자 드르니항과 백사장항을 잇는 꽃게다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높이 30미터, 길이 250미터의 해상 인도교, 달팽이처럼 돌돌 말려 올라가는 보행로를 따라 꽃게다리에 오르자 바닷물이 멀리 밀려나 바닥을 드러낸 서해바다가 은은한 갈색빛의 모래섬처럼 보인다. 충천연색 갯벌을 휘날리며 정박한 고깃배들과 바람에 실려 오는 바다내음. 태안에 온 것이 이제야 실감 난다. 바닷바람을 담뱃안은 채 들어선 백사장어촌계수산물시장은 제철 수산물을 찾아 모여든 여행자들로 북적인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석화와 먹물을 까맣게 뒤집어쓴 갑오징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금풍선이까지, 발길 닿는 곳마다 신선한 해산물이 넘쳐난다. 태안 출신 개그맨 이영자가 추억의 음식이라며 소개한 우럭포도 겨울 별을 받으며 꾸덕꾸덕 마르고 있다. 너무 맛있어서 새서방에게만 준다는 금풍선을 욕심껏 산 후 의항리로 향했다.



주소 충남 태안읍 시정5길 43(신태루) 문의 041-673-8901



동선과 물때를 확인하자

충남 서북부에 자리한 태안군은 남쪽으로 안면도를 거느린 길쭉한 지형이다. 길이가 무려 80킬로미터에 달해 목적지 간 이동 거리와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오후 5시만 넘으면 해가 저금세 어두워지니 욕심부려 스케줄을 짜지 않도록 한다. 태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 지역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한다. 바닷물이 들고 나는 때 따라 구불구불한 갯벌이 드러나거나 작은 섬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간조 때 해안에 들어갔다가 만조가 되어 고립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도록 한다.



주소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1길 126(백사장어촌계수산물시장)



주소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의로 695-9(탄 한옥비치리조트) 문의 0507-1483-8031



바닷가한옥호텔,고즈넉한겨울밤의낭만

이번 태안 여행의 숙소는 탄 한옥비치리조트. 의항해수욕장 옆 송의로를 따라 들어가니 야트막한 언덕에 한옥 마을처럼 보이는 호텔이 모습을 드러낸다. 탄 한옥비치리조트는 로컬 커뮤니티 라이프스타일 호텔 브랜드 ‘호텔어라이브’가 서울 을지로의 틈, 전북 전주의 시화연풍에 이어 세 번째 선보인 호텔이다. ‘탄’은 충청도 방언으로 태안을 뜻한다. 의항해수욕장을 앞에 두고 소나무 숲이 바닷바람을 막아 주는 곳에 자리한 이 호텔은 프라이빗 마당을 갖춘 한옥 독채 22채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에디터가 묵은 곳은 윤슬.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뜻하는 ‘윤슬’이라는 객실 이름이 인상적인데 하늘, 바다, 구름, 풀꽃 등 다른 객실 이름도 모두 사랑스럽다. 전형적인 한옥 형태인 윤슬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안쪽으로 거실과 주방, 침실, 욕실 그리고 차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길이 잘 든 마루의 부드러운 질감, 단아한 가구와 따스한 조명. 테이블에는 태안 특산품인 감태로 만든 한과와 드립 커피, 태안산 요거트와 그레놀라로 구성된 조식 세트가 놓여 있다. 호텔이라기보다는 한옥을 사랑하는 이의 집 에 초대받은 기분이다. 이 호텔의 다른 공간도 알아볼 겸

산책에 나섰다. 돌담과 기와지붕이 마주한 한옥 사이 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니 탄라운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체크인 카운터이자 호텔어라이브가 큐레이션한 휴식 콘텐츠 ‘느긋’을 즐기는 공간이다. 싱잉볼과 요가 매트, 책, 보드게임 등 휴식을 돕는 아이템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대여도 가능하다. 탄라운지는 서해의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뷰 포인트이기도 하다. 해가 지는 의항해수욕장 방향으로 빈백이 놓여 있어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좋다. 라운지 한편에는 천체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라운지를 나와 객실로 돌아오니 어느새 뉘엿뉘엿해가고 있었다. 탄 한옥비치리조트에 온 이유 중 하나인 불멍을 하기 위해 화로에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장작에 불이 붙자 따스한 온기가 주위를 감싼다. 태안 특산물 호박고구마라도 몇 개 사 올걸, 어느새 숯으로 변한 장작을 보자 아쉬움이 밀려온다. 출출해진 배를 채우기 위해 찾은 곳은 호텔 초입에 자리한 라이프스타일 숍(24시간 무인 운영). 태안 로컬 푸드와 과자, 컵라면에 전통주까지 밤참으로 딱 좋은 메뉴가 가득하다. 한겨울의 알싸한 공기가 흐르는 밤, 따끈한 컵라면으로 몸을 데운 후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탄 한옥비치리조트의 또 다른 객실이 궁금하다면

탄 한옥비치리조트에는 윤슬, 바다, 풀꽃, 하늘, 큰구름, 작은구름, 머뭄, 땡땡 등 8종의 객실 타입이 있다. 이 중 ‘하늘’은 모던한 분위기의 현대식 한옥. LP 플레이어와 클립쉬 스피커가 설치된 와인 바 스테이션이 있어 프라이빗 파티를 열기 적당하고, 개별 티룸에서는 다도와 싱잉볼을 즐기기에 좋다. ‘큰구름’은 현대식 한옥의 모던한 분위기와 편리함을 갖추었다. ‘작은구름’은 스튜디오형 객실로 한옥의 멋스러움에 편리함을 더했다. 펫 프렌들리 호텔을 지향해 반려견과 머물 수 있는 ‘머뭄’과 ‘땡땡’도 마련했다. 객실에 반려견용 계단과 배변패드, 욕조 등이 준비되어 있다.





둘째날 — 의항해수욕장 ————— 천리포수목원 ————— 파도리해식동굴 ————— 태안바지락해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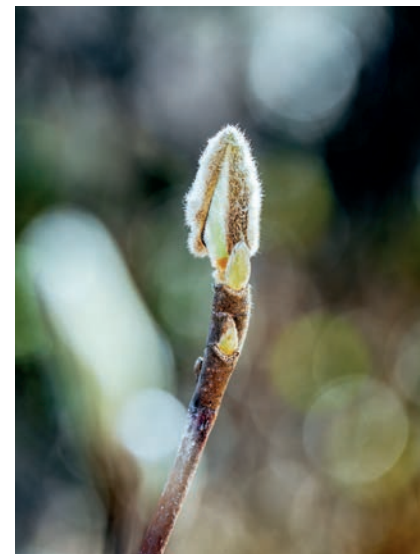
꽃과나무,새와바람의집,천리포수목원

다음날아침,전면이통유리로된차실너머로주홍빛햇살이희미하게번져온다.아늑한침대방과네명이구르며자도넉넉한온돌방을두고굳이차실에서잠이든건바로이아침햇살을가장먼저마주하고싶었기때문이다.맑게닦인창밖으로유리실로폰처럼투명한새소리가갯가를울린다.

아침식사로요거트에고소한그래놀라를부어오독오독씹어먹고커피를마신후호텔바로앞에있는의항해수욕장으로발걸음을옮겼다.집에서라면엄두도못냈을아침산책을하기위해서다.마침바닷물이빠져나가는간조때라변화무쌍한바다의움직임이선명하게눈에들어온다.무섭게들이치던파도가저만치물러나고촉촉히젖은바다의밀바닥이드러나자붕우리만보이던무인도도물에서걸어나온듯제모습을보여준다.끝없이넓어진모래사장을걸으니깊은바닷속으로내려가는것만같다.

한옥에서의하룻밤을소중히간직한채천리포수목원으로향했다.천리포수목원은국내최초민간수목원.푸른눈의한국인민병갈이1979년에개원했고,2000년아시아최초‘세계의아름다운수목원’으로인증받았다.본래연구목적의비개방수목원이었는데2009년밀러가든만일반에공개했다.밀러가든규모는약6만6000제곱미터(2만여평).이곳을개방한덕분에꼭꼭숨어있는천리포수목원의아름다움을사계절느낄수있게됐다.천리포수목원의비공개수목원은그보다9배나넓은60만제곱미터에달한다.심지어천리포해수욕장앞바다의낭새섬도천리포수목원의일부다.

고맙게도시간을내준황금비나무의사의안내를받아건강초지원,왜성침엽수원,호랑가시나무원,겨울정원,회귀·멸종위기식물온실,노을쉼터등천리포수목원곳곳을둘러봤다.연한분홍색꽃이언뜻장미처럼보이는애기동백,새빨간열매가달린호랑가시나무,춧볼같은봉오리에보드라운솜털이난목련,그리고겨울에더색



수목원에서의 하룻밤

천리포수목원에는숙박시설도있다.이름하여가든스테이.기와집과초가집으로된독채타입의‘가든하우스’와유스호스텔형태의‘에코힐링센터’로이루어져있다.이중가든하우스는총8채로,주변의나무이름을따호랑가시나무집,빛나무집,다정큼나무집,배롱나무집등으로부른다.가든스테이를이용할경우천리포수목원입장은무료다.



주소충남태안군소원면천리포길187(천리포수목원)문의041-672-9982



주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5(태안바지락해장국)
문의 0507-1393-8252

이 짙어지는 흰말채나무 등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보며 걷는 길이 마냥 즐겁다. 그중 특히 인상에 남은 수종은 희귀·멸종위기식물 온실에서 본 올레미소나무. 2억 년 전 쥐라기부터 생존해 온,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상록침엽 수종으로 1995년 호주 시드니 올레미 국립공원에서 발견되어 '올레미소나무' 또는 '공룡소나무'라 부른다.

천리포수목원 온실에서 자라는 올레미소나무는 지난해 10월 국내 처음으로 열매를 맺어 크게 화제가 되었다. 올레미소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뽕족한 가지 끝에 귀여운 술방울이 매달려 있다. 겨울나기를 위해 날아온 철새가 등지를 틀고, 친환경 오리농법의 일꾼이자 수목원 가족인 오리가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는 풍경. 푸근하고 평화로운 장면들에 자꾸만 시선이 멈춘다.

파도가 만든 해식동굴, 얼큰한 바지락해장국

목련이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봄에 꼭 다시 오리라 다짐한 후 천리포수목원을 나와 파도리해수욕장으로 향했다. 태안 여행 인증 사진 스폿으로 빠지지 않는 해식동굴을 보기 위해서다. 넓게 드러난 백사장을 걸어 칼로 탁탁 쳐 낸 듯한 갯바위를 지나자 뒤편으로 아치형 문처럼 생긴 해식동굴이 모습을 드러낸다. 안쪽으로 들어서니 가운데 기둥 양쪽으로 두 개의 길쭉한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너머로 잔잔한 수평선이 눈높이에 걸린다. 진귀한 그 장면을 놓

칠세라 두 팔을 뻗고 강충 뛰기도 하며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 그 모습이 마냥 즐거워 보인다.

태안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한 곳은 '태안바지락해장국'. 바지락칼국수였다면 굳이 발걸음하지 않았을 텐데, 바지락으로 만든 해장국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위치도 태안에서 서산으로 향하는 서해로 길목 대로변에 있어 집으로 가기 전 배를 채우기 딱 좋겠다 싶었다. 이곳의 메뉴는 원조 바지락해장국, 바지락내장탕, 바지락고기완자 세 가지. 이 중 원조 바지락해장국을 주문하니 씨알이 크고 싱싱한 바지락에 시래기를 듬뿍 넣어 끓인 해장국에 시래기 밥과 바지락 장, 알타리 장아찌, 낙지 젓갈이 곁들여 나온다. 먼저 시래기 밥에 바지락 장을 넣어 살살 비벼 먹으니 달콤하고 촉촉한 맛이 식욕을 끌어당긴다.

하이라이트는 해장국에 말아 먹는 밥. 묵직하면서 시원하고, 칼칼하면서 텅텅하지 않은 국물이 먹을수록 끌려 연신 배부르다 하면서도 결국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오독한 식감에 새콤달콤한 알타리 장아찌를 밥 위에 올려 먹는 맛도 일품. 즐거운 바지락 살을 발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태안바지락해장국에 가려면 운영 시간을 꼭 알아둘 것. 술보다는 식사에 집중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딱 7시간만 운영한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만족스러운 1박 2일 여행. 태안의 겨울이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made in

한국철도공사와 함께하는 인구 감소 지역 여행 프로젝트

첫 번째 이야기, 태백

TAEBAEK

no.13

베이크우드 & 체크인-태백

어떻게 하면 지역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살아갈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태백 시내 중심에 등지를 뜬 게스트 하우스 베이크우드스테이와 목공 카페 베이크우드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이곳을 이끄는 사람은 강원랜드 목공예 사내 벤처 '우드리즘'을 운영하던 김봉희 대표. 베이크우드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개발한 카펜터 라테와 우드리즘에서 만든 원목 소품도 판매한다. 베이크우드스테이에서는 태백 청년을 대상으로 한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최근에는 여행자와 로컬을 잇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자 베이크우드 내에 태백 여행 안내소 '체크인-태백'을 열었다. 체크인-태백에서 제공하는 여행 팁은 무궁무진하다. 지도는 물론, 태백의 다양한 공방과 로컬 브랜드를 소개해 준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지금 태백 접속 중'이란 글귀가 적힌 우드 태그에 이름과 날짜를 각인해 준다. 나아가 태백 문화와 스토리가 담긴 여행 상품 '팔레트 태백'도 널리 알리는 중이다. 팔레트 태백은 '나의 색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콘셉트로 하 늘과 가까운 고원 도시 태백의 특색을 살려 은하수 전문 사진작가가 동행하는 은하수 산책, 한옥을 개조한 티룸 '안녕 소옥'에서 진행하는 티 테라피 등 로컬과 함께하는 여행 상품이다. 태백 여행을 시작하기 전 체크인-태백에서 얻은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다.

주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204-1 문의 033-554-0515

2



interview

이수미 체크인-태백 매니저

체크인-태백은 어떤 곳인가요?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하는 마을 특성화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 곳입니다. 단순한 여행 안내소가 아니라 여행자와 지역 청년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죠. 태백을 처음 찾는 여행객이 이곳에서 여행 코스를 추천받고,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 지역 상권을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아날로그로 만들어 주는 것이 흥미로워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나무로 제작해 여행자 이름과 여행 온 날짜를 각인해 드리는데, 반응이 좋아요. 태백 방문을 인증하듯 사진을 찍어 SNS에 많이 올리죠.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QR코드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로컬 상점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행 상품도 소개했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지리리골 자작나무 숲에서 소리를 들으며 걷는 사운드 워킹은 '힐링이 된다'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저도 별을 보러 가는 은하수 산책에 참가했는데, 태백의 밤하늘이 환상적 이더라고요. 올해에는 더 알차고 다양한 로컬 여행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3



4



- 1 체크인-태백에선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나무로 제작해 준다.
- 2 태백을 찾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명소가 된 베이크우드 카페.
- 3 베이크우드 2층은 우드리즘 공방 겸 체크인-태백의 홍보관으로 쓰이고 있다.
- 4 체크인-태백에서 소개하는 태백의 공방과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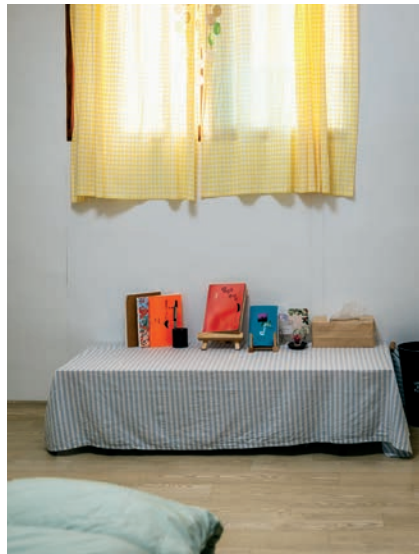


1

- 1 책으로 이루어진 아치형 문 안으로 들어서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진다.
- 2 시시한 책방에서 큐레이션한 책들.
- 3 시시한 책방에서 운영하는 북스테이.
- 4 서가에서 만난 로컬 작가가 출간한 책들.
- 5 주태백에 자리한 시시한 책방 외관.



2



3



4

태백의 인문학
아지트

시시한 책방

시시한 책방은 태백 주민들의 인문학 공동체 '인향만리'에서 운영하는 서점이다. 이름은 시시한 책방이지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결코 시시하지 않다. 나만의 책 만들기, 필사 모임, 시 낭송이 있는 저녁 등 책 관련 모임은 물론 싱잉볼 체험, 음악회 같은 특별한 이벤트도 연다. 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태백의 역사, 문화, 지리, 환경, 생태 자원 등을 다룬 지역 교과서 <최고야 태백>을 펴내기도 했다. 시인, 간호사, 농부, 요리사 등 인향만리 회원들의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무궁무진하다. 회원들은 돌아가며 책방지기 역할도 한다.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공간인 만큼 서가에 꽂힌 책의 수준도 예상치 않는다. 아예 책 속에 파묻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서점에서 운영하는 북스테이 '시시한 스테이'를 이용해도 좋다. 와이파이나 TV 없이 오직 책에 집중하기 좋은 공간에서 책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이곳에 머물다 보면 읽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주소 강원도 태백시 서학1길 110-1
문의 0507-1460-1413

5





1

석탄 산업 호황기의 추억

철암탄광역사촌

1970년대 석탄 산업 호황기에 철암은 광부들에게 막장으로 향하는 위험한 일터이자 고임금이 보장된 기회의 땅이었다. 개도 1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였다. 현재 광부들은 떠났지만 호남수퍼, 봉화식당, 한양다방 등이 빛바랜 간판을 내걸고 철암을 지키고 있다. 철 지난 노포 같지만 석탄 산업과 광부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철암탄광역사촌이다. 호남수퍼 안에는 그 시절 선술집과 마을 골목, 가정집 풍경이 펼쳐진다. 경북식당에서는 미니 연탄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석탄 가루를 연탄 틀에 넣고 망치로 툭툭 두드리면 구멍 뚫린 연탄이 완성된다. 신설교 위를 걸어 철암천변을 건너면 아이를 등에 업고 손을 흔드는 아내와 가족을 향해 인사를 건네는 광부의 뒷모습이 포착된다. 철암천변을 따라 늘어선 건물들은 모두 까치발 건물이다. 광부는 늘어나는데 집은 부족해 하천 바닥에 까치발이라 부르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주거 공간을 확장해 지층에 사람이 살았다. 철암천변을 따라 언덕을 오르면 삼방동 전망대에 닿는다. 이곳에서 서면 광부 아버지와 아들 조형물 너머로 철암역과 연결된 선탄 시설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선탄 시설은 장성광업소에서 지하 터널로 보낸 원탄을 가공해 화물차에 싣던 곳이다.

주소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402 문의 033-582-8070

2



3

5



- 1 산방동 전망대 풍경.
- 2 출근하는 광부가 아이를 업은 아내를 향해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마음이 먹먹해진다.
- 3 호남수퍼 안에 재현한 1970년대 철암의 가정집.
- 4 철암탄광역사촌 곳곳에서 보이는 광부 동상.
- 5 언뜻 폐업한 가게처럼 보여도 안에는 철암탄광역사촌의 전시관이 숨어 있다.

4



황지연못 & 지지리골 자작나무 숲



1

고원 도시 태백의 자연에서는 생명력이 느껴진다. 차가운 겨울에도 태백 시내 한가운데 자리한 황지연못에서는 날마다 5000톤의 물이 솟아오른다. 카르스트지형이다 보니 비와 눈이 석회암 틈을 따라 지하로 흘러들어 황지연못에서 용출되는 곳이 바로 낙동강의 발원지다. 황지연못에서 솟은 맑은 물줄기는 자연이 만든 석문, 구문소를 거쳐 경복 안동과 대구를 지나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검은 탄가루로 뒤덮인 탄광이 사라진 자리에는 순백의 자작나무 숲이 들어섰다. 태백 지지리골 자작나무 숲 이야기다. 태백시는 1998년 폐광한 함태탄광 자리에 자작나무를 심어 순백의 자연을 입혔다. 하이원태백복지관 옆 언덕길을 따라 30분 남짓 걷다 보면 울창한 자작나무 숲이 펼쳐진다. 입구에 놓인 광차가 이곳이 탄광이 있던 자리임을 짐작케 한다. 탄광 시절 육교를 침터로 개조한 아리아리교를 건너 뽀뽀한 자작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자작나무의 속삭임만이 귓가에 맴돈다. 지지리골 숲길 트레킹을 하다 보면 석탄을 실은 차들이 달리던 운탄고도 1330 6길도 만나게 된다.

주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연못길 12(황지연못), 지지리골길 17(지지리골 자작나무 숲)
문의 033-550-2111(황지연못)



2



3

- 1 함태탄광의 흔적이 남지 않은 지지리골 자작나무 숲.
- 2 숲 입구에 서 있는 광차를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
- 3 곳곳에 자작나무가 빼곡하다.
- 4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4





1



2



3

- 1 문곡역1962의
시그너처 메뉴 김치볶음밥.
- 2 문곡역1962에서 맛보는
한우 연탄구이.
- 3 문곡역 사무실을
개조한 식당.
- 4 연탄이 쌓여 있는
문곡역1962 외부 풍경.
- 5 옛 대합실에서 문곡역1962
밖으로 지나가는 기차를
볼 수 있다.



4

추억의 한우 연탄구이 문곡역1962

태백의 한우 연탄구이는 탄광 도시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태백이 탄광 도시로 명성을 날리던 시절, 광부들은 목에 낀 탄가루를 씻어 내려고 연탄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날리곤 했다. 태백에 연탄구이 식당이 많은 이유다. 그중 문곡역1962는 옛 기차역 자리에서 한우 연탄구이를 파는 이색 식당이다. 함태탄광과 가까운 문곡역은 1962년 개통 이래 무연탄을 실어 나르는 열차가 정차하던 역이었다. 인근 상장동 사택촌에 사는 광부와 태백산 등산객도 즐겨 찾았다. 석탄 산업이 쇠락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 끊겼고 문곡역은 2009년에 폐역이 됐다.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는 역에 숨결을 불어넣은 이는 이지영 문곡역1962 대표다. 그는 문곡역을 태백의 역사와 미식을 전하는 플랫폼으로 변모시켰다. '타는 곳' 팻말이 붙어 있는 대합실은 식사 전후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문곡역의 사무실은 한우 연탄구이를 파는 식당으로 꾸몄다. 한우 갈빗살이나 안창살을 주문하면 한자로 태백산 글자가 새겨진 송이버섯을 함께 내는데 태백산 정상의 비석을 똑 닮았다. 질 좋은 태백 한우를 숯불보다 화력이 센 연탄불에 구우면 육즙이 쫄면 없이 딱 차 극강의 고소한 맛이 난다. 문곡역1962의 또 다른 시그너처 메뉴는 김치볶음밥. 네모난 도시락에 담은 연탄 모양 김치볶음밥이 눈을 즐겁게 한다. 이 겨울, 연탄불 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온기를 나눠 보면 어떨까.

주소 강원도 태백시 상장로 61 문의 0507-1362-9048

5





1

사슴과 교감하는 놀이터

초록뿔언덕 사슴목장

“사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곳에 사람들이 잠시 들어와서 교감할 수 있어요.” 대를 이어 초록뿔언덕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이상봉 대표의 말이다. 이곳에는 무려 200여 마리의 꽃사슴이 살고 있다. 청청한 기운이 감도는 30만 제곱미터 고원에서 마음껏 뛰노는 꽃사슴 무리가 인상적이다. 초록뿔언덕 사슴목장은 30년 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방목 사육을 고수했다. 스트레스 없이 자란 사슴의 녹용을 팔기 위해서였다. 대학생 시절부터 목장에서 일하며 가업을 이어받은 이 대표는 목장에 관광을 접목시키기 위해 방목 사육에서 방목 생태 축산 목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태백을 찾은 여행자가 자연 방목하는 꽃사슴을 볼 수 있도록 방목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언덕 위에 전망대를 설치했다. 목장에서 여유롭게 쉬어 갈 수 있도록 2023년엔 초록뿔언덕 카페도 오픈했다. 삼면을 유리로 마감해 초원에서 뛰노는 꽃사슴이 생생하게 보인다. 말차크림라테에 사슴뿔 모양 스푼을 꽂은 초록뿔라테와 쌍화차에 녹용이 들어간 쌍용차 등 메뉴에도 사슴 농장의 정체성을 담았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귀여운 꽃사슴을 눈에 담은 일은 초록뿔언덕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다. 오후 3시, 먹이 주는 시간에 목장을 걸으면 더욱 가까이서 꽃사슴과 눈을 맞출 수 있다.

주소 강원도 태백시 고원로 369 인스타그램 @greenppul_deer



2



interview

이상봉 초록뿔언덕 사슴목장 대표

사슴 목장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애초에 농장을 방목 생태 축산과 관광이 모두 가능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농장으로 자리 잡으려면 휴식 및 식음 공간이 필요했죠. 2021년 '사슴을 볼 수 있는 카페'라는 컨셉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차근차근 베이커리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처음이라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아내는 제빵을 배우며 초록뿔언덕 카페에 어울리는 메뉴를 개발했어요. 관광객은 물론, 태백 시민의 반응도 좋아요. 초록뿔언덕 카페가 시민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들르는 카페로 자리매김하길 바라요. 앞으로 계획이 궁금해요. 일본 나라현의 사슴 공원처럼 만들고 싶어요. 무리에서 이탈한 사슴 '소금이'를 인공 포육했더니 강아지처럼 저만 졸졸 따라다녀요. 소금이처럼 사람과 교감하는 사슴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3



- 1 꽃사슴들이 목장을 자유롭게 거닐고 있다.
- 2 목장을 찾은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꽃사슴 무리.
- 3 카페에서 판매하는 초록뿔라테와 짝파크림 소금빵.
- 4 초록뿔언덕 카페 내부.

4





1

- 1 옛 갱도를 활용한 전시관 '기억을 품은 길'.
- 2 LED 조명으로 밝힌 터널 전시관.
- 3 암모나이트가 매장된 태백의 땅속 풍경을 표현한 벽화.
- 4 기억을 품은 길에선 광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전시로 관람할 수 있다.

2



태백산 자락에 자리한 통리탄탄파크는 폐광한 한보탄광을 산업 유산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예술로 승화시킨 공간이다. 깊고 어두운 갱도 두 곳이 터널형 전시관 '기억을 품은 길'과 '빛을 찾는 길'로 탈바꿈했다. 갱도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기억을 품은 길'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하고 고요한 공기가 감돈다. 안전모를 쓰고 석탄을 캐러 가던 광부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밝은 LED 조명과 인터랙티브 작품이 폐광의 어둠을 화려한 색과 움직임으로 채운다. '기억을 품은 길' 전시관에는 탄광이 생기기 전 고생대 화석의 보고인 태백의 땅속 풍경이 벽화로 조성되어 있다. 363미터 길이의 '기억을 품은 길' 밖으로 나오면 산책로인 천산 고도가 약 1킬로미터 뻗어 있다. 산책로 중간에 태백산 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탄탄카페가 있어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기도 좋다. 산책로 끝은 전시관 '빛을 찾는 길'로 이어진다. 갱도 안은 어둠을 걷어 내고 다채로운 빛과 인터랙티브 영상이 펼쳐지며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듯하다. 613미터 길이의 갱도라는 제한된 공간이 빛의 효과를 극대화해 몰입감을 선사한다.

주소 강원도 태백시 통골길 116-44 문의 033-806-5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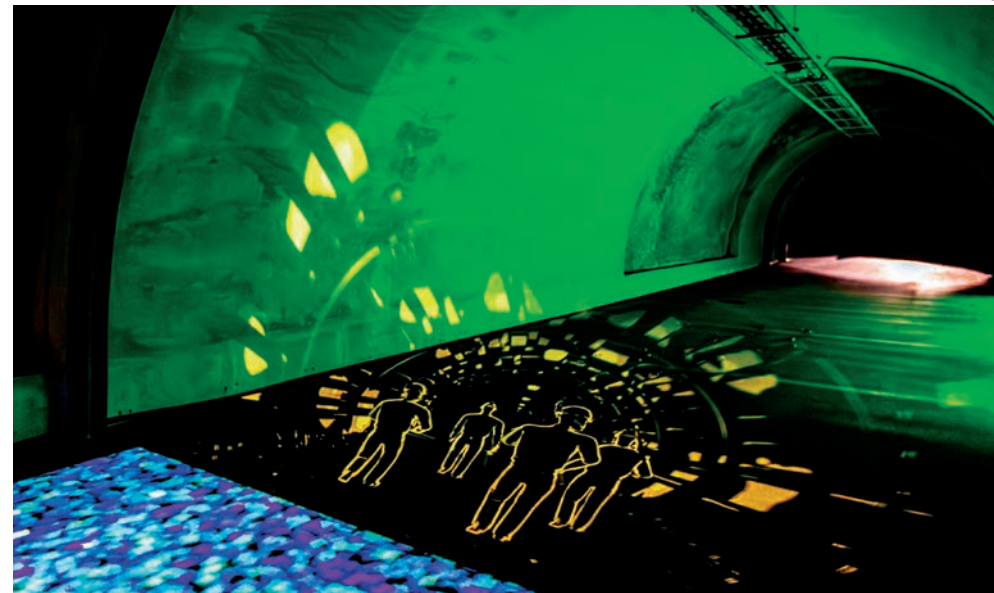
전시관으로 변모한 갱도

통리탄탄파크



3

4



TAEBAEK



KTX

MAGAZINE

베이크우드 & 체크인-태백

시시한 책방

철암탄광역사촌

항지연못 & 지지리골 자작나무 숲

문곡역1962

초록뽕언덕 사슴목장

통리탄탄파크

WRITER 우지경(여행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김은주

한국철도공사와 함께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태백 여행을 알뜰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지역사랑 철도여행' 관광 상품 이용하기.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여행 경비 부담 완화와 인구 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와 손잡고 내놓은 관광 상품이다. 자유여행, 패키지여행, 관광 열차 중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주요 관광지에서 방문 인증을 하면 열차 운임의 50퍼센트를 쿠폰으로 돌려준다. 한국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전국 40여 곳 강원도 태백도 포함된다. 따라서 태백 여행 시 자유여행 상품(열차 티켓)을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후 태백의 주요 관광지(태백석탄박물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통리탄탄파크, 오로라파크, 365세이프타운 등)에 들러 각 매표소에 부착된 QR코드로 방문 인증을 하면 된다.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KTX, ITX 등 열차 승차권 구매 시 사용 가능하다. **홈페이지** www.korail.com

지금 여기

한 옷으로 작품을 만드는 김은하작가 | 백남준아트센터의 조안 조나스 개인전 | 핸드팬 연주가 하택후와 함께한 소리 명상
이색 공공 도서관, 경기도서관 | 이방인의 한국 단골집 | 나 홀로 충남 공주 여행



지구의 은하



페루 아타카마 사막에는 거대한 쓰레기 산이 있다. 기부 또는 재활용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우리 옷장을 떠난 옷들의 무덤이다. 김은하 작가는 쓸모없어진 헌 옷으로 작품을 만든다. 그의 전시는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옷들의 장례식이다. 거창한 사명감으로 시작한 작업은 아니지만,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김은하 작가를 만났다.





1

1 졸업 전시에 출품해 영국인 컬렉터에게 판매된 'Bon appetit!'는 작가가 입던 헌 옷으로 만들었다. 2 헌 옷을 해체해 재료를 수집하고, 즉흥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낸다. 3 지속 가능한 일상을 추구하는 브랜드 라코스테와 협업한 'Improbable Genuine'. 4 유행 따라 쉽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과 화려하지만 영양가 없는 패스트푸드를 현대사회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들.



2



3

거짓말 같은 사건

기회는 스팸 메시지처럼 찾아왔다. 2019년 겨울, 인스타그램 DM이 도착했다. 졸업 전시에 출품한 작품을 영국에서 전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외국인이 한국 미술대학의 졸업 전시를 보고 학생 작품에 관심을 갖는다고?' 너무도 비현실적이라 스팸 메시지로 생각했지만 김은하 작가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답장을 보냈다. DM을 보낸 이는 영국의 미술 컬렉터이자 큐레이터인 데이비드·세레넬라 시클리타라 부부였다. 2008년 현대미술 후원 비영리기관 PCA(Parallel Contemporary Art)를 설립하고, 이듬해부터 한국 작가 후원 전시 〈코리안 아이(Korean Eye)〉를 주최해 온 이들이다. 교수님께 조안을 구했더니 축하 메시지와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주최하는 전시에 참여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컬렉터 부부에게 다시 메일이 왔다. 김은하 작가의 작품을 〈코리안 아이 2020 특별전: 창조성과 백일몽〉의 메인 포스터 이미지로 사용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김은하 작가의 패브릭 설치 작품 'Bon appetit!(많이 드세요!)'는 컬렉터 부부에게 판매됐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국립 미술관과 영국 런던의 사치 갤러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등을 여행했다.

이웃에 사는 김은하

김은하 작가는 헌 옷을 재활용해 패브릭 작품을 만드는 현대미술가다. 버려진 옷이 후진국으로 수출돼 쓰레기처럼 방치되고, 동네 강아지들이 옷을 먹는 장면에 충격받아 헌 옷을 소재로 삼았다. 그렇게 시작한, 유행 따라 쉽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과 화려하지만 영양가 없는 패스트푸드를 현대사회에 빗대어 표현한 독창적인 작업으로 주목받았다. 졸업 전시가 열린 2019년 겨울, 김은하 작가는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었다. 학원을 다니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있었다.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독창성도 표현력도 부족해 전공인 서양화로는 전업 작가가 될 수 없었기에 택한 현실적인 타협이었다. 그러다 유명 컬렉터에게 작품이 판매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미래를 위해 착실하게 기술을 익힐 것인가, 꿈꿔 왔던 작가가 될 것인가. 오랫동안 놀이처럼 패브릭 작업을 해 왔기에 만들고 싶은 것이 많았다. 결국 미술 학원 강사로 입시 미술을 가르치며 개인 작업을 지속했다. 좁은 작업실에서 헌 옷과 씨름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먼지처럼 시간이 쌓였다. 세상도 움직였다. 쓸모를 잃은 헌 옷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에 주목하는 이가 많아졌고, 지속 가능한 일상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협업 제안도 늘었다. 현대미술가나 패브릭 작가라는 타이틀 외에도 재활용 작가, 기후 활동가라는 수식이 붙었다. 자연스럽게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고, 그 고민이 김은하의 방식으로 작품에 담기기 시작했다.

헌 옷으로 작업하면서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고, 알록달록하고 경쾌한 작품 이면에 그 고민을 담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구에 김은하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4

졸업 전시에서 판매된 ‘Bonapetit’는 대형 햄버거 모형이었어요. 어떻게 만든 작품인가요?

원래 패브릭 작업을 했어요. 유행 지난 청바지나 작아서 못 입는 옷으로 에코백이나 스커트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패브릭으로 손바닥보다 작은 오브제를 만들었죠. 졸업 전시에 출품할 작품을 고민하다가 좋아하는 작업의 크기를 키워 보기로 했어요. 재료를 찾기 위해 옷장을 뒤져 안 입는 옷들을 꺼냈죠. 초등학교 때 입던 옷, 학창 시절에 단체로 맞춘 ‘반티’ 같은 앞으로 절대 입지 않을 옷이 많았어요. 알록달록한 옷이 쌓여 있는 모습이 꼭 햄버거 같더라고요.

이전에도 패브릭으로 작업했다고 했는데 어떤 작업이었나요?

그때도 햄버거와 피자를 만들었어요. 형식은 조금 달랐죠. 서양화 전공자이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작업을 전공과 연결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패브릭으로 형태를 만들고 유화 물감으로 칠했죠. 그런데 기대했던 미감이 구현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패브릭의 다양한 질감과 색감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착시를 일으키면 재밌겠다는 생각으로 실제 크기로 제작한 햄버거를 학교 구내식당에 전시하기도 했어요. 음식인데 못 먹는 음식인 거죠.

서양화 전공자의 스케치 능력은 어떻게 발산하고 있나요?

계획적으로 스케치하고 재료를 고른 다음 작업하면 좋겠지만, 사실 제 작업은 즉흥적이에요. 즉흥적인 변화가 뭉쳐져 완성되는 과정이 재미있어요. 좀 더 회화적이죠. 재료도 정해 두지 않고 비교해 보면서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요. 시행착오가 많죠. 어울릴 것 같아 꿰매거나 붙였는데 안 어울리면 뜯어 내고, 더 잘 어울리는 걸 발견하면 수정하고.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시 미술을 예로 들면, 소위 말하는 합격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같은 결과에 이르는 다른 과정을 좋아했어요.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고 많이 혼났죠. 그런데 과정이 다를 뿐 결과물은 같거든요. 이런 방식이 제가 오랫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인데, 그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어요. 패브릭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현 옷에 담긴 이야기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해요.

제 현 옷은 이제 없어요. 지인들이 옷장 정리를 하고 보내 주거나 지인의 지인이 보내 주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는 옷에 담긴 개인의 서사를 작업과 연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미를 담으려고 하니 작업이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고민 끝에 개인의 이야기를 담기보다 완성된 작품 사진을 보내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 옷 주인을 전시에 초대하기도 하는데, 작품 안에서 자신의 옷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다면서 좋아해요.

작품에 현 옷 주인만 알 수 있는 시그널을 남기기보다 작품으로 작가와 현 옷 주인, 관람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물론 타인의 현 옷으로 작업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택배로 보내면서 옷마다 설명을 붙여 보내는 분도 있고, 가까운 지인들은 전화로 옷에 얹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해요. 헤어진 남자 친구가 선물한 옷이라 입기도 버리기도 난감해서 보낸다는 분도 있고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고맙기도 하고 더 소중하게 다루게 돼요. 예쁜 작품으로 만들어 보여 주고 싶고요.

작가는 작품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나요?

부모님께선 늘 신문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싫어서 숙제처럼 읽었는데, 그 영향인지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해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뉴스가 들리면 귀 기울이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해요. 그렇다고 제가 환경운동가는 아니에요. 대단한 사명감으로 시작한 작업도 아니고 작업을 하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는 중이에요. 다만 현 옷을 소재로 삼으면서 옷에 담긴 사연을 접하게 돼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쓰레기 같아 보이는 물건도 쓸모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죠. 저에게 들려주는 사연을 스스로 한 번씩 곱씹으면 물건을 더 소중하게, 더 오래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자연을 재현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현 옷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환경오염 문제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생기고, 식물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어요. 무거운 주제를 위트 있게 풀어내는 방법을 고민했죠. 그러면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좀 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조금 엉뚱한 생태계를 상상하기도 해요. 현 옷을 다루다 보면 좀벌레가 많이 나오는데, 좀벌레는 섬유질을 양분으로 하거든요. 만약 아타카마 사막의 쓰레기 무덤처럼 세상이 버려진 옷으로 뒤덮인다면 좀벌레처럼 현 옷을 먹고 자라는 식물이 나타날 수도 있겠

다는 상상을 했어요. 일종의 돌연변이 곰팡이처럼요. 그러다 천연섬유에 곰팡이처럼 버섯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독버섯을 만든 거예요. 지구에서 태양이 멀어지고 있대요. 언젠가는 빛을 흡수하는 양이 줄어 식물의 색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채색의 식물도 만들어 봤어요.

흔탁한 세상을 귀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귀엽고 예쁜 오브제를 만든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요? 작가님의 생태계는 디스토피아적이네요.

작업을 하면서 본심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상상력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비관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살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비관력’이 올라온 상태예요. 이대로라면 독버섯에 잡아먹힐 것 같아 멈춘 상태이고, 요즘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다시 세상을 귀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브랜드 협업은 작가님께 어떤 영향을 주나요?

협업을 제안하는 브랜드는 대체로 제 의견을 존중해 줘요. 물론 큰 틀은 상의하는데 자율성을 주죠. 혼자 작업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제가 도움을 받을 때도 많아요. 브랜드 담당자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저의 생각을 더 확장해 주는 느낌이랄까. 물론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요즘 어떤 작업을 하나요?

지난 12월에는 에르메스와 협업해 워크숍을 진행했고, 개인 작업은 초기 작업을 확장하는 중이에요. 한동안 재봉틀로 작업했는데 기계를 쓰려면 계획적이어야 하더라고요. 지금은 손바느질과 본드를 사용하는 초기 작업으로 돌아가, 재료를 즉흥적으로 해체하고 결합해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내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이전과 똑같은 건 없을 거예요. 버섯이 상상으로 빚어 낸 디스토피아적 생태계였다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느 방향으로 확장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혼란한 시대, 예술가의 사명은 무엇일까.
여기, 막 아흔 된 작가의 생애가 답이 될 수도
있겠다. 왕성한 호기심으로 새로운 재료를
탐색하고 예민한 감각으로 시대의 쟁점을
포착해,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을 펼쳐 보이는 일.
예술가들은 그렇게 미래를 사유한다.



조안 조나스. 어쩌면 조금 낯선 이 이름이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특별하다. 퍼포먼스와 비디오 장르의 선구자로 '예술가의 예술가'로 불리며 50여 년 동안 주요한 예술적 흔적을 남기고, 작품뿐 아니라 발언과 행보 하나하나가 동시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말하자면 '교과서에 나오는' 작가인 셈이다. 그러나 그 명성에 눌릴 필요는 없다. 한국 관객들에게 비디오로 전해 온 작가의 말을 먼저 들어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작품의 의미를 애써 알아내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천천히 보고 느끼세요. 여러분이 감상하고 느끼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그저 즐겼으면 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조나스의 국내 최초 미술관 개인전 <조안 조나스: 인간 너머의 세계>는 작가의 당부 그대로 천천히 감상하며 즐기 좋은 전시다. 1968년부터 2025년까지 작가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주요 작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제8회 백남준예술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조나스는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 미술사적 족적을 남긴 예술가에게 백남준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백남준예술상의 주인공이 됐다. 실제로 뉴욕 소호의 이웃이자(창문을 열면 서로의 집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다고 한다) 20세기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발전에 기여한 동료이기도 했던 작가가, 다름 아닌 백남준의 뜰에서 한국 최초의 대규모 전시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퍼포먼스, 비디오 그리고 미술관

1936년 미국 뉴욕 출생인 작가는 대학에서 조각과 미술사를 전공했다. 졸업 후 조각가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퍼포먼스로 전환, 1960년대 후반

백남준아트센터 특유의 복합적이고 유연한 공간을 무대로
묵직한 미술사적 의미를 갖는 조안 조나스의 대표작들이 리듬감 있게 펼쳐진다.

조안 조나스의 초기작 '바람'(Wind) (1968). 뉴욕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촬영한 16밀리미터 흑백 무성 필름으로, 바람에 몸을 맡긴 퍼포머들의 움직임이 극대화 된 움직임과 우연성을 보여준다.



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뉴욕은 플럭서스 운동의 중심이자 실험 예술의 뜨거운 등지였다. 아이디어와 재능을 가진 이들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작가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영감을 얻었고, 음악과 무용이 결합된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사실 훈련되지 않은 관객에게 퍼포먼스는 조금 낯선 예술이다. 주제가 심화되고 변주될수록 관객은 더 당황한다. 그러나 일찌감치 조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시, 조각, 영화, 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하나의 몸짓은 드로잉과 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작가의 신체를 매개로 하는 퍼포먼스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밤새 고쳐 쓴 시어와 다를바 없는 예술적 표현이라는 고백이다. 구도자와도 같은 이러한 태도는 조나스의 퍼포먼스가 소란하거나 충격적이기보다는 관조적이고 사유적인 이유일지도 모른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순간 마주하는 '바람'(1968)이 바로 그런 작품이다. 뉴욕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촬영한 16밀리미터 흑백 무성 필름으로, 작가를 비롯한 퍼포머들이 거센 바람에 몸을 맡기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5분 37초짜리 퍼포먼스 비디오다. 오로지 흑과 백만 있는 화면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날것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묵직한 명상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굳이 '자연과 신체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창한 개념을 대입시키지 않더라도 사유를 촉발하는 조나스의 퍼포먼스 세계를 응축해 보여주는 작업이다. 조나스는 1970년대 일본 여행 중 소니 포타팩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퍼포먼스에 대한 접근법을 완전히 바꾼다. 퍼포먼스 장면을 한참 뒤에야 확인할 수 있는 기존의 녹화 방식과 달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폐쇄회로 비디오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전시장 한복판에서 CRT 모니터로 상영되고 있



바람 부는 해변을 따라 움직이는 퍼포머들을 담은 비디오에 드로잉, 사운드를 결합한 작품 '강으로부터 심해의 평원으로(Rivers to the Abyssal Plain)'(2021). 함께 전시한 초기작 '바람'부터 50여 년에 걸쳐 자연의 힘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다양한 매체로 변주해 온 작가의 예술 세계를 함축한다.

관객이 작은 상자 크기의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밀착된 시야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 '마이 뉴 시어터 III: 그림자 속의 그림자(My New Theater III: In the Shadow)'(1999).

조안 조나스는 2000년대에 이르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학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과 함께 지구를 이루는 새와 물고기, 바람과 바다를 작품 안으로 끌어들인다.

안했다. 조각과 회화, 퍼포먼스와 비디오, 영상과 음향, 구조물과 스크린 등 온갖 요소를 하나의 공간에 중첩시키거나 펼쳐 놓는 방식이다. 전시장 한쪽의 작은 방에서 마주하는 '사내, 강, 비행, 패턴 III'(2016/2017)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작가가 여행 중 마주한 풍경, 사물, 동물의 흔적을 모아 비디오, 드로잉, 오브제로 엮은 은밀한 공간으로 들어가면 온갖 이미지가 혼재되어 동시에 말을 걸어오는 듯한 묘한 세계가 펼쳐진다. 싱가포르의 새 보호구역에서 촬영한 영상 클립 위에 작가의 퍼포먼스가 겹쳐지고, 나무 보드에 마커로 그린 새 드로잉 위로 하노이에서 수집한 연이 부유하는 기묘한 중첩! 언뜻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요소들이 어지럽지만 조화롭게 뒤섞이며 다층적 감각을 확장하

는 비디오 작업 '오개닉 허니의 시각적 텔레파시'(1972)다. 작가는 에로틱한 얼굴의 가면을 쓴 분신(자신의 페르소나와도 같은 이 부캐의 이름이 바로 오개닉 허니다)과 본래 모습으로 번갈아 등장하며 재현된 이미지와 현실의 간극을 시각적으로 실험한다. 소니 카메라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조나스는 거울과 종이 연, 원뿔, 카메라 옵스큐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사물과 장치를 능숙하게 다루며 시각적 실험을 발전시켜 나간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진 '마이 뉴 시어터' 연작은 일종의 미니 어처 휴대용 극장 형식의 작업이다.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영감받은 이 구조물 안에서 관람객은 조그만 상자를 들여다보며 온전히 몰입한 상태로 퍼포먼스를 경험하게 된다. '마이 뉴 시어터 III: 그림자 속의 그림자'(1999) 앞에 놓인 1인용 벤치에 앉은 관람객이 오랫동안 머무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바람'을 통해 퍼포먼스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 낸 것처럼, 이 재미있는 상자 앞에서 비디오 아트에 대한 고정관념 역시 기분 좋게 부서진다. 사진이나 텍스트가 아니라 미술관에서 직

접 작품을 만나야 하는 이유다.

조안 조나스, 끝나지 않은 실험

초창기 인간 중심의 서사를 벗어나 1980년대부터 신화와 문학을 토대로 새로운 생태적 내러티브를 구축한 조나스는 2000년대에 이르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학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과 함께 지구를 이루는 새와 물고기, 바람과 바다를 작품 안으로 끌어들인다. 작가는 "지구가 직면한 상황은 끔찍하고 저는 이 위기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제 작업을 통해 바다와 육지의 생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 같은 생명체들의 중요성을 이해하면 우리 자신도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작업실에 갇히기보다 세계를 누비며 시야를 넓혀 온 작가의 종착점이 인간이 아닌 '지구타자(인간과 더불어 지구를 이루는 생명과 환경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용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를 전달하기 위해 조나스는 독특한 설치 형식을 고





여행 중 마주한 이미지들을 담은 사진과 비디오 위에 드로잉과 퍼포먼스를 중첩한 설치 작품
'시네, 강, 비행, 패턴 III(Stream or River, Flight or Pattern III)'(2016/2017), 비디오 매체의 기술적 요소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수공예적 요소를 더해 강한 미학적 완성도를 구현해 낸다.

작가의 반려견 오즈의 목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오즈의 시선이 그대로 담기도록 한 비디오 작품 '아름다운 개
(Beautiful Dog)'(2014), 종간 경계를 넘어 교감하고 영감을 주었던 오즈의 존재가 전시장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는데, 바로 이것이 작가가 관람객의 생태적 감수성을 깨우는 방식이다.

돌이켜 보건대 조나스는 전 생애를 통해 쉽 없는 실험과 깊은 사유로 예술가의 일에 몰두해 왔다. 그러나 이 이러니하게도 관람객이 작가를, 아니 예술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는 순간은 작품 속에서 작가의 아주 사적인 순간이 포착될 때다. 관람객이 오랫동안 걸음을 멈추고 미소 지으며 들여다보는 비디오 작품 아름다운 개(2014)의 주인공은 조나스의 반려견 오즈다. 오즈의 목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개의 시선이 그대로 담긴 비디오 작품이다. 반려동물이 주인공인 애능 프로그램에서 본 듯한 앵글이 익숙한 탓일까. 심하게 흔들리거나 뒤집힌 화면으로 느껴지는 오즈의 신이 난 듯한 걸음과 호흡, 그안에 담긴 주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작가의 모습, 들뜬 분위기와 자유로운 움직임, 바다와 숲 풍경은 전시 공간 전체에 따뜻한 감각을 불어넣는다. 고흐의 힘찬 붓질을 보며 감동하는 것처럼 생명

력 넘치는 오즈의 영상 앞에서 벅찬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은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라 할 '빈 방'(2025)에 들어서는 순간 더욱 확장된다. 실험적일 뿐 아니라 철학적이고 명상적인 작가 특유의 미학이 응축된 최신작으로, 작품 이름과 달리 조각과 드로잉, 비디오와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언어가 한 공간에서 교차하는 대규모 설치 작품이다. 허공에는 다양한 형태의 미색 종잇조각이 부유하듯 떠 있고,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 드로잉 40여 점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며, 정면에는 소녀들의 그림자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종잇조각에서 나오는 연약한 빛과 작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제즈 뮤지션 제이슨 로란이 작곡한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져 꿈과 현실, 소리와 침묵이 교차하는 가운데 생명의 순환을 함축한다. 무려 50여 년의 서사를 담은 방대한 전시의 끝에 선 관람객이 조나스의 세계를 고요히 감각할 수 있도록 긴 벤치를 놓아둔

것도 인상적이다. 명성만으로 작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왜 지금 조안 조나스인가'에 대한 답이 될 만한 공간이다.

백남준아트센터 특유의 유연한 공간성을 해치지 않으며 리듬감 있게 배치된 작품들을 작가의 당부대로 천천히, 오래 즐기다 전시장을 나서며 문득 재밌는 상상에 빠졌다. 100세가 된 이 예술가는 어떤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볼까. 그나마 세계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로선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10년 뒤 지구의 생태와 인류의 문제를 어떤 재료와 형식으로 담아낼까. 조나스에 대한 백남준예술상 심사 평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지속적인 미디어 실험 정신뿐 아니라 창작과 예술을 통해 인류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 일찌감치 미래를 사유해 온 조안 조나스 방식의 실험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이왕이면 희망이 담긴 평화의 언어로.



조안 조나스

제8회 백남준예술상 수상작가로 1936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 사운드, 텍스트, 조각 등 다양한 미디어를 아우르며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해 온 세계적인 아티스트다.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 동물과 식물, 기후와 지형, 나아가 자연 전체를 다뤄 온 작가의 실험적 작품은 퍼포먼스와 비디오부터 개념미술과 연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대 예술의 장르적 결합과 확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카셀도큐멘타(1972, 1977, 1982, 1987, 2002, 2012)와 베니스비엔날레(2015) 등에 참가하고 런던 테이트 모던, 뮌헨 하우스데어 쿤스트, 뉴욕 현대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전 생애에 걸쳐 미술이 세계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질문하고 실천해 온 '예술가의 예술가'로서 현재도 여전히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 Joan Jonas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Courtesy of the artist and Gladstone
Photography by Toby Coulson



소리 명상의 세계로

우주선을 닮은 핸드팬이라는 악기가 하택후 연주가의 삶에 착륙했다. 오랫동안 소리의 길을 걸어온 그가 치유와 명상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목표를 향해 질주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춘다.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친 데다 열정까지 잃어버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각자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에게 번아웃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잊을 만하면 감기처럼 찾아온다.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건 명상.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명상 악기를 연주하며 미세한 파동에 집중한다. 소리 명상을 돕는 치유악기 중 하나인 핸드팬은 신비롭고 몽환적인 소리를 내 웰니스 프로그램에 자주 활용한다. 평온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 위해 10여 년간 핸드팬을 탐구해 온 하택후 연주를 만났다.

마음을 채우는 악기, 핸드팬

2014년 사물놀이 공연을 하러 캐나다 밴쿠버를 찾은 하택후 연주가는 한 악기 상점에서 핸드팬을 발견했다. 쇼윈도에 전시된 낯선 악기는 항상 새로운 것에 목말라하던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이 한 사람을 치유의 세계로 이끌었다. 15년간 팽과리를 쥐고 사물놀이 공연을 하면서 에너지를 뿜어내다 보니 힘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끼던 때였다. 똑같이 쇠로 만든 금속악기인데 팽과리와 핸드팬을 다루는 방법은 확연히 달랐다. 핸드팬을 연주하는 동안 관객에





1 차임이 바람에 흔들려 경쾌한 소리를 낸다. 2 오션 드럼 속 작은 구슬이 구르면서 파도 소리를 만든다.

3 경주 황성공원의 나무 아래에서 핸드팬을 연주하는 하택후.

4 핸드팬을 어깨에 메니 거북 등딱지와 닮았다. 서두르지 않고 호흡과 자세에 집중하는 핸드팬과 느낌을 상징하는 동물인 거북이 묘하게 연결된다.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악기를 깨워 주세요.
소리를 천천히 열어 보세요.”

게 에너지를 주는 동시에 받는 것이 신기했다. 신이 난 그는 무대 위에서 쏟아 낸 에너지를 보상받는 기분으로 핸드팬에 파고들었다. 그렇게 10여 년의 수련을 거쳐 전통음악 연주가이자 핸드팬 아티스트로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했다. 지금은 피아노, 거문고, 장구, 쥬메 등 다양한 악기와 합주해 음악을 만들고 요가 프로그램과 연계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작업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워크숍도 자주 열어 연주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 악기를 소개하고 가르친다.

하택후 연주가가 워크숍과 공연을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경북 경주로 향했다. 경주와 서울에서 각각 한 차례씩 핸드팬이라는 악기를 배우기로 한 것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단체 워크숍에 참석하기 전, 생소한 악기와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황성공원에 도착해 나무 아래 러그를 펼치고 핸드팬 앞에서 자세를 잡았다. 두 개의 술뚜껑을 이어붙인 듯한 모양의 핸드팬은 상판과 하판으로 구분된다. 상판 중심에 돌출된 부분을 ‘딩’, 딩 주위를 둘러싼 움푹 들어간 부분을 ‘노트’라고 한다. 노트는 저마다 크기가 다르고 음도 제각각이다.

간단한 설명을 마친 하택후 연주가가 가장 큰 1번 노트를 쳐 보라고 한다. 손가락이 악기에 붙었다 떨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손가락에 힘을 덜 댔나 싶어 더 강하게 노트를 두드렸지만 악기는 묵묵부답이다. “핸드팬을 처음 배울 때 다들 소리가 안 나서 놀라요. 다른 악기는 우선 치면 좋은 나쁜든 소리가 나니까요.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하죠,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악기를 깨워 주세요. 소리를 천천히 열어 보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악기를 누르는 힘 대신 손을 때는 힘에 집중하니 소리가 점점 열린다. 핸드팬이 명상 악기인 이유는 특유의 맑고 청아한 소리뿐 아니라 연주하는 과정에서 긴장이 풀리는 데 있구나 싶다. 썰이나 구슬이 부딪혀 빗소리를 만드는 레인 스틱, 파도를 연상



시키는 오션 드럼, 바람을 만나야 비로소 존재감이 드러나는 차임 등 자연과 닮은 명상 악기를 차례로 만나니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진다.

저마다의 파동을 찾아서

며칠 뒤 워크숍 장소인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도모요가를 찾았다. 이미 여러 번 호흡을 맞춘 수강생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는다. 가운데에 자리를 잡은 하택후 연주가가 먼저 핸드팬의 5번 노트를 점점 여린 소리가 나도록 쳐 보라고 한다. 처음에는 투박했던 소리가 맑고 깨끗하게 변하는 걸 들으니 몸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요가 수련을 시작하기 전 두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과정과 비슷하다. 생각 없이 두드리는 게 아니라 소리의 크기를 높이거나 낮춰 보고, 손가락에 힘을 풀고, 여음에 귀 기울이라는 조언에 집중한다. 어



1

편 손가락으로 해야 편하고 소리가 잘 나는지도 확인 하라는 말에 검지와 중지로 번갈아가며 연주해 본다. 악기와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수강생들과 함께 연습한 곡은 캐럴 메들리. '징글 벨' '창밖을 보라'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악보를 차례로 받았다. 정간보의 기본 양식을 차용해 만든 악보라 한 칸이 한 박자를 의미하고, 검은색 글씨는 오른손, 빨간색 글씨는 왼손으로 연주하라는 뜻이다. 각각의 칸에 적힌 숫자에 해당하는 노트를 두드리며 위치와 동선을 익힌다. 소리가 나다 말기를 반복하지만 수강생들의 입가에는 계속 은은한 미소가 걸려 있다. 핸드팬은 실수해도 티가 많이 나지 않는다. 울림이 크지 않아 하택후 연주가의 말처럼 의도된 화음이나 즉석 애드리브로 웃어넘기기 좋다. 그러니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이 수강하더라도 긴장할 필요 없다. 새로운 취미로 악기 배우기를 시도했지만 연습할 시간이 없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기 마련인데, 핸드팬은 그런 걱정을 덜어 준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연주하는 데에서 성취감을 얻는 게 아니라 몸짓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초보자에게는 낯가로 전해지는 소리 하나 하나가 힐링이 된다.

수업이 끝난 뒤 수강생들이 하택후 연주가에게 자작 곡 연주를 요청했다. 강습실이 공연장이 되는 순간이다. 아티스트와 관객들의 표정에 즐거움이 가득하다. 하택후 연주가는 핸드팬과의 만남이 자신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말한다. "한때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삶의 척도일 만큼 중요했어요. 공연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타인의 평가가 더 신경 쓰였죠. 신비로운 핸드팬 소리를 많은 이들이 반겨 주니 이젠 제 연주에만 몰입하죠." 이제 요가원은 소수의 관객과 교감하는 무대이자 마음을 회복하는 장소가 됐다. 기텔 구석이 필요하다면 각자의 에너지에 맞는 악기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악기가 들려주는 소리는 나의 동작에 대한 답변이자 자신과의 대화이기도 하다. "모든 소리엔 공명이 있잖아요. 그소리에 집중하는 게 바로 명상 아닐까요. 핸드팬의 울림이 찾아드는 끝을 바라보며 자기 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안의 감정이 핸드팬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기를 가만히 기다려 줄 차례다.



2



3



4

- 1 하택후 연주가는 아크로 요가 강사와 협업해 워크숍을 열기도 한다. 신아영 요가 강사와 TJ 아크로 요가 강사가 함께 동작을 시연하고 있다.
- 2 핸드팬 강습에 참가한 이설 도모요가 원장. 눈을 감고 미세한 파동을 느낀다.
- 3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핸드팬 상판 각각의 노트에 숫자 스티커를 붙였다. 악보에 적힌 숫자에 맞춰 해당 노트를 두드리면 된다.
- 4 사운드 베스에 사용되는 악기 중 하나인 공(gong). 5빙 둘러앉아 핸드팬 강습을 받는 사람들.



5

곡면에 붙어 있는 초록색 물체가 궁금해 가까이 들여다보니 살아 있는 이끼였다. 이 작은 생명체의 이름은 스칸디아모스. 공기 정화와 습도 조절, 소음 저감을 위해 설치했다. 몽글몽글한 질감이 천에 실 다발을 촘촘히 심어 넣는 터프팅 작품 같아 잠시 손끝이 근질거린다.

1층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북극곰 한 마리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사람과 동물, 도깨비를 주제로 목조각 작업을 하는 용형준 작가의 '북극곰 조각 시리즈'. 폐팔레트가 기후 위기를 경고하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위기에 처한 생명체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뒤편 큐레이션 서가에서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

여기, 조금 특별한 북 큐레이터가 있다. 기본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 AI다. 그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자 AI가 눈빛 너머의 숨은 감정을 읽어 낸다. 결과는 기쁨 89, 슬픔 1, 분노 2, 공포 3. 추천 목록을 훑다가 유독 시선을 끄는 책 하나를 발견했다. 그림책 <호호호호박>. 호박이 호호호호 웃고 있는 표지를 마주한 순간,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온다.

빙글빙글, 별난 도서관

달팽이 집을 닮은 나선형 구조,
장르와 감각을 넘나드는 공간.
경기도서관은 기존 공공 도서관의
틀을 깨뜨린다. 견고 보고 체험하며
색다르게 느낀 독서 풍경을
포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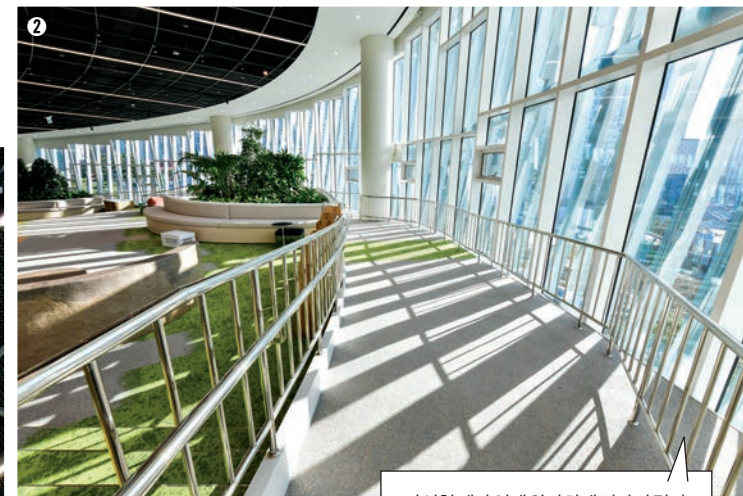
여느 때처럼 별 의미 없이 인스타그램을 스크롤 하던 중이었다. 손가락을 멈추게 한 건, 신상 공간을 소개하는 한 장의 피드. 실내의 나선형 구조가 달팽이 집을 닮아 '달팽이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경기도서관이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신분당선 광고중앙역 4번 출구를 나서자마자 UFO가 지상에 내려앉은 듯한 흰 건물이 시야를 압도한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형화된 도서관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진 풍경이 펼쳐진다. AI 스튜디오, 전시홀, 보드게임방, 기후환경공방 등 걸음을 옮길 때마다 획획 바뀌는 분위기. 원하는 책을 찾아 헤매기보다 천천히 걷다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는 곳.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등 누구나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 자유롭게 창의적이며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롭다. 그중에서도 유독 에디터의 발길을 붙든 장면을 기록했다.



잔잔한 클래식에 이끌려 아트북라운지에 닿았다. 지그재그로 이어진 설치물 사이에 제법 묵직한 아트북들이 펼쳐져 있다. 책이 놓인 방향이 제각각인 건 사람들이 손 닿는 대로 자유롭게 펼쳐 본 흔적일 테다. 알록달록한 그림과 기발한 타이포그래피를 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묘하게 환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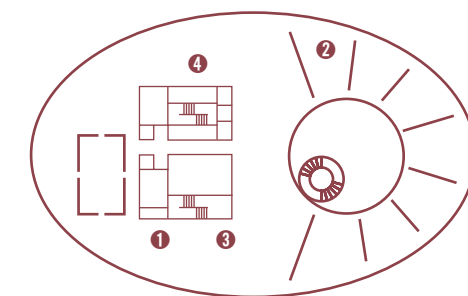


1



2

나선형 계단 옆에 완만하게 경사진 길이 나 있다. 휠체어 사용자도, 엄마 손을 잡고 오르는 아이도 편안하게 이 길을 오간다. 누구나 쉽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설계자의 배려가 느껴진다.



3층 | 자혜의 공간

책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는 곳이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산책하듯 서가를 누비는 경기책길, 비문학 장르 전반을 다루는 인문라운지, 클래식과 함께 예술을 즐기는 아트북라운지, 화면을 터치하며 읽는 실감형 디지털 북, 그리고 책을 소리로 만나는 오디오 북까지, 오감을 동원해 책을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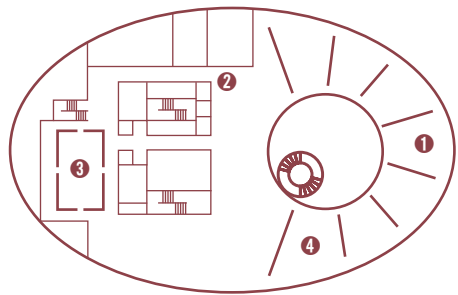
3층부터 4층까지 나선형 계단을 따라 이어지는 길 이름은 경기책길. 서가로 둘러싸인 이 길을 산책하듯 천천히 오르다 보면, 발밑에 이끼를 형상화한 바닥재가 깔려 있어 숲속을 걷는 기분이 든다.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이 닿는 책 하나를 집어들어 마음 가는 자리에 앉아 읽는다. 자연광이 가득 스며드는 통창 덕분에 공간은 늘 환하고 따뜻하다.



어두운 공간 속 유독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곳에서 마법 같은 책을 발견한다. 고흐의 그림이 담긴 <친애하는 테오에게>를 중앙 받침대에 올려놓는 순간, 커다란 책 속에서 고흐가 눈을 깜빡인다. 페이지를 넘기면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가 원문으로 나오고, 터치한 번에 한글 번역문이 이어진다. 그리고 곧바로 편지에 언급한 작품 '아름의 별이 빛나는 밤'이 펼쳐진다. 작품 속 빛이 투영된 물그림자가 진짜처럼 어른거린다.



곳곳에 놓인 밀크박스 조립형 구조라 쓰임이 자유롭다. 집모양 서가가 되기도 하고, 폭신한 방석을 올리면 의자나 발 받침대가 만들어지며, 2~3개를 높이 쌓아 단단한 판을 얹으면 책상으로 변모한다.



4층 | 지속 가능한 공간

기후·환경을 콘셉트로 한 곳. 기후·환경 도서를 큐레이션한 서가, 페트병 뚜껑과 공병을 모아 둔 재료실, 행동으로 지구를 지키는 기후환경공방과 기후행동 1.5도가 자리한다. 기후행동 1.5도에서는 버려진 책으로 달향아리를, 수세미로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드는 등 흥미로운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서관은 의자마저 범상치 않다. 공공 도서관에서 흔히 보이는 의자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김하늘 작가의 '스택 앤 스택 체어 & 테이블'이 대표적이다. 폐자재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겹겹이 칠한 페인트 자국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일회용 마스크로 만든 의자다.



살면서 이끼를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본 적이 있던가. 이끼연구소는 그 흔치 않은 경험이 가능한 공간이다. 나무껍질 사이로 번진 이끼를 돋보기 너머로 따라가다 보면 미세한 솜털 하나하나가 숨쉬듯 흔들린다. 이끼와 한 뼘 가까워진 코끝에는 은근한 풀 내음이 감돈다.



경기도서관, 이런 곳이에요

경기도 수원시에 자리한 경기도서관은 지난해 10월 25일 문을 연 공공 도서관으로,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하다 올해 1월 정식 개관했다.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항아리'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비블리오테케(bibliothêkē)에서 착안해, 도서관을 지식을 담고 나누는 그릇으로 구현했다. 층간 구분이 없는 나선형 구조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모든 공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책과 문화, 사람을 잇는 복합 문화 공간 역할을 한다. 현재 디지털 자료를 포함해 장서 34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대 90만 점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누구나 회원 가입만으로 1회 최대 3권의 책을 2주간 대출 가능하다.

3층부터 4층까지 이어지는 인문라운지. '시간의 나무, 이야기의 동굴'이라고도 불린다. 천장은 나무의 나이테를 형상화한 듯하고, 양옆으로 길게 뻗은 서가는 나뭇가지 같다. 비어 있는 서가는 다가올 이야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중이다.



문이 없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왔다는 감각은 분명하다. '이야기의 동굴'이라는 이름처럼 안쪽은 아늑하고 고요하다. 소리는 차분히 가라앉고, 생각은 천천히 떠오른다. 그저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영감이 뭉클뭉클 피어오른다.

높낮이가 다른 세 조각이 모여 하나의 의자가 완성된다. 손끝에 닿는 질감은 울룩불룩하고, 묵직한 압석을 닮았다. 폐서적을 압축해 만든 김하늘 작가의 작품이다. 오래 앉기에는 다소 불편해 가장 높은 조각 위에 외투를 슬쩍 걸쳐 두었다. 잠시 후 근처에 있던 학생이 가장 낮은 조각을 끌어다 그 위에 학습지를 펼친다. 아, 책상으로도 쓸 수 있군!





이방인의 단골집

Favorite Haunts of Foreign Residents

이방인과 현지인의 중간에 위치한, 한국에서 오래 산 외국인들은 어디에서 향수를 달래고 추억을 쌓을까? 서울을 여전히 낯선 눈으로 경험하는 이들에게 '단골'이란 단어의 뜻을 소상히 알려 준 후, 그 의미에 가장 가까운 공간을 물었다.

Where do long-time foreign residents in Korea go when they miss home or want to build new memories? Those who still experience Seoul with a sense of unfamiliarity were asked about the places they return to again and again.



엠마의 작업실, 이리카페

Emma's Studio, Yri Cafe

엠마 주노 스파크스, 한국살이 15년 차, 콘텐츠 에디터

Emma Juno Sparkes, 15 years in Korea, Content Editor

상수동 이리카페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온 문장: “매일 낮과 밤, 이리카페는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조용히 홀로 작업하는 분들이 많고, 밤에는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많죠. 낮에는 멜로디 위주의 노래가 흐르고, 밤에는 그루브 위주의 노래가 흘러요. 그렇게 이리는 21년 동안 흐름을 이어 왔습니다.”

2014년부터 한 번도 서울 상수동을 떠난 적 없는 순정 마포 구민, 엠마 주노 스파크스가 이리카페를 단골집으로 꼽은 까닭도 이와 같다. “이리카페를 처음 알게 된 건 일러스트레이터 ‘무나씨’와의 인터뷰 때였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작업 공간으로 여기를 추천했거든요.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제가 열광하는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예술·건축·디자인 책이 빼곡하게 꽂힌 책장과 저마다 자기 작업에 열중하는 사람들 모습에 마음을 뺏겼죠.”

영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2010년 처음 한국에 온 엠마에게 이리카페는 많은 것을 내줬다. “서울에서 살기로 결심한 후 한국어 공부에 급선무였어요. 이 책장 앞에 앉아 한국어를 공부하고, 마음이 적적할 땐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영어 교사에서 기자로 직업을 바꿀 때, 그 밖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이곳에서 무수한 시간을 보냈죠. 말하고 보니 이리카페는 제가 실험적인 도전을 꽤 즐기는 사람이란 걸 알게 해 준 곳이에요.”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길 27

Emma Juno Sparkes has lived in Seoul's Sangsu-dong since 2014 and has never once left Mapo-gu. Her regular spot is Yri Cafe. “I first discovered Yri while interviewing the illustrator Moonassi. She recommended it as her favorite workspace. When I walked in, the first thing I noticed was a photo of Kurt Cobain from Nirvana, which I adore. Then I saw the wall-to-wall shelves crammed with art, architecture, and design books, and people quietly absorbed in their work. I was immediately hooked.” Emma first came to Korea in 2010 after studying design in the UK, and Yri has been a steady presence throughout her life here. “Right after deciding I wanted to build a life in Seoul, mastering Korean became my top priority. I would sit in front of those bookshelves studying Korean, and when I felt lonely, I would sketch. When I transitioned from teaching English to working as a journalist and whenever I wanted to try something new, I spent countless hours here. Saying it out loud now, I realize Yri is the place that showed me I am much more of an experimental person than I thought.”

Address 27, Wausan-ro 3-gil, Mapo-gu, Seoul

엠마의 단골 공간 Emma's Favorite Spots

서울공예박물관 Seoul Museum of Craft Art

“저는 이곳을 ‘한국의 빅토리아 & 앨버트 뮤지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장인들이 만든 수준 높은 공예예술품에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무료입장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I like to call it Korea's Victoria and Albert Museum.

The craftsmanship of the works on display has been deeply inspiring.”

Address 4, Yulgok-ro 3-gil, Jongno-gu, Seoul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Seosomun Shrine History Museum

“아주 과소평가된 박물관이에요. 제가 가톨릭역사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지만 건축미, 미디어아트 등의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칠패로 5

“I am not even particularly into history, but the architecture, the exhibition design, and the media art are all exceptional.”

Address 5, Chilpae-ro, Jung-gu, Seoul





마이클의 단골 공간 Michael's Favorite Spots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MMCA Seoul

“여전히 사진작가의 꿈을 품고 있는 저에게 이곳은 창작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장소예요. 쉬는 날이면 아내와 들르기 하고, 가끔은 혼자 오래 머물기도 해요.”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I still carry the dream of being a photographer, and this museum always brings my creative senses back to life.”

Address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맛있는 칼국수 Masinneun Kalguksu

“따뜻한 국물이 그리워지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에요. 투박하지만 진한 육수, 탱글탱글한 면발, 넉넉한 양까지 제 취향에 딱 맞아요.”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불광천길 150

“It is rustic, with a rich broth and chewy noodles, and the portions are generous. Right up my alley.”

Address 150, Bulgwangcheon-gil, Seodaemun-gu, Seoul

마이클의 추억 보관소, 부원면옥

Michael's Memory Keeper, Buwon Myeonok

마이클 올린, 한국살이 13년 차, 셰프

Michael Wolin, 13 years in Korea, Chef

자극 없이 은은한 육향과 메밀 면의 질감이 입안에 오래 머무는 평양냉면. 깊고 절제된 이 맛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재료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외국인 셰프라면 더욱 매력을 느낀다. 서울 망원동에서 미국 가정식 레스토랑 '마이클 식당'을 운영하는 마이클 올린 셰프 역시 평양냉면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로 꼽는다. 그의 단골집은 남대문 '부원면옥'이다. “평양냉면 마니아인 제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곳이 부원면옥이에요. 특히 국물이 좋아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있거든요.”

그에게 부원면옥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아내 김나무다. 연애 시절 이곳의 평양냉면을 맛본 그녀가 마이클을 데려갔고, 그날 이후 마이클이 더 자주 찾는 식당이 됐다. 이곳에서 마이클이 즐겨 찾는 메뉴는 평양냉면과 빈대떡, 닭무침이다.

“부원면옥은 아내와 함께 서로의 지인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추억이 쌓인 공간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내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에게 평양냉면과 부원면옥은 입맛보다 마음에 먼저 각인된 음식이며 장소다. 평양냉면 한 그릇에 연애 시절 사람들과 함께 나누던 따뜻한 순간이 저장되어 있다. 다시 찾을 때마다 그 맛은 그 시절의 추억을 함께 불러낸다.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41-6

Pyeongyang naengmyeon is a bowl that lingers. Its understated broth, the quiet aroma of beef and the clean snap of buckwheat noodles leave a long, gentle impression. Chef Michael Wolin, who runs the American comfort food restaurant “Michael's Kitchen” in Mangwon-dong, counts it among his favorite Korean dishes. His regular spot is Buwon Myeonok near Namdaemun.

“The broth here is exceptional. It is never overpowering, yet it has a deep, savory balance.”

The person who first brought him to Buwon Myeonok was his wife, Kim Namu. Early in their relationship, she tried the noodles and took Michael with her on her next visit. From that day on, he ended up returning even more often than she did.

“For us, Buwon Myeonok became a place where we introduced each other to our friends and built memories together. Whenever I want a quiet moment with my wife in the middle of a busy week, this is the first place that comes to mind.”

For Michael, Pyeongyang naengmyeon and Buwon Myeonok are etched more deeply in the heart than on the palate. One bowl holds the early days of their relationship and the warmth of the people they shared it with.

Address 41-6, Namdaemunsijang 4-gil, Jung-gu, Seoul





해미의 안식처, 라몽림

Rémi's Sanctuary, La Mongrim

해미 클레멘세비츠, 한국살이 12년 차, 사운드 아티스트

Rémi Klemensiewicz, 12 years in Korea, Sound Artist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의 사운드 아티스트 해미 클레멘세비츠는 ‘오늘은 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라몽림을 떠올린다. “5년 전쯤 친구가 라몽림에 처음 데려갔는데 그 뒤로 기운을 북돋워 주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가요. 밖에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누군가의 집에 초대된 것 같은 아늑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음식도 가정집에서 먹는 것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습니다.”

라몽림의 메뉴는 바질페스토쇠고기, 새우크림커리, 볼로네제치즈밥, 버섯크림리소토, 쇠고기고추잡채, 굴라시 등 다양하고 특색 있다. 10여 년간 홍대 인근에서 카페 겸 술집을 운영한 주인장의 솜씨로 속이 든든하고 개성 넘치는 음식을 선보인다. 홍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음악가들의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었던 라몽림은 자리를 옮긴 지금도 음악가들의 모임 장소로 자주 이용된다. 인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 가수 하림 등이 공연 뒤풀이나 식사를 위해 이곳을 찾곤 한다. “이렇게 재미있는 곳인 줄 몰랐어요. 그저 라몽림의 분위기와 음식을 즐기고 나서는 마음이 가라앉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거든요. 알고 보니 음악의 기운이 흐르는 곳이었네요. 어쩌면 그게 저를 끌어당긴 이유였나 봐요.” 라몽림은 2015년 문을 열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인스타그램에 오픈 시간을 공지한다. 어떤 날은 오후 5시, 어떤 날은 오후 7시에 문을 열고, 닫는 시간도 주인 마음이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3

For French sound artist Rémi Klemensiewicz, who hails from Marseille, La Mongrim is the first place that comes to mind whenever he feels the need for “a proper meal.”

“A friend first brought me here about five years ago, and ever since, I come whenever I need food that lifts my spirits. You would never notice it easily from the street, but once inside, it feels as if you have been invited into someone’s home. The atmosphere is warm and intimate, and the food tastes like something you would be served in a real home—comforting, not overly seasoned, simply delicious.”

La Mongrim’s menu includes basil-pesto beef, shrimp cream curry, Bolognese cheese rice, mushroom cream risotto, beef with peppers, spinach frittata, goulash and more. The owner, who ran a café-bar in the Hongdae area for over a decade, brings that experience to the table, serving hearty, distinctive dishes. Once a beloved hideout for musicians based in Hongdae, La Mongrim continues to attract artists even after relocating.

Address 13, Yanghwa-ro, Mapo-gu, Seoul

해미의 단골 공간 Rémi's Favorite Spots

을밀대 평양냉면 Eulmildae Pyeongyang Naengmyeon

“면을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로 꼽는 저에게 평양냉면은 소울 푸드입니다.

을밀대 평양냉면은 상수동이나 합정동 등 마포구에서만 살았던 제가 평양냉면을 먹고 싶을 때마다 가장 자주 찾는 곳이에요.”

주소 서울시 마포구 승문길 24

“Since noodles are my favorite food, Pyeongyang naengmyeon is my ultimate comfort dish. I come here whenever I crave it.”

Address 24, Sungmun-gil, Mapo-gu, Seoul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Gwangju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실험적이고 영감 가득한 공연과

전시를 보기 위해 서울만큼이나 광주에 자주 머뭅니다.”

주소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I often visit the ACC for its experimental and inspiring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Address 38, MunhwaJeondang-ro, Dong-gu, Gwangju





나리카와의 단골 공간 Narikawa's Favorite Spots

동아리 정동본점 Dongari Jeongdong

“스키야키, 호르몬나베, 우나기등 등을 파는 이자카야예요. 가격이 조금 비싸자주 가진 못하고 특파원이나 선배님이 한턱낸다고 할 때 모시고 가는 곳입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길 12-6

“An izakaya that serves sukiyaki, unagi bowls and more. It is pricey, so I usually go only when a senior insists on treating me.”
Address 12-6, Jeongdong-gil, Jung-gu, Seoul

텃판타마고 Teppan Tamago

“홍대에 사는 일본인 기자 친구가 자기 단골집이라고 데려가서 알게 된 곳이에요. 야키소바에 대창을 넣어 조리한 대창 야키소바가 인상 깊었죠. 일본에선 못 먹어 본 일본 음식이거든요. 명란젓구이도 좋아하고요.”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6길 34-12

“Their yakisoba with beef tripe is unforgettable. It is a Japanese dish you cannot actually find in Japan.”
Address 34-12, Jandari-ro 6-gil, Mapo-gu, Seoul

나리카와의 고향의 맛, 쓰루하시 후게츠

Narikawa's Taste of Home, Tsuruhashi Fugetsu

나리카와 아야, 한국살이 8년 차, 영화 칼럼니스트 & 작가

Narikawa Aya, 8 years in Korea, Film Columnist and Writer

웃기고 호쾌한 오사카 사람들이 까다롭게 구는 분야가 있다. 바로 미식. 일본의 부엌으로 불리는 맛의 고장 오사카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합격점을 받으려면 훌륭한 식재료는 기본이고 저렴한 가격과 유머 감각, 활기찬 분위기까지 갖춰야 한다. 나리카와 아야의 고향도 오사카. 그의 한국 단골집이 궁금해진 순간, 쓰루하시 후게츠가 바로 튀어나왔다. 명동에 있는 쓰루하시 후게츠에서 나리카와가 주문한 메뉴는 정통 오코노미야키와 야키소바, 그리고 숙주나물말이. 그는 양배추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곳에선 양배추를 아낌없이 써요. 다른 집들은 밀가루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 식감이 거칠거든요. 얇게 저미듯 채 썬 양배추를 열기설기 쌓아 뚜껑을 덮는 대신 철판의 열기만으로 속까지 부드럽게 익히는 조리법이 오사카 본토 맛의 비결이죠. 합리적인 가격도 빼놓을 수 없고요.”

9년간 <아사히 신문>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17년, 한국 영화를 공부하려고 한국에 정착한 그는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마친 영화인이다. <어디에 있든 나는 나답게> <재미있는 색이름 탄생 이야기> 등의 책을 내며 일본에 한국 영화와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그는 가까운 미래에 그 반대의 일을 펼칠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 일본 영화를 소개하고 독립 영화도 상영하는 북 카페를 열고 싶어요.” 나리카와는 그곳이 자신의 진짜 단골집이자 한국인들의 단골집이 될 날을 꿈꾸고 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8길 21-5

Narikawa Aya grew up in Osaka, often called “the kitchen of Japan.” In Korea, the place she returns to whenever she craves the flavors of home is Tsuruhashi Fugetsu. Her go-to dishes are classic okonomiyaki, yakisoba and the bean sprouts egg roll. “They use a generous amount of cabbage here. Other places rely heavily on flour, which makes the texture coarse. At Fugetsu, they slice the cabbage into fine shreds, lightly mound it and cook it through only with the heat of the teppan, rather than pressing it under a lid. That is what gives it the true flavor of Osaka. And the prices are surprisingly reasonable.”

After working as a journalist for nine years at the Asahi Shimbun, she moved to Korea in 2017 to study Korean cinema. She went on to earn both her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at Dongguk University's Department of Film and Digital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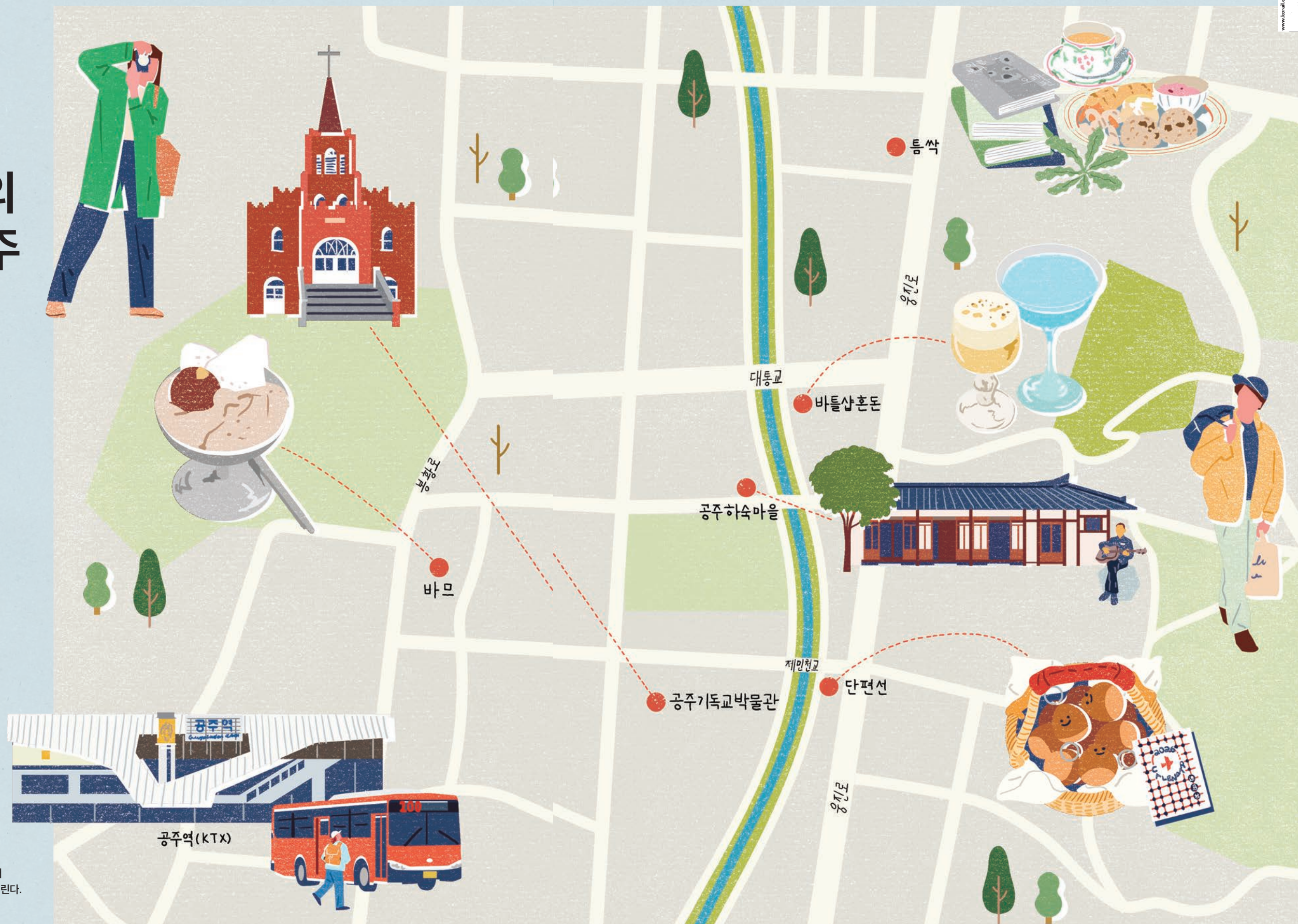
“I want to open a book café that introduces Japanese films to Korea and screens independent works.” Narikawa dreams of creating a place that becomes her real regular spot, and eventually a beloved haunt for Korean audiences as well.

Address Haeam Building, 21-5, Myeongdong 8-gil, Jung-gu, Seoul



혼자 여행의 첫걸음, 공주

충남 공주의 제민천 거리를 거닐며
복잡한 생각을 날려 버린다.
공주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훑으며 역사도 돌아보는
충만한 시간이었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공주역까지 1시간10분 정도 걸린다.
공주역에서 200번 버스를 타고
중학동 정류장에 내려 여행을 시작한다.



유관순 열사의 예배당 공주기독교박물관

1902년에 설립된 공주제일교회는 미국 북감리교의 선교 기지로 활용됐다. 선교사들은 이곳에 상주하며 충청 지역 최초의 사립학교인 영명여학교와 영명남학교를 세우는 등 근대 교육 발전에 힘쓰고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청년들을 지원했다. 현재 공주기독교박물관이 된 건물은 1931년에 지은 것으로, 한국전쟁 당시 상당 부분 파손되었지만 이후 건물을 보수하며 벽체와 굴뚝 등을 그대로 재건해 2011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스테인드글라스는 한국 스테인드글라스의 개척자인 이남규의 초기 작품으로, 건물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 외에도 3·1 만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쓴 시인 이상화 등 공주제일교회가 배출한 독립운동가의 유품과 사진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예배당이었던 건물 안에서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받으며 독립이라는 한 줄기 빛을 향해 애썼을 사람들을 떠올린다.

주소 충남 공주시 제민1길 18 문의 041-853-7008



옛 하숙집을 재현한 게스트 하우스 공주하숙마을

1960~1970년대 공주 원도심에는 하숙집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많았다. 한일당약국과 주변 가옥을 리모델링한 게스트 하우스 공주하숙마을은 당시 풍경을 재현한 숙박 시설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제민천을 따라 흐르는 문화 골목 만들기 사업과 하숙촌 골목길 조성 사업을 연계해 2017년에 문을 열었다. 마당채, 사랑채, 안채, 별채에 면적이 조금씩 다른 열 개의 방이 있고, 투숙객용 공용 공간인 담소방과 일과 여행을 병행할 때 유용한 공유 오피스도 마련했다. 마당에는 물 펌프를 설치해 정겨운 풍경이 펼쳐진다. 건물 외벽에 적힌 공주 대표 시인 나태주의 '풀꽃' 시구절이 방문객을 따뜻하게 반기고, 맞은편의 벽화는 하숙집이 많던 시절에 교복을 입고 이곳을 지나다니던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케 한다. 각종 문화 예술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공주문학사랑방,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쉬어 갈 수 있는 제민천여행자쉼터가 바로 옆에 자리해 편의성을 더한다.

주소 충남 공주시 당간지주길 21 문의 041-852-4747



한옥에서 맛보는 밤 아이스크림 바

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한 한옥 카페. 시그너처 메뉴인 밤 아이스크림은 공주에서 생산한 밤의 겉껍질만 제거해 만든 푸레를 활용한 것으로, 재료 고유의 맛이 느껴진다. 보늬밤 조림 시럽과 밤잼을 올려 풍미를 더했는데, 이보다 달콤하게 먹고 싶다면 수제 보늬밤과 머랭을 추가한다. 고소한 플랫 화이트에 달콤한 밤 아이스크림과 바삭한 크럼블이 어우러지는 바프 플랫라테도 인기 메뉴다. 보늬밤 푸레 반죽에 보늬밤 조각을 토핑한 피낭시에까지 곁들이면 공주의 특색이 묻어나는 디저트 한 상이 완성된다. 아이스크림은 보랭 포장이가능하고, 모든 커피 메뉴는 디카페인이나 오트 밀크로 변경할 수 있다. 박정한·박홍식 대표는 언제 방문해도 안락하고 정겨운 카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테리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목조건축물의 편안한 분위기가 부각되도록 곳곳에 조명을 설치하고, 이와 대비되는 차가운 질감의 자재와 구조 현대적 느낌을 살렸다.

주소 충남 공주시 제민2길 3-2 문의 041-852-1587



제민천이 내려다보이는 소품 가게 단편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저마다의 이야기가 깃든 인테리어 소품이 눈앞에 펼쳐진다. 진예은 대표가 실용성까지 고려해 선별한 아이템이 웅기중기 모여 있다. 밤 모양 키링, 접시, 인센스 홀더가 관광객에게 특히 반응이 좋고, 자투리 천과 나무 조각으로 제작한 걱정인형은 지역민에게도 인기가 높다. 또 제민천 풍경이 담긴 필름 사진엽서나 제민천 일대의 가게를 표현한 일러스트 지도는 여행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기 좋은 제품이다. 동물의 다채로운 표정을 포착한 랜덤 조각 스티커에서 본인 또는 친구의 반려동물과 닮은 제품을 찾아보는 일도 재미있다. 형태와 질감이 다른 노트, 패턴이 제각각인 북 커버 재킷, 완독한 책을 하나씩 적어 책장을 채우는 독서 기록 책갈피도 판매해 독서와 기록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테다. 실로 종이를 엮어 수제 노트를 만드는 워크숍은 예약제로 운영하니, 워크숍 참여를 원하는 이는 방문 전에 일정을 확인하자.

주소 충남 공주시 웅진로 119-1 문의 0507-1364-6239



칵테일 한잔이 건네는 위안 **바틀샵혼돈**

한국 술의 매력을 알릴 방법을 모색하던 김영우 대표는 제12회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후 이전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당시 막걸리를 개발하던 임소희 대표와 주류 판매소를 열기로 한 이유다. 술 한잔이 저마다의 불안을 잠재우길 바라며 임 대표가 출시한 탁주 '혼돈'의 이름을 빌려 상호명을 정했다. 전통주 칵테일을 개발할 때도 감정에 빚대어 만든다는 점이 독특하다. '감정의 칵테일'을 콘셉트로 선보인 '사랑'에 해당하는 'Cue Sign'은 밤 증류주와 달걀흰자를 사용해 연애 중반기의 안정감을 표현했다. 목 넘김이 부드럽고 고소하면서도 끝에 은은하게 단 향이 남는다. '그런드해 Young'은 권태기에 해당하는 칵테일로, 블루 큐라소로 우울한 감정을 시각적으로 담아내고, 레몬즙 비율을 높여 유통기한이 지난 관계에서 느끼는 시름한 기분을 나타냈다. 왕울주를 활용한 밤 하이볼은 공주에 놀러 온 손님들이 자주 찾는 인기 메뉴다. 지난달 감영길로 이전한 바틀샵혼돈은 양조 설비를 갖춘 뒤 보다 확장된 브루 펍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소 충남 공주시 감영길 20 문의 0507-1362-4048



사람과 자연을 잇는 독립 서점 **틈씩**

공주에 정착한 이보영 대표는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독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독립 서점을 열었다. 사람들의 일상에 비건 문화가 천천히 스며들도록 주말에는 채식 요리도 준비한다. 계절마다 바뀌는 '틈씩 스페셜'은 책, 음악, 영화 등 인상 깊었던 콘텐츠에서 영감을 받아 친환경으로 재배한 제철 채소로 구성한다. '곰과 호랑이 허브'에서 나온 계절 블렌딩 허브티,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엮은 틈씩 편지를 함께 낸다. 이번 겨울에는 고 김민기의 '봉우리'라는 노래와 어울리는 따뜻하고 깊은 맛을 내는 국물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윤리와 지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틈씩 스페셜의 영감이 된 콘텐츠를 같이 감상하고 대화하는 모임 또한 지속된다.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추천 책 세 권을 자리로 가져다 주고, 틈틈이 환기를 도와주는 허브 오일을 책상에 비치하는 등 이용자 시선에서 고민한 흔적과 다정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 있다. 이 대표는 각각의 계절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상하며 새로운 연결을 기다린다.

주소 충남 공주시 웅진로 153 문의 0507-1389-3985



우리네 인생에는 크고 작은 태풍이 쉴 새 없이 몰아친다.
혐오와 배제보다는 화해와 용서로 태풍을 같이 이겨 내자는 연극적 제안,
바로 국립극단의 <태풍>이다.



태풍이 몰아쳤지만 참으로 화평하여라



연말에는 다른 공연 예술도 마찬가지지만 연극도 쉴 수 없이 무대에 오른다. 수많은 작품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끈 것은 국립극단의 <태풍>이다. 발레의 경우 <호두까기 인형>이 연말의 대표 레퍼토리이듯 국립극단은 매년 셰익스피어 연극을 주로 올리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 <한여름 밤의 꿈> <겨울이야기> <준대로 받은대로> <실수연발> 등 대체로 가족이 다 함께 즐기기에 좋은 희극을 선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객 반응이 좋았던 기존 작품을 다시 상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 <태풍>을 선택했다. 그것도 셰익스피어가 단독 집필한 마지막 희곡을. 연출을 맡은 박정희 예술감독의 지향점은 분명했다. 화해와 용서. <태풍>은 무대 전체에 그의도가 넘쳐나는 연극이다.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와 국립극단의 <태풍>

<템페스트>는 복수로 시작한다. 동생 안토니오의 계략으로 권력에서 밀려나 딸 미란다와 외딴섬에 살게 된 밀라노의 공작 프로스페로는 마법을 익히며 복수를 꿈꾼다. 천적인 나폴리 왕 알론조가 딸을 결혼시키고 돌아올 때 태풍을 일으켜 배를 침몰시키고 배에 탄 사람들을 프로스페로가 사는 섬으로 밀려들게 만든다. 그렇게 섬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찾아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각자의 욕망이 드러난다.

알론조의 아들 페르디낭은 프로스페로의 딸 미란다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알론조와 그의 충실한 신하 곤잘로는 페르디낭을 찾아다니고, 알론조의 동생 세바스찬은 이 기회를 노려 권력을 찬탈하려 하며 안토니오는 그를 부추긴다. 트린쿨로와 스테파노는 섬 원주민인 칼리반과 결탁해 프로스페로를 죽이고 섬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흩어진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망을 채우느라 분주한데,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섬의 주인 프로스페로가 그의 정령 에어리얼을 통해 만들어 냈고 목표는 복수였다. 하지만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미란다와 페르디낭이 서로 사랑하게 되자, 여전히 권력을 탐하려는 인간들을 관찰하면서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한다. 프로스페로는 에어리얼에게는 자유를, 칼리반에게는 섬을 남겨 주고 외딴섬을 떠난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객에게 용서와 구원의 말을 남긴다. 마치 셰익스피어 자신의 고별사처럼.

태풍이라는 마법을 통해 모인 다양한 인물이 비록 프로스페로의 복수로 연결되지만, 현실의 모든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 주며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미는 원작은 말년의 셰익스피어 이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인생의 모든 국면이 태풍이거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여러분께서 모든 잘못으로부터 용서받으시듯 여러분의 즐거움이 절 풀어주시길.”

태풍일 수 있지만, 그것을 견디고 살아남은 자체로 소중하다는 발언은 생의 끝을 마주한 예술가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래서인지 태풍이 몰아친 작품 초반부터 난파된 사람들의 불안함이 가득한 작품 중반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날카롭다. 화해의 결말에 대한 극적인 강조를 위한 장치이면서 ‘템페스트’(폭풍우라는 뜻)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정서다. 국립극단의 <태풍>에서 주목한 점은 프로스페로가 프로스페라가 되고, 알론조가 알론자로 변했다는 것이다. 최고 권력자를 여성으로 바꾸는 변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성별을 전환하다 보니 복수의 칼날은 무더지고 처음부터 다정함과 따뜻함이 부각됐다. 프로스페라는 딸 미란다에게 어떻게 이 섬에 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는데, 그녀의 친밀함 때문에 프로스페라가 태풍을 일으킬 정도의 마법사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그저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다정한 엄마로 인식하게 된다. 나폴리 왕 알론자 역시 왕으로서의 권위보다는 아들을 잃은 엄마의 이미지가 먼저 다가온다. 이렇게 인물의 성별을 바꿔 성공한 작품으로는 <물타의 유대인>(크리스토퍼 말로 원작, 이곤 연출)이 있다. 주인공 바라바스가 여성이 되니 유대인에 대한 당대 시선, 도덕에 대한 질문 등을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의 바라바스는 악역이고 가해자다. 끝없는 탐욕으로 자신을 비롯해 모든 상황을 파국으로 밀어 넣는 인물이다. 이와 달리 <태풍>의 프로스페라는 피해자다. 선한 피해자가 복수를 다짐하는 상황인데 여성으로 성이 바뀌다 보니 원작의 의미가 새로 읽히기보다는 화해와 용서만 강조됐다. 프로스페라 개인에게 어떤 전환이나 변화가 감지되지 못한 채 원래부터 선하고 온화한 정서가 만들어졌다. 작품의 의도와 목표는 충실히 수행했으나 프로스페라의 성격은 물론이고 작품 자체도 밋밋해진 점이 아쉽다.

태풍의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운 섬과 극장

극장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섬이 눈에 들어온다. 초록빛으로 뒤덮인 테다 작고 예쁜 꽃이 피어 있는 섬(안의 아트막한 동산). 섬을 둘러싼 삼면에 하얀 천막이 드리워져 있다. 인물들은 천막 사이로 등장하고 퇴장한다. 음습하거나 비밀스러운 공간이 없는 밝고 화사한 섬이자 무대다. 명동예술극장에 이렇게 예쁜 무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섬을 아름답게 연출했다. 그런데 작품 제목은 ‘태풍’이다. 거대한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 내는 공포, 그 공포를 뚫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요동치는 역동성이 필요하다. 무대가 아름답다

보니 객석의 통로를 활용하고 사막으로 구분된 무대 앞면을 이용해 태풍을 표현했는데, 불안과 공포는 그렇게 공연 초반에 희석되고 만다. 섬에 떠밀려 온 사람들은 서로를 걱정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불안해한다. 생존 이후의 불안과 걱정이다. 그런데 그들이 발 딛고 있는 섬이 아름답다 보니 별걱정을 다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난파된 사람들이 서로를 찾고 걱정하는 긴장감과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은 것은 무대의 섬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연출가는 라이브 음악을 사용하고 극 중에 노래를 삽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다.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시종일관 유지된 데에는 라이브 연주와 음향효과가 큰 몫을 차지한다. 거기에 무대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섬의 여러 공간을 강조한 조명도 인상적이다. 열린 듯 닫혀 있는 무대를 확장하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프로스페라를 연기한 예수정 배우는 장난기가득한 눈웃음과 화술로 관객을 포함한 모든 인물의 마음을 쥐락펴락한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카리스마가 아닌 다정함과 친근함을 무기로 내세운 마법사다. 갈등이 해소되고 난 후, 무대 뒤 천막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온다. 지금까지 펼쳐진 이야기가 모두 연극이었다는 것을 시각화하는 장면이다. 이어서 프로스페라의 에필로그가 이어진다. 관객이 박수로 극장의 신을 깨워 자신을 풀어달라며, 연극의 미흡함을 괜찮다고 해 주기를 기원한다. 화해와 용서로 일관된 공연의 마무리답게 관객에게도 연극 자체는 물론 삶에 대해서도 화해하기를 당부하는 엔딩이다. 천막이 모두 내려와 허물어진 무대, 그 앞에서 기원과 당부를 하는 프로스페라는 시각적으로 가장 강렬한 <태풍>의 엔딩을 만들어 낸다. 원작의 복수에서는 많이 멀어졌지만, 연극 <태풍>은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살아 낸 모든 이에게 분열과 혐오가 아닌 화해와 용서의 따뜻함으로 등을 토닥이며 뺨을 어루만지는 위로를 건넨다.



<태풍>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가 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박정희의 연출로 새롭게 탄생했다. 원작 특유의 시적인 대사는 살리되, 밀라노 공작 프로스페로와 나폴리 왕 알론조를 여성으로 재해석했다. 배우 예수정이 주인공 프로스페라 역을 맡아 극을 이끈다.

기간 2025년 12월 4일~28일

장소 서울 명동예술극장

새로운 소비 스타일, 경험 사치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그의 욕망과 지위, 라이프스타일을 증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험 소비, 나아가 경험 사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소비 트렌드다.



럭셔리 재정의, 물질 소유에서 경험으로

본래 사치(럭셔리)란 고가의 물건을 사서 소유하는 것을 의미했다. 자동차와 명품 가방·시계 등이 대표적인 사치 소비재다. 이미 19세기부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고가의 사치품을 이용하는 이가 많았고, 그때 탄생한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라는 말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더 이상 물질 소유 중심으로 럭셔리를 소비하진 않을 수 있다. 흔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경험 사치(experiential luxury)가 바로 그것이다. 이젠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에서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로 무게중심이 옮겨 갔다. 이미 물건은 충분히 소유했고, 누구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다. 즉 새로운 럭셔리가 필요해진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배인앤드컴퍼니의 럭셔리 시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퍼스널 럭셔리 시장(의류, 가방, 시계, 보석 등)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1퍼센트 감소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25년에도 이어졌다. 퍼스널 럭셔리 시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빼면 꾸준히 성장했는데 15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속적인 가격 인상에 따른 피로감과 브랜드의 정체된 창의성도 명품 소비재 시장의 둔화 요인이지만, 결정적으로 소유보다 가치를 지향하는 경험 소비 흐름이 뚜렷해진 이유가 크다. Z세대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더 이상 명품 로고만 보고 소비하지 않는다. 경험 사치의 배경에는 전통적 부자를 일컫는 올드 머니(old money)가 있다. 수년째 그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올드 머니가 누리는 여행과 예술, 식문화, 공간(건축·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 등의 경험이 새로운 욕망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는 중이다.

경험 사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행

요즘 럭셔리 브랜드들이 여행과 호텔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표적인 곳이 루이 비통이다. 40년 이상 운영한 뉴욕 맨해튼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2024년부터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다. 규모를 두 배 정도 확장하는데, 공사장 가림막을 대형 여행용 트렁크처럼 만든 것이 눈길을 끈다. 트렁크 6개를 쌓아 놓은 모습으로 높이가 무려 70미터나 된다. LVMH 그룹은 파리 샹젤리제에 루이 비통 브랜드 최초의 호텔을 짓고 있다. 이곳 공사장의 가림막도 루이 비통의 대형 여행용 트렁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왜 공사장 가림막을 여행용 트렁크처럼 만들까? 루이 비통은 1854년 여행용 트렁크로 출발한 회사이고, 19세기 유럽 부자와 귀족의 호화 열차 및 유람선 여행의 유행으로 인기를 끌며 성장했다. 지금 다시, 여행이 루이 비통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LVMH 그룹 계열사인 벨몬드는 19~20세기에 운행했던 호화 열차를 복원해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 그룹(반안트리, 페어몬트, 소피텔, 노보텔 등 여러 브랜드의 호텔 5000여 개 보유)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호화 열차를 운행한다.

경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험 그 자체는 변별력이 없다.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닌 제한된 경험, 바로 경험 사치가 필요한 이유다. 럭셔

리가 가야 할 방향은 결국 경험 사치로 정해진 셈이고, 이는 럭셔리 시장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욕망과 소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왜 백화점이 여행 사업에 나섰을까

신세계백화점은 국내 백화점 중 최초로 여행 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벌였다. 전국에 여행업체가 2만 개가 넘고, 종합 여행업체만 9000개가 넘는 치열한 시장에 왜 신세계백화점이 진입한 걸까? 국내 백화점 업계는 3년째 성장 정체 상태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백화점 빅3(롯데, 신세계, 현대)의 전국 57개 점포 중 39개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백화점 업계는 경험 소비를 지향하는 2030세대와 VIP 고객들의 경험 사치를 공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신세계가 여행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다루는 여행 상품이 좀 비싸다.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품이 많은데, 유명 건축가와 함께 떠나는 유럽 건축 투어, 유명 탐험가와 함께 하는 북극 탐사 등 초고가 경험 사치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내세운다. 프로그램 신청자가 프리뷰 아카데미를 통해 사전에 여행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공항까지 대형 고급 세단으로 의전하며, 공항 수속도 지원한다. 누가 이용할까 싶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좋다. 한국에서도 '비싸지만 개인화된' 여행 상품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험 사치를 여행에 적용하는 건 기존 여행업체보다 백화점 업계가 좀 더 유리하다. 백화점에는 이미 경험 사치에 얼마든지 돈을 쓸 VIP 고객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신세계백화점 전체 매출 중 VIP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45퍼센트로, 2020년 31퍼센트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롯데는 2020년 35퍼센트에서 2024년 45퍼센트로, 현대는 38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증가했다. 따라서 백화점은 VIP 중심의 서비스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경험 사치 중심의 여행 상품이 백화점 업계로 확산된 지금, 관건은 누가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다. 2030세대의 욕망 최상단에는 이제 물질 사치가 아닌 경험 사치가 자리 잡고 있다. 관광이 아닌 몰입감 있는 여행을 위해 한곳에 오래 체류하는 롱 스테이도 확산되고 있다. 초기에는 단지 길게, 오래 머무는 게 중요했다면, 이젠 한곳에 오래 머물면서 현지 문화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가 중요해졌다. 같은 경험을 하는 이들이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자연스럽다. 경험의 확장이자 경험의 진화다. 2026년, 당신은 어떤 여행을, 어떤 경험 사치를 누릴 것인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어떤 욕망을 지향할 것인가? 얼마나 비싼 물건을 가졌는지도보다 얼마나 즐거운 경험을 했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대. 우리는 지금 경험 사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김용섭은 "Trend Insight & Business Creativity"를 연구하는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이자 트렌드 분석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3000회 이상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했고, 트렌드 전문 유튜브 채널 <김용섭 INSIGHT>를 운영한다. 저서로 <라이프 트렌드 2026: 인간중명 + 경험사치> <라이프 트렌드 2025: 조용한 사람들> <프로페셔널 스튜디오> <언컨택트> 외 다수가 있다.

NEWS

VIDEO



**놀고먹기연구소, 바다의 맛 담은
바지락 컵라면 ‘서해오면’ 출시**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그리고 지역
기반의 미식 콘텐츠 전문 기업 (주)먹고놀랩의
놀고먹기연구소가 손잡고 프리미엄 컵라면
서해오면을 출시했다. 충남 보령의 대표 바지락
산지인 군현마을 바지락으로 만든 것이 특징. 조개
칼국수의 구수하고 시원한 국물에 탱글탱글한
면이 어우러져 ‘진짜 바다맛’이 느껴진다.
놀고먹기연구소는 이번 서해오면 출시를
 시작으로 남해오면, 동해오면 등 한국 해양권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라면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playeatlab



**카시아 속초, 겨울 딸기로 차린 식탁
‘윈터 스트로베리 프로모션’ 개시**
반얀그룹의 카시아 속초가 겨울을 맞아 딸기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윈터 스트로베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6층에 있는 그릴
레스토랑 ‘포고’에서는 눈과 입을 사로잡는
시그니처 애프터눈 티 세트 ‘베리 블리스(Berry
Bliss)’를 내놓는다. 4층에 위치한 카페&베이커리
‘호라이즌’은 생딸기와 생크림의 조화가 돋보이는
시즌 디저트로베리 케이크와 함께 겨울 무드를
담은 시즌 음료 4종을 출시한다.
홈페이지 cassia.com/ko/south-korea/cassia-
sok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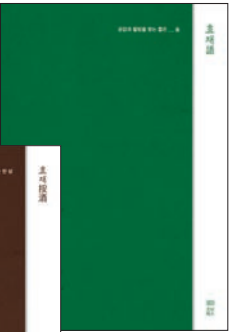
**파라다이스, 신규 브랜드 앰배서더
방탄소년단 뷔 발탁**
파라다이스 그룹이 방탄소년단(BTS) 뷔를
앰배서더로 발탁해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 글로벌 인지도와 영향력을 보유한
뷔의 풍부한 예술적 소양이 드러나는 행보가
그룹이 추구하는 예술 경영 철학과 잘 맞아 모델로
선정했다. 뷔는 파라다이스 시티의 대표 예술
행사인 ‘파라다이스 아트나이트’에 참석하는
등 그간 파라다이스 그룹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
왔다. 이번 브랜드 영상에는 뷔가 청소년부로 등장해
리조트 시설 곳곳을 무대로 변화시킨다.
홈페이지 p-city.com

〈소멸하지 않는 도시〉

도시 재생 전문가 경신원은 축소의 시대에 도시가 살아남는 단 하나의 길은 ‘매력의 회복’이라고 말한다. 매력이 있는 도시는 떠난 사람도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 화려한 개발 대신 작은 문화 축제 하나로 도시의 흐름을 바꾼 이야기, 버려진 낡은 부두를 감각적인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전략 등 쇠퇴하는 도시 속 숨은 매력을 발견해 회복의 길을 걷는 움직임에 집중한다.
경신원 지음 투레빗 펴냄

〈효재어(語)〉&〈효재안주(按酒)〉

한복을 짓고 보자기를 매며 자연주의 살림을 하는 이효재가 시간 두 권을 펴냈다. 〈효재어(語)〉는 짧은 글과 시를 통해 언어가 지닌 치유와 성찰의 힘을 다시금 일깨운다. 〈효재안주(按酒)〉에는 저자가 오랫동안 즐겨 온 안주 레시피와 삶의 태도를 담았다. 하루의 호흡을 고르게 하고, 저녁의 여유를 풍류로 채워 주는 두 권의 책은 독자에게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선물한다.
이효재 지음 초비북스 펴냄



〈이 사랑 통역 되나요?〉

다중언어 통역사 주호진이 글로벌 톱스타 차우희의 전담 통역을 맡으며 펼쳐지는 예측 불허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환혼〉<호텔 델루나〉<주군의 태양〉등 독보적인 로맨스 세계를 구축해 온 홍자매, 홍정은·홍미란 작가와 <붉은 단심〉에서 압도적인 영상미와 섬세한 연출력을 보여 준 유영은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1월 16일 공개.
출연 김선호, 고윤정 **감독** 유영은 **제공** 넷플릭스

〈프로젝트 Y〉

화려하지만 냉혹한 도시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 온 미선과 도경. 갑자기벼랑 끝에 내몰린 두 사람은 우연한 계기로 검은 돈과 금괴를 손에 쥐게 되고, 선택의 대가는 건장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진다. 욕망이 증폭될수록 인물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며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110분간 밀도 있게 펼쳐진다. 1월 21일 개봉.
출연 한소희, 전종서 **감독** 이환

〈투스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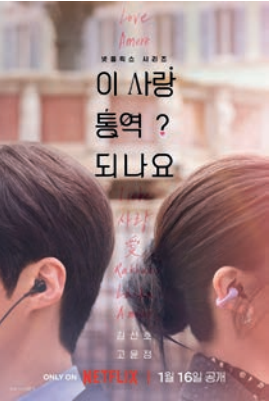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한 10대 소녀 튜즈데이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마 조라. 어느 날 모든 죽어 가는 존재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하는 앵무새 ‘죽음’이 튜즈데이 앞에 나타나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제작한 A24의 발칙한 상상력이 이번 작품에서도 돋보인다. 1월 14일 개봉.
출연 롤라 페티크루, 줄리아 루이스 드레이퍼스
감독 다이나 O. 푸시치

〈철도원〉

겨울의 정취를 대표하는 명작 〈철도원〉이 10년 만에 4K 리마스터링으로 다시 관객을 만난다. 도시와 시골을 잇는 호로마이역에서 철도원으로 살아온 오토가 눈 내리는 새해 아침, 플랫폼에서 낯선 소녀와 마주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훗카이도의 눈부신 설경을 배경으로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삶에 대한 성찰을 세밀하게 담아냈다. 1월 7일 개봉.
출연 히로스에 료코, 다카쿠라 켄 **감독** 후루하타 야스오

〈판결〉

치밀하게 조작된 재판에서 아내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려는 한 남자의 사투를 그린 법정 스릴러.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을 연출한 이창희 감독의 글로벌 프로젝트로, 국내 제작진과 인도네시아 국민 배우들이 협업했다. 권력 앞에 흔들리는 법과 정의를 통해 법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1월 29일 개봉.
출연 리오 드완토, 레자 라히디안 **감독** 이창희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15회 철도사진공모전 동상 '태양 품은 열차' © 김택수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KTX 누적 이용객 12억 명 돌파



2004년 4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KTX가 지난해 11월 17일 기준으로 누적 이용객 12억 명을 돌파했다. 전체 철도 이용객 중 KTX 이용객 비중은 2004년 18퍼센트였으나 해마다 증가해 2014년 42퍼센트, 2025년 10월 말 기준 63퍼센트를 넘어섰다. KTX는 2개 노선, 20개 역으로 출발해 현재 8개 노선, 77개 역으로 늘어났다.

‘코레일톡 셀프 좌석 변경’ 서비스 도입



KTX에 탑승 중인 승객이 스스로 좌석을 바꿀 수 있는 코레일톡 셀프 좌석 변경 서비스가 도입됐다. 열차 내에서 좌석을 변경하려면 코레일톡 앱의 승무원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순회 중인 승무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 것이다. 좌석은 한 번만 바꿀 수 있으며, 일반실에서 일반 또는 특실로, 입석 또는 자유석에서 좌석으로 변경 가능하다.

한국철도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4년 연속 획득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전 사업장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획득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에 공로를 포상하는 제도다. 업사이클링 물품 기부를 비롯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청년 문화 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철도 스테이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철도공사가 주최하는 문화철도 스테이지 행사가 서울역, 강릉역, 오송역, 경주역, 나주역, 대전역에서 총 16회 열렸다. 문화철도 스테이지는 19~39세의 청년 문화 예술인이 역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철도 이용객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문화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KORAIL x 롯데택배

KORAIL KORAIL KORAIL KORAIL

전국 2,500원

레일택배

택배, 이제 역에서 보내세요!

- 기차·전철로 통근 시에도 편리하게 레일택배!
- 여행지에서 선물도 빠르게 레일택배!
- 소상공인도 저렴한 레일택배!

서비스 대상역

(KTX역) 서울, 용산, 청량리, 대전, 동대구, 부산, 전주, 여수엑스포, 강릉 (수도권전철역) 회기, 노량진, 신도림, 가산디지털단지
※ 전국으로 점진적 확대 예정

운영일 '25. 10. 30. 부터

이용요금 전국 2,500원(제주 및 도서산간 제외)

이용방법

코레일톡(메뉴바/하단 “레일택배”) 또는 롯데택배 앱에서 온라인 접수(택배 발송 정보 입력·결제) → 접수 바코드 수령(문자, 카카오톡 등) → 레일택배함 설치역 방문 → 택배함 상단 스캐너에 바코드 스캔 → 운송장(라벨) 출력되면 택배박스에 부착하여 함에 투입 → 접수일 다음날로 부터 목적지(주소지)로 배송



- 무인 택배 발송
택배, 이렇게 편하게 보내세요!
레일택배
- QR코드
레일택배 예약하기
- 접수규격**
세변의 합 100cm(최대40×40×20cm), 무게 5kg 이하
 - 불가품목**
위험품, 신선식품, 파손 위험 전자제품, 현금·서신류 등
 - 문의사항**
레일택배 운영 협력사
 - 롯데택배 고객센터 1588-2121**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KTX 930mm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식음료 Refreshment	신문 Newspaper
			
KTX 1120mm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 와 KTX-산천 4·14호차 에 있습니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 와 KTX-산천 3·13호차 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 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의약품 First-Aid Medicine	금연 No Smoking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 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 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이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KORAIL Website(www.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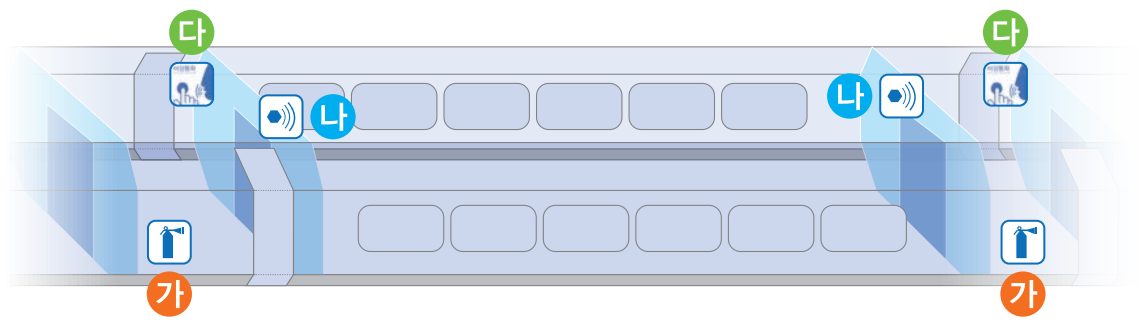
구분	1개월~ 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전 경과 후~ 출발 시각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60분 경과 후~ 도착 시각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40%	70%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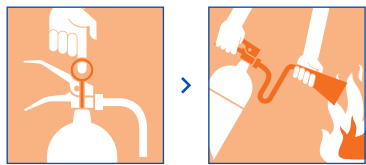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40%	7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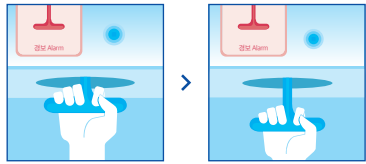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소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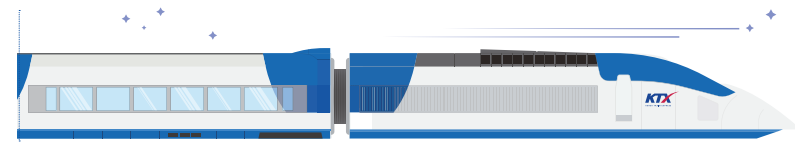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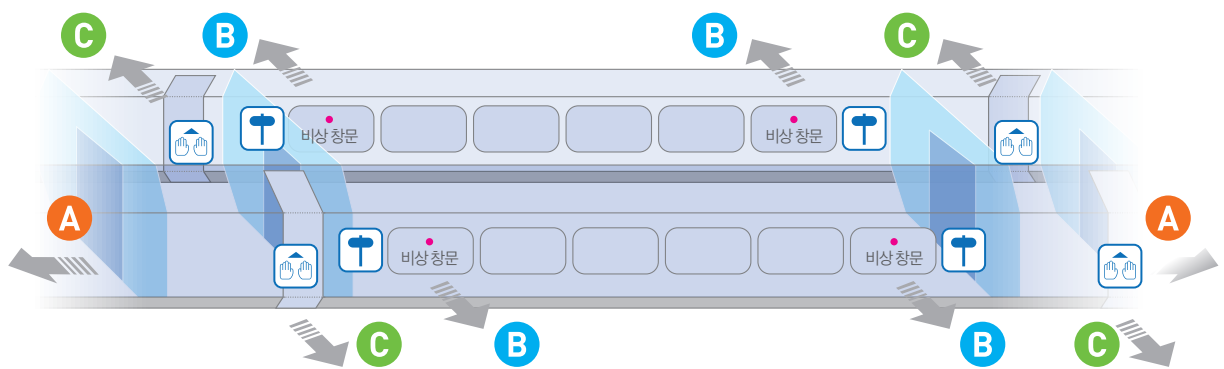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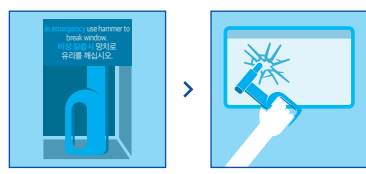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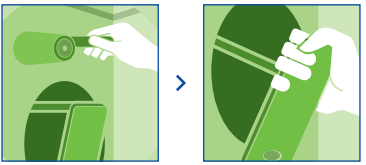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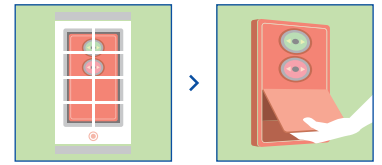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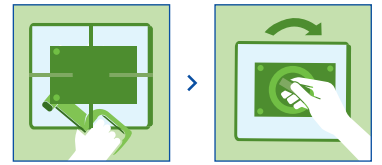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카디와 떠나는 음악 여행



음악 듣기

거문고의 묵직한 소리에 기타와 베이스 연주가 더해지고, 파워풀한 보컬과 만나 폭발적인 에너지를 뽐내낸다. 한국인의 심장을 두들기는 카디의 강렬한 음악으로 새해를 뜨겁게 맞는다.



새해를 밝히는 플레이리스트

▶ 린 Midnight in Harlem 테데스키 트럭스 밴드



컨트리 블루스풍의 잔잔한 곡인데요, 컨트리 장르의 드럼과 기타 연주가 기차 소리를 따라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해요. 이동하는 동안 편안하게 듣고 싶을 때 찾아요.

▶ 인구 Remember Me 미구엘



이 노래를 들으면 따뜻하고 즐거운 감정이 동시에 떠올라요. 제 여행도 영화 <코코>의 주인공 이야기처럼 포근하고 유쾌하고 싶어 늘 곁에 뒹요.

▶ 예지 For Once in My Life 스티비 원더



자신 있게 추천하는 곡입니다. 설렘을 안고 탄 기차에서 이 곡을 들으면 금방 기분이 상쾌해지거든요. 신기하게 말미도 안 나고요.

▶ 다울 가을 아침 아이유



계절에 상관없이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입니다. 웬지 모를 설렘이 느껴지죠. 어디론가 떠나는 기차에서 기분을 전환하고 싶다면 틀어보세요.

▶ 카디 Ready to Fly 카디



여러분의 여정이 조금 더 힘차고 즐거웠으면 해서 골랐습니다. 저희의 첫 이력을 표현한 자작곡이니 가사에 집중해 듣다 보면 분명 에너지를 얻을 거예요.

▶ 카디 매직 카펫 라이드 자우림



일상을 바꿔 줄 마법 같은 여행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노래를 건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훨훨 날기를 바랍니다. 용감하게, 씩씩하게!



카디

김예지(보컬), 박다울(거문고), 황린(기타), 황인규(베이스)로 구성된 얼터너티브 록 밴드. 2021년 서바이벌 프로그램 <슈퍼밴드2>에서 결성한 그룹으로, 최종 3등을 차지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전통 악기를 보유한 밴드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동시에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지난해 자체 레이블을 설립한 이후 EP 앨범 <When the Lights Out>을 발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기획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대표곡으로 '7000RPM' 'Watch Out' 'Not But Disco' '도깨비불' 등이 있다.

©카디, 버스

눈이 내리면, 강릉은
또 다른 세상이 됩니다

With snow, Gangneung is
a whole new world

